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박사학위논문

서울의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화와
도시·건축 환경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ypology of areas
densely populated with foreigners
and Urban Environments

2020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 찬 영

서울의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화와 도시·건축 환경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ypology of areas
densely populated with foreigners
and Urban Environments

지도교수 최 재 필

이 논문을 공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 찬 영

박찬영의 공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국문초록

서울의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화와 도시·건축 환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 찬 영

지도교수 최 재 필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증과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하였다. 현재 국내 외국인 정책은 이주민 공동체의 다양성을 받아드리기에 부족하고 관련 연구는 과거 외국인 밀집지역의 일부 외국인 체류 기준에 따른 결과물로 현재 외국인의 국적과 체류유형의 다양함을 분석하지 못해 현재 이주민 공동체와 외국인 밀집지역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는 이주민 공동체와 관련된 정책과 연구가 이주민의 상황을 이해하고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연구가 아니라 현재 이슈와 상황에 대한 것만 고려하여 상황이 조금만 변하여도 기존의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다양화되어가는 이주민 공동체를 수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았다. 상황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을 조사하여 그에 맞는 정책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주민 공동체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적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고유의 특성을 실증 조사하고 국가간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도시·건축적 영향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유형별 외국인 밀집지역에 적합한 연구가 진행되고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어 다양한 이주민 공동체의 안정적 정착과 국내사회로의 동화를 이룰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국내 상황이 변하여도 국가별 이주민 공동체의 근본 속성인 사회자본과 문화 특성이 반영된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을 도출하고 도시건축의 특성을 조사하여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과의 연관성을 고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2장에서는 첫째, 공동체 이론과 국가 문화이론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동체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자본 요소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사회적 규범과는 다른 어떠한 행동을 위한 가치판단의 근거가 되는 국가 문화이론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기존의 유형화 연구를 검토하였다. 3가지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이주민 공동체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를 도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3장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을 도출하기 연구 설계와 변수 측정을 하였다. 우선 연구대상 지역과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선행연구

와 이론을 근거로 출신국 특성을 분석하는 변수와 체류국 거주지의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출신국 변수와 체류국 변수를 선정하고 국가별 이주민 공동체 특성을 실증 조사하였다.

4장은 측정한 국가별 이주민 공동체 데이터를 기반을 두어 군집분석을 하였다. 군집분석을 하기 위해 실증 조사된 다양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비계층군집분석을 통해 군집의 수를 정하고 계층적군집분석을 통해 유사한 특성을 보인 4가지 군집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ANOVA 검증을 통해서 변수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5장은 도출된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 4가지의 이주민 공동체 특성과 도시건축 환경 특성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우선 도출된 4가지 유형이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 유형화되었는지 유형별 이주민 공동체 특성을 조사하여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이 외국인 밀집지역의 도시건축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형별 도시건축 환경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두 특성간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도시건축 환경의 특성을 확인하고 두 특성간 연관성을 확인한 첫 도시·건축 연구라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물을 통해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유형별 외국인 밀집지역의 도시건축 환경과 그에 따른 현재 정책 수립과 보완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을 가지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주민 관련 정책과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되고 보완되어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내 주류사회와 동

화를 이루어 한국과 성공적인 통합이 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는 도시 이미지 개선과 도시 활성화 등 긍정적 영향을 주어 다양성도 인정하는 성공한 다문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화, 도시건축환경, 국가문화 이론, 군집분석

학번 : 2012-30147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2.1 연구의 범위	6
2.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구성	9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국가문화의 비교	10
1.1 공동체 이론	10
1.2 문화의 정체성	13
1.3 국가문화 비교 이론	24
1.4 Hofstede의 문화 차원 이론	29
1.5. 국내 선행연구	42
2. 국제이주와 사회통합정책	45
2.1 국제이주이론	45
2.2 이주민의 문화적응	47
2.3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49
2.4 국내 선행연구	58
3.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 및 유형	60
3.1 외국인 밀집지역 개념	60
3.2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과 발전	61
3.3 기존의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	66

3.4 국내선행연구	69
------------------	----

제 3 장 이주민 공동체 변수 설정과 측정

1. 연구의 설계	72
1.1 연구의 설계	72
1.2 연구대상 선정	73
2. 변수의 선정	74
2.1 이주민 공동체 변수 선정 배경	74
2.2 출신국 지표	75
2.3 체류국 지표	80
3. 변수 측정과 분석방법	83
3.1 변수 수집 및 표준화	83
3.2 분석과 검증 방법	85

제 4 장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화

1. 이주민 공동체 특성	87
1.1 출신국 지표	87
1.2 체류국 지표	96
1.3 소결	113
2.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 도출	116
2.1 기술통계	116
2.2 군집분석	117
2.3 이주민 공동체 변수 특성	125
2.4 외국인 밀집지역 분석	134

제 5 장 이주민 공동체와 외국인 밀집지역 연관성 고찰

1. 유형 1	140
1.1 이주민 공동체 특성	140

1.2 도시건축 환경	142
2. 유형 2	147
2.1 이주민 공동체 특성	147
2.2 도시건축 환경	148
3. 유형 3	154
3.1 이주민 공동체 특성	154
3.2 도시건축 환경	155
4. 유형 4	160
4.1 이주민 공동체 특성	160
4.2 도시건축 환경	161
5. 이주민 공동체와 도시건축 환경 연관성 고찰	168
5.1 이주민 공동체 특성과 외국인 밀집지역	168
5.2 이주민 공동체 변수의 도시건축 영향	172
5.3 유형별 명칭 선정	175

제 6 장 결 론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178
1.1 연구의 요약	178
1.2 연구의 의의	183
2.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방향	184
2.1 연구의 한계	184
2.2 추후 연구의 방향	185

표 차례

표 1 국민성 응집력 영향을 주는 변수(Yinger, 1986)	21
표 2 국가문화 비교 이론	27
표 3 Hofstede의 5가지 가치 주요 질문	32
표 4 국가문화 비교와 관련된 선행연구	43
표 5 주요 국제이주이론	46
표 6 다문화 정책 모형	51
표 7 이주민 통합정책 모델에 따른 국가 구분	52
표 8 국내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56
표 9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이론 선행연구	58
표 10 외국인 밀집지역과 도시사회 변화과정	63
표 11 외국인 밀집지역 의미	67
표 12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과 사례	69
표 13 외국인 밀집지역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70
표 14 이주민 공동체 변수	83
표 15 문화가치 변수	87
표 16 문화가치 변수	88
표 17 사회자본 변수	91
표 18 1인당 GNI - 국제이주 변수	92
표 19 산업별 종사자 변수	93
표 20 정치성향 변수	95
표 21 문화가치 변수	96
표 22 서울시 등록외국인 현황 (2016)	97
표 23 서울시 체류목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2016)	98
표 24 서울시 국적별 이주민 경제지역	99
표 25 국가별 체류 외국인 상위 지역 (2016)	104
표 26 서울시 구별 국가별 체류 외국인 비유사성지수	109
표 27 서울시 행정동별 국가별 체류 외국인 비유사성지수	110

표 28	기술통계량	117
표 29	군집화 일정표	118
표 30	비계층적 군집결과	120
표 31	1차 K-means 분석	121
표 32	2차 K-means 분석	122
표 33	최종 군집분석 결과 종합	122
표 34	군집별 국가 수	123
표 35	군집별 대상국가간 중심거리	123
표 36	군집 중심간 거리	124
표 37	최종 군집분석 결과	124
표 38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	125
표 39	문화가치 변수 군집요인	126
표 40	1인당 GNI 변수 군집요인	128
표 41	산업별 종사자 비율 변수 군집요인	129
표 42	정치성향 변수 군집요인	130
표 43	체류현황 변수 군집요인	132
표 44	체류현황 지수 표준화	133
표 45	유형 1 거주환경 특성	147
표 46	유형 2 거주환경 특성	153
표 47	유형 3 거주환경 특성	159
표 48	유형 4 거주환경 특성	166
표 49	유형별 도시건축 주요 특성	171
표 50	유형별 이주민 특성과 도시건축 환경	177
표 51	76개국/지역의 권력거리지수	196
표 52	76개국/지역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지수	197
표 53	76개국/지역의 남성성-여성성 지수	198
표 54	76개국/지역의 불확실성회피 지수	199
표 55	92개국/지역의 장기지향 지수	200
표 56	서울시 행정구별 국적별 유사성지수	207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 내용	5
그림 2 연구흐름도	9
그림 3 Hofstede의 정신프로그램의 범주	30
그림 4 문화의 4가지 범주	31
그림 5 문화적응곡선	48
그림 6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과정	62
그림 7 연구 설계도	74
그림 8 출신국 특성 변수 선정	75
그림 9 체류국 특성 변수 선정	80
그림 10 군집분석 프로세스	86
그림 11 국가별 문화 가치 변수	89
그림 12 국가별 1인당GNI지수-국제이주지표	93
그림 13 산업별 종사비율	94
그림 14 정치성향	96
그림 15 서울시 체류외국인 현황	100
그림 16 외국인 이주민경제 지역	102
그림 17 국가별 체류지역 현황-1	106
그림 18 국가별 체류지역 현황-2	107
그림 19 주거지분리지표	112
그림 20 집단 간 텐드로그램	119
그림 21 군집 간 개인주의-집단주의와 권력거리	127
그림 22 군집간 1인당 GNI	128
그림 23 군집간 산업별 종사비율	130
그림 24 군집간 사회자유도-경제자유도	132
그림 25 군집간 체류인구-이주민경제	133
그림 26 유형 1 이주민공동체 지수	138
그림 27 유형 2 이주민공동체 지수	138

그림 28 유형 3 이주민공동체 지수	138
그림 29 유형 4 이주민공동체 지수	138
그림 30 거주환경 요소	140
그림 31 유형 1 이주민 공동체 특성	141
그림 32 유형 1 밀집지역 분포	142
그림 33 대림동 노후주택	143
그림 34 대림동 차이나타운 옥외광고물	144
그림 35 차이나는 대림문화축제	145
그림 36 춘절 전통 장식품	145
그림 37 대림동 차이나타운 상가	146
그림 38 유형 2 이주민 공동체 특성	148
그림 39 유형 2 밀집지역 분포	149
그림 40 반포4동 고급빌라	149
그림 41 반포4동 서래마을 상가	150
그림 42 서울내 프랑스 행사	151
그림 43 서래마을 옥외광고물	152
그림 44 유형 3 이주민 공동체 특성	155
그림 45 유형 3 밀집지역 분포	155
그림 46 이촌1동 중고층아파트	156
그림 47 연희동 화교마을 상가	157
그림 48 한일축제한마당	158
그림 49 연희동 화교마을 상가	158
그림 50 유형 4 이주민 공동체 특성	161
그림 51 유형 4 밀집지역 분포	162
그림 52 신당동 노후빌라	162
그림 53 광희동 상가 옥외광고물	163
그림 54 성니콜라스 대성당	164
그림 55 이태원 이슬람사원	164
그림 56 인도축제	165
그림 57 중앙아시아 축제	165
그림 58 광희동 상가	165

그림 59 이주민 공동체와 도시건축 환경 영향 관계	172
그림 60 이주민 공동체 특성과 도시건축 영향	174
그림 61 Value survey module 2013 questionnaire	202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

(1) 체류 외국인 증가와 사회적 이슈 대두

1990년대 글로벌 노동 이주를 시작으로 국내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2019년 237만을 넘었다. 체류 외국인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는 2050년에는 409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정도의 체류외국인 규모는 2010년 런던의 체류 외국인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이 가까운 미래에 다문화 국가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체류외국인 증가는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다방면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체류외국인 증가 현상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정책, 환경 등 다방면에서의 대비가 필요하다.

국내 초기 외국 이주자는 주로 서울 구로구, 안산, 대구 등 전국의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였으나, 최근에는 근로자 유형의 다양화와 전문직, 유학생, 국제결혼에 따른 이주 증가 등 외국인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주거지역이 전국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박세훈, 정소양, 2009). 이렇게 전국에 형성된 외국인 밀집지역이 지역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새로운 역할을 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주민과 마찰과 강들이 심화되거나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이주민의 사회부적응으로 실업과 빈곤이 증가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거나 계도화되는 부정적 이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2) 오래된 분류체계와 유형화의 필요성

현재 외국 이주자와 관련된 도시건축정책은 국가별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과 현재 국내 이주민 체류 현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외국인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이주민을 관리하고 있어 다양한 출신의 이주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그리고 체류 지역의 입지 특성과 체류유형만 고려하여 분류한 외국인 밀집지역 기존 유형이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 분류 연구를 한 시기인 2009년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다수가 한국계중국인이었고 체류 자격의 유형이 다양하지 못한 상황이며 체류 외국인에 관한 연구와 체류 현황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유형화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분석을 배제한 분류로써 유형화 연구하던 시기의 체류 외국인의 일부 현황에만 집중한 연구로 체류외국인의 국적과 체

류자격이 다양화된 현재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서 새로운 도시건축환경 정책을 포함한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이주민 공동체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주민에 대해 바라보는 내국인의 시선은 다양하다. 일부 국가에 대한 부정적 식이 있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도 있다. 또, 선진국의 유입되는 이주민과 개발도상국에서 유입되는 이주의 체류 목적도 다르다. 이주민의 출신에 따라 문화가치가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형화가 필요하고 유형의 특성에 맞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그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으로 보이며 다른 이주민 공동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별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주민 공동체의 거주환경과 관련된 도시건축 정책과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대부분 기존의 외국인 밀집지역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정책 마련과 도시건축 연구가 진행되어 이주민 공동체를 고찰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건축 연구가 필요

Lefebvre(2011)는 국가마다 정치, 권력, 사회, 문화 등의 특징이 도시·건축 환경에 반영되어 형성된다고 하였다. A. Rapaport(1969)는 집단의 사회적 가치와 상호작용으로 사회의 주거문화나 주택 양식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도시·건축 환경은 지역 거주자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이주민 공동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국내사회에 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인 외국인 밀집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공동체 특성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주민 공동체가 국내사회에 성공적 사회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별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도시·건축 차원에서는 이주민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들의 체류 공간에 대한 유형을 밝히는 것이 외국인 밀집지역의 연구와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외국인 밀집지역은 외국 이주자들이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면서 거주하는 물리적 공간이다. 매년 증가하는 체류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동화가 가능하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국가별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과 국내 체류 현황을 고려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이 반영된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도시·건축 환경의 특성과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과 유형별 도시·건축 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적 국내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정책과 새로운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을 통한 다양한 도시건축 연구의 새로운 기준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과 국내 체류 현황을 실증

조사하고, 둘째, 이주민 특성이 반영된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도시건축 환경을 조사하여 이주민 특성과의 연관성을 고찰하고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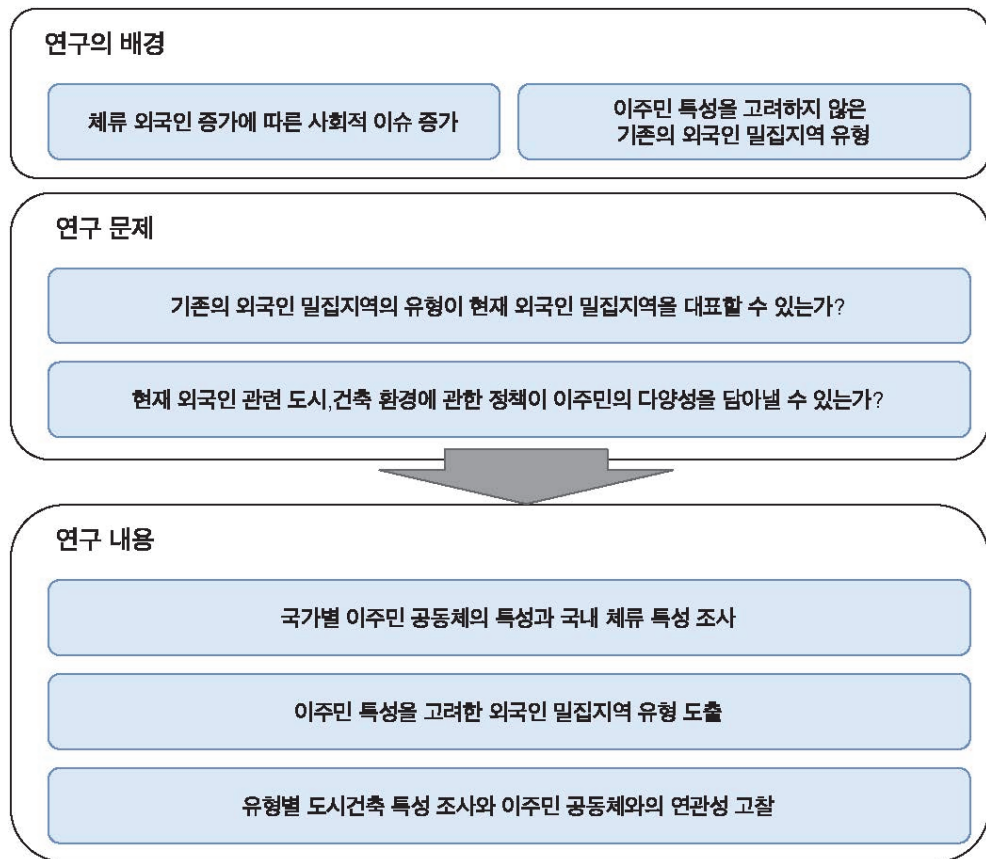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내용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과 이주민의 국내 체류 특성을 실증 조사하고 분석하여 특성이 반영된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도시·건축 환경을 조사하여 서로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출신국과 체류유형이 다양한 이주민이 체류하고 있는 서울시를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화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한정한다.

(2) 연구의 대상 국가

세부 연구의 대상 국가는 2016년 서울특별시 등록외국인 기준¹⁾ 체류인 상위 14개 국가로 중국, 미국, 베트남, 대만, 일본, 몽골, 필리핀, 프랑스, 우즈베키스탄, 인도, 캐나다, 영국, 태국, 러시아로 선정하였다.

(3) 연구대상의 선정 한계

본 연구는 체류 외국인 수가 많고 다양한 체류 자격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만을 연구 범위로 한정하여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등 서울 이외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외국인 밀집지

1) 개인정보보호법으로 2016년 2분기 이후로는 국적별 동별 체류외국인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역의 유형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체류인의 수가 적은 국가에 대해 고려를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이주민 특성이 반영된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성과 국내 이주민 공동체 현황을 실증 조사하였다. 실증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유형을 도출하였다. 또, 유형별 도시·건축 환경 특성을 조사하고 이주민 공동체 특성과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이주민 공동체 특성과 현황 조사

이주민 공동체 특성과 국내 체류 현황을 실증 조사하기 위해 문헌 고찰, 현장관찰, GIS 활용, 비유사성지수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문헌고찰은 공동체 이론, 국가문화 비교이론, 국제이주이론,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과 변화 등의 관점에서 국내외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국가 연구과제보고서, 행정부서 보고서 등을 활용하였다. 현장관찰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이주민 특성과 도시·건축 환경의 특성을 관찰 조사하기 위해 대림2동, 가리봉동, 갈현2동, 이촌1동, 광희동, 이태원동, 한남동, 연희동, 신촌동, 반포4동, 소공동에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2019년 6월, 11월, 2020년 1월, 3월에 각각 평일과 주말에 방문하였다. 이주민 공동체의 거주지 분포와 공간분리를 확인하기 위해 QGIS 3.4를 활용하여 국적별 체류외국인의 분포를 시

각화하였고 비유사성지수 분석을 통해 국가별 이주민 공동체의 주거지 분리지역을 조사하였다.

(2)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 도출

실증 조사를 통해 얻은 국가별 이주민 공동체 특성 데이터를 Z-score 표준화하였고, IBM사의 SPSS 23 프로그램을 통해 표준화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과 비계층적 군집분석(K-means)을 수행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새로운 유형을 도출하였다. 표준화 데이터 유효성은 ANOVA 검정을 통해 검증하였다.

(3) 유형별 도시·건축 환경과 이주민 공동체 연관성 고찰

도출된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의 특성과 유형별 도시·건축 환경 특성의 연관성을 문헌조사, 관찰조사,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고찰하고 확인하였다.

3. 연구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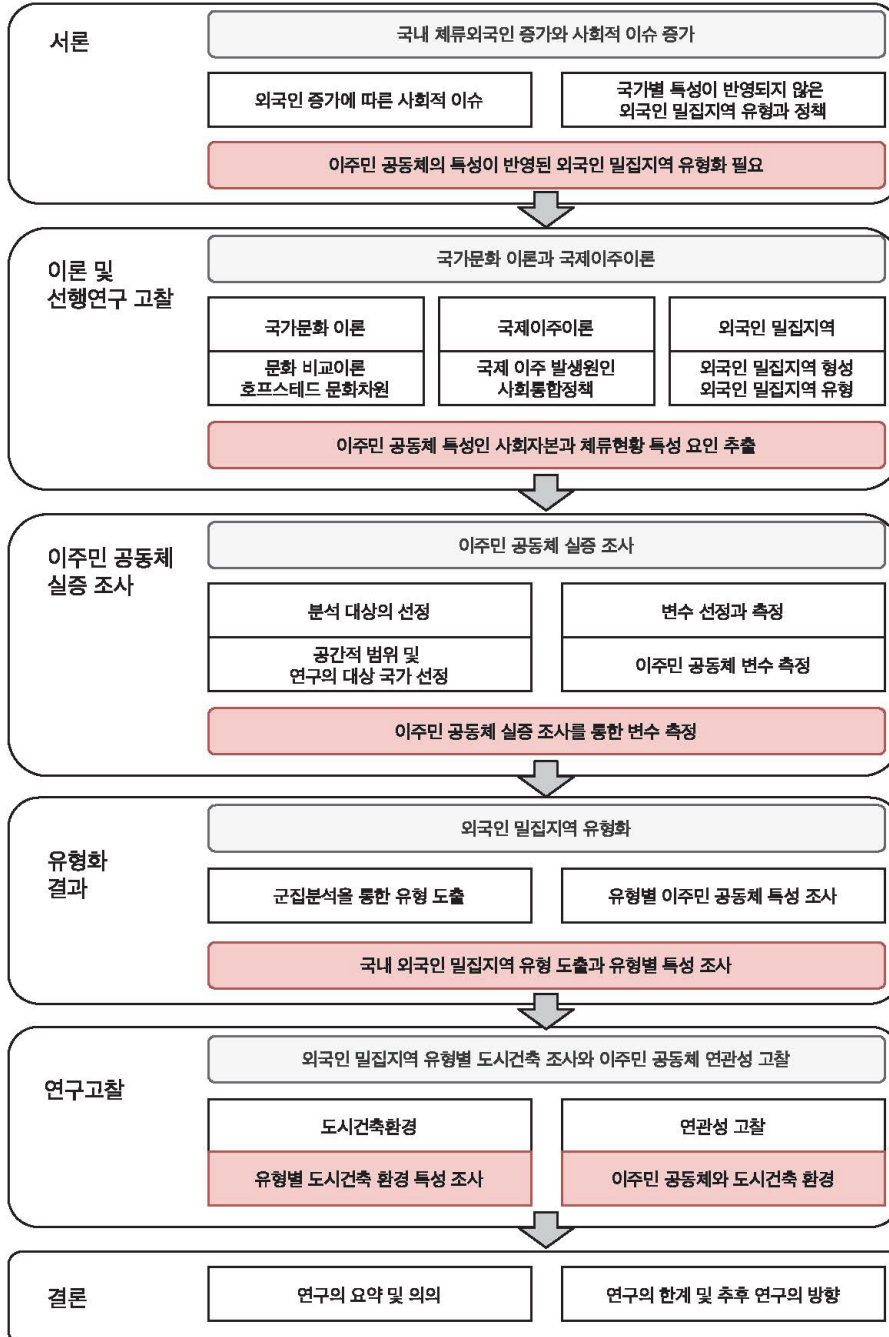


그림 2 연구흐름도

제 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국가문화의 비교

1.1 공동체 이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시작으로 학교, 직장, 지역, 국가 등의 다양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이자 욕구이다²⁾. Fromm(1986)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자아실현하려는 기본적 욕구를 가지며 이것을 실현하는 장이 공동체인 것이라고 말하였다.

공동체는 “공동의 삶의 형태를 지닌 사회조직”이라고 정의한다. 김수영외 2인(2014)는 이러한 공동체는 구성원의 삶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Hillery(1995)는 일정한 물리적 영역 안에서 공동의 유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무리라고 공동체를 정의하였다. 공동체는 물리적 공간인 지리적 영역,

2) 김수영, 장수지, 문경주(2014), 신공동체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론과 문화이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2권 1호

공동체 내부의 지속적이고 패턴화된 관계인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체 내의 공유하는 규범과 가치인 공동의 유대의 3가지 기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속성으로 특정한 공동체의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근대 이후 산업구조가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변화하고 자유주의가 확산하면서 전통적 공동체가 약화되거나 해체되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지리적, 공간적 범위가 마을, 국가에서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기본적 공동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새로운 사회의 특성과 세계 문화의 맥락 요인이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나타나고 있다.

공동체성은 공동체를 만들고 지속하려고 하는 특성으로 ‘공동의 가치와 신념’, ‘직접적 상호관계’, ‘호혜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물리적 속성인 장소를 전제로 형성된다.(방영준, 2007 재인용) 하지만 최근 현대 사회에서는 사이버 공간이 생겨나고 전세계적으로 발전하면서 단순한 공간적, 지리적 속성을 뛰어넘어 세계적 사이버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물리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공간에 사회자본이 형성되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사회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송인하, 2010, 재인용)

이러한 공동체의 특성 3가지 구성은 첫 번째, ‘공동의 가치와 신념’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는 공동의 가치를 가지며 서로 간의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의 가치와 신념은 공동의 경제, 정치,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며 지속하도록 한다. 두 번째, ‘직접적 상호관계’는 구성원 간의 지속적 사회적 관계

가 유지되도록 하며, 이 관계는 지리적 동질성이나 정서적 유사성을 매개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호혜성’은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는 공동의 가치의 도덕적 요소로서 공동체 내부에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권리와 의무를 지게 하며, 어떤 행동에 대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공통적 행동을 기대하게 하는 속성이다.

김수영외2인(2014)는 앞에서 언급한 공동체성의 3가지 구성요소를 사회자본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회자본은 공동체성과 같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자본의 차이에 따라 그 사회의 특성을 구분되어 진다고 하였다. Putnam(2000)은 사회자본을 사회 구성원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와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호혜성’과 ‘신뢰성의 규범’으로 정의하는데³⁾, 이것은 공동체성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기준으로 4가지 공동체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사회자본 특성을 분석하여 공동체를 구분하고 주거지역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분하고 정의하였다.

Bourdieu(1985)는 공동체의 특성 분석을 다른 공동체와의 구별 짓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각각의 공동체 특성을 아비투스(habitus)로 명하였다. 아비투스는 어느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 경제, 정치, 사회적 가치를 기반을 두는 생활방식을 의미하며, 특별한 학습을 거치지 않고도 객관적으로 그 집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실천과 표상의 생성과 조직의 원칙이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는 아비투스를 공동체의 경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의 속성을 가지며 이러한 자본으로 그 공동체의 사회적 계급까지 구분할 수 있다고

3) Putnam(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하였다.

이렇게 공동체마다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가치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사회자본과 도덕요소 표출되어 각각의 공동체를 정의하고 다른 공동체와의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1.2 문화의 정체성

(1) 문화의 정의와 특성

문화는 라틴어 ‘cultura’에서 기원한 단어로 ‘밭이나 가축을 보살피는 것’을 뜻한다. 13세기에는 ‘culture’로 단어가 바뀌면서 ‘경작된 땅’으로 의미도 바뀌었고, 16세기 중반에는 비유적 의미가 형성되어 ‘능력의 배양’으로 의미가 변하였다. 문화(culture)는 18세기 프랑스 왕립학술원 사전에 등재되면서 ‘예술의 배양, 문학의 배양, 과학의 배양’ 등으로 계몽주의적 단어로서 의미가 발전되었으나 문화상대주의를 주장한 헤르더(Herder, 1774)는 각 민족의 민족성이라는 의미의 문화와 인류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계몽주의의 빈약하고 단일화된 보편적 의미를 부정하기도 하였다. 19세기 독일에서는 ‘한 국가의 민족과 인종’의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민족국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토대가 되기도 하였고 19세기 프랑스에서는 ‘인류의 단일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활용되었다. 현재 문화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문화는 한 집단의 삶의 양식을 나타낸다. 즉, 문화는 한 집단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공유된 행위 양식이고 구성원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화는 어떠한 물체나 인간의 피상적인 행위를 의미하기보다는 그것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 가치가 문화이다. 물체와 행위는 주어진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생활과 사고들이 만들어낸 문화의 부수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어떠한 물체와 행위들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원초적인 생각과 가치가 비로소 문화라고 할 수 있다.⁴⁾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관심사에 따라 각자의 시간과 공간 감각을 발전시키게 된다.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자기의 시간 또는 어떠한 이벤트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 개인의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개인의 문화가 모인 각각의 집단은 자신만의 고유의 문화적 독립성을 지키려고 한다. 이러한 특성은 집단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한 사회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은 이웃하는 집단과의 관계들을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다.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만남은 규모가 큰 사회에서도 일어나지만 같은 사회에 속한 다양한 집단 사이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 계층화된 집단에서 사회계층이 문화 계층을 결정하고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문화 계층간에 문화 이질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높은 사회계층의 집단이 낮은 집단의 문화적 특성을 결정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사회적 지배집단이 아닌 대중 계급의 문화는 독립성이나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 지배집단이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쉽게 변화시킬 수는 없다.⁵⁾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5), 국민문화 선진화의 과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96

5) 한국문화인류학회(2003),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일조각, 서울

Ollier(1995)는 다양한 인류학자들이 주장한 문화 특성 중 공통된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문화는 개인에 관련된 특성이 아니라 가치관, 믿음, 신념들을 공유하고 있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합체의 특성이다. 대부분 집단 문화의 비교 연구는 개인 속에 있는 가치관을 분석하여 국가별 문화를 정의하거나 다른 문화와 구분하고 있다. Hofstede(1981), Inglehart(2000), Huntington(2000)과 같은 정치·사회학자들도 집단의 문화 가치관은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쉽게 변하지 않고 해당 사회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쳐 시간이 지나도 지속해서 구분이 가능한 집합의 특성이라고 하고 있다.

둘째, 문화는 학습된다. 개인은 어느 한 집단에 속함으로써 사회화 과정을 통해 문화를 배워 나가게 된다. 이러한 사회화로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적 가치관과 규범을 집단 속에서 생활하면서 경험으로 서서히 학습되어간다.

셋째, 문화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는 나라의 역사의 산물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오랜시간 누적되어 만들어진 문화는 구성원의 공유된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나타난다.

넷째, 문화는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Schein(1985)은 문화를 기본 가정(basic assumptions), 가치관(values), 인공물과 창조물(artifacts and creation)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이것들은 사회계층별로 구분되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상류층과 하류층,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따르는 자,

주류와 비주류 등 다양한 사회의 계층마다 문화가 다르게 존재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문화는 스스로 재생산된다. 부모들은 자신이 배운 것을 자식에게 재생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항상성(homeostasis)이라 부르는데 한 집단에서 동일한 문화가치가 지속하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다. 이는 동일 집단 내 도덕권(moral circle)을 형성하는데 아비투스⁶⁾처럼 그들만의 영역을 만들어 영역 내에서는 구성원만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집단마다 어떠한 현상이나 행위는 집단의 보편적 기준인 도덕권을 근거로 평가하게 된다.

(2) 문화 종족성

대부분 국가에서는 피부와 머리카락, 출신 국가 등 인종으로 문화를 구별하기도 한다. 인종(race)은 피부색, 머리카락 색과 모양, 신체 계측 등 인체의 특성을 통해 분류하는 범주로 인류를 백인종(caucasoid), 황인종(mongoloid), 흑인종(negroid)와 같은 범주로 구분한다. 이는 19세기 진화론적 세계관과 맞물려 인종에 따른 우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인종은 생물학에서 생물체들을 분류하기 위해 고안된 종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초기에는 신체의 특징에 따라 인종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신체적 특성에 따른 인종의 분류는 인종의 차이가 지능과 정신적 능력, 문화의 열등함과 우월함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인종마다 신체적 특징을 근거로 이러한 인종과 문화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남아프리카공

6) H. Lefebvre(2011).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서울

화국에서는 1990년대 초까지도 이러한 진화론적 인종관을 근거로 차별 제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인종별 생물학적 차이는 유전자의 0.2% 차이 중 9%만이 인종을 구분 짓는다. 이와 같은 Eriksen(1995)의 주장으로 진화론적 인종관은 사라지게 된다. 결국, 인종의 구분은 우리 인류의 수많은 조합의 분류 중 하나이며 현재 인종의 새로운 개념은 생물학적 개념보다는 사회문화적 구성물로서 정의되고 있다.

Wolf(1982)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서구의 팽이라는 맥락에서 인종의 사회적 개념이 발전해 왔다고 설명하였다. 세계를 지배한 서구는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지배계급을 유지하기 위해 인종의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였다. 흑인(negro), 인디언(indian)과 같은 부정적 의미의 용어는 이들 집단 내부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모두를 하나의 열등한 인종 집단으로 전락시켜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을 받아 마땅한 열등한 집단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는 인종의 사회적 개념이 확산하는 것을 노동시장에서 위계적 질서에 따른 노동 착취를 정당화하는 과정이라 주장하였다.

현재 국내 외국인 노동자도 Wolf(1982)가 언급한 것처럼 저임금의 열등한 집단으로 만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한국문화인류학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에 외국인과의 접촉이 비교적 적었던 한국인이 1990년도 외국인노동자를 유입시키면서 19세기 서구인들처럼 피부색을 기준으로 서열화된 사회적 인종 개념의 질서를 형성하려고 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고 한다. 함한희(1995)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종주의적 차별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노동질서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저임금을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끊임없이 인종의 사회적 개념에 근거하여 그들을 부정적이고 저급한 대상으로 평가하고 동료 노동자들도 자신들이 더 나은 임금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부정적이고 낮은 대상으로 묘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문화는 습득되는 것이고 생물학적 계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러한 문화의 기원과 특성은 무의식적인 것이다.(Denys, 2009) Taylor(1871)는 문화를 국민의 특성으로 해석하는 넓은 의미의 국민문화로서 ‘사회 구성원으로 습득된 지식, 믿음, 예술, 교육, 권리, 관습, 다양한 능력 또는 관습들의 복합적 총체’라 정의하였다.

인류학에서는 문화적 특징을 정의할 때 인종보단 부족(trib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부족은 넓은 의미에서 혈연집단이며, 식민통치 끝나고 집단 간의 경계가 명확하고 문화적 특징이 공유되는 안정된 정치집단으로서 인류학에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 용어는 제국주의가 사라진 후 나쁜 용어로 여겨지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1960년대 종족성(ethnicity)이라는 용어의 사용되게 시작하였다. 국민과 종족은 차이가 있는데 국민은 ‘근대적 영토 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등장한 공동체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경계와 역사적, 문화적, 혈연적 공동체의 경계가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종족은 ‘정치적 공동체인 근대적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국민성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용어로 구분되는 국민의 문화, 지식, 믿음, 예술, 교육, 권리, 관습, 다양한 능력 또는 관습의 복합적 총체로서의 국가의 공통된 특성이다. 이러한 국민성은 과거에 인종에 따라 부과되는 정체성으로 이해되었지만, 이는 잘못된 오해이다. 국

민성은 생물학적 사실보다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용어로 국민적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되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는 단순히 인종과 국민의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통제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혼혈이나 이민 또는 이주 2세대, 3세대를 명확하게 분류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성은 집합의 역사, 정체성, 경험 등으로 구체화하는데, 특히 공간과 장소의 역할은 국민적 정체성의 결정적으로 형성하게 되는 요인이다. 또한, 국민성은 한 집단의 뚜렷한 구성원들을 서로 결속시키는 동시에 비구성원을 분리한다. 같은 지역에서도 각각의 국민집단이 선호하는 동선, 정류장, 시간별 행동 특징,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 상가의 특징 등 각각의 국민의 공통적 선호하는 것이 보인다. 국민에 따른 특징의 차이는 도시 공간의 분리로도 나타나고 이런 각각의 도시 공간은 그들이 선호하는 특성에 맞추어 도시의 패턴이 변하며 기존의 도시 공간과 분리되며 이질화되어간다.

문화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집단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문화’와 ‘정체성’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각에서 본 동일한 현실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한 사회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은 이웃하는 다른 집단과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사회과학의 학문적 결실을 수용한다면 문화 분석은 독자적 위상을 지니며 현대 세계에서 이용되는 상징적 논리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읽어내는 데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현실은 종종 상징적 강제성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분야에서든 종교 분야에서든 그리고

기업에서든 이주민에게든 문화는 규범처럼 강요되지는 않는다. 문화는 아주 평범한 도구처럼 조작되지도 않는다. 문화는 매우 복잡하며 대부분 무의식의 과정에 속하기 때문이다.(Denys, 2009)

외국이나 다민족국가에서 재형성된 민족의 응집력은 사회적 구축물로서 점차 변화되고 수정되며 재구조화된다. 민족성은 3단계로 재구조화하는데, 이주 초기에는 동일 민족의 사회적 요구와 타민족과의 공간적 분리는 공유 가능한 민족성에 근거하여 구축되기 시작한다. 이후, 사회적 여건과 커뮤니티 발달로 인하여 민족 커뮤니티의 교외화가 이루어지면서 거주국의 문화와의 동화 과정이 시작되며 원래의 민족 정체성이 점차 약화 된다. 마지막으로 흡여지고 거주국의 문화와 동화되고 사회적 활동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민족 정체성은 단편으로만 구성되어간다. 아프리카인, 이탈리아인, 중국계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등 원래의 민족 정체성은 약화되고 거주국 문화에 회석되어 간다.

국가 집단의 내적 응집력 영향을 주는 몇몇 변수가 존재한다.(Yinger, 1986) 다음 표에서 왼쪽의 응집력과 국민 또는 집단의 특성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된다. 이러한 국민 단 중 다른 언어를 쓸 때 내부 집단의 응집력은 더욱 강해진다. 표에서 상호의존적 변수들은 한 집단과 주류사회간의 이질성을 중심으로 모인다. 주류사회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들은 공간적으로 더욱 분리되며 이러한 분리는 집단의 이질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구체화한다.

표 1 국민성 응집력 영향을 주는 변수(Yinger, 1986)

증가시키는 경향	감소시키는 경향
대집단	소집단
지역과 커뮤니티에 의해 집중된 주택지역	분산된 주택지역
지역에 단기거주	지역에 장기거주
자국으로 출국이 자유로움	자국으로 출국이 어려움
서로 다른 언어를 씀	많이 쓰는 언어를 씀
대다수 사람들과 다른 종교	대다수의 사람들과 같은 종교
다른 인종	동일 인종
강제이주나 정복에 의한 편입	자발적으로 편입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이주	유사한 문화권에서 이주
정치, 경제적 매력으로 이주	정치, 경제 매력과는 무관한 이주
계급과 직업에서 동질성	계급과 직업에서 다양성
평균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평균적으로 높은 교육수준
많은 차별을 경험	차별을 경험하지 않음
폐쇄적 계급사회에서 거주	개방적 계급사회에서 거주

Hirschman(1983)는 이주민과 소수민족은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화를 통해 세대가 거듭되면서 결국 민족성은 약화되어 주류사회에 동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주류사회와의 접촉이 증가하고 자연스러워지면서 결국 주류사회 시민들의 성향으로 바뀌거나 다음 세대에서는 주류사회의 시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Glazer & Moynihan(1970)는 뉴욕 다문화 지역의 민족집단은 뚜렷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고 있으며, 주류사회와의 동화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민족 다원주의를 단일사회로 가는 중간 단계로 보지 않고 미국 사회 구조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자 했다.(Fuchs, 1990; Liebersin & Waters, 1988) 이처럼 주류사회로 동

화에 관한 다양한 주장은 자발적 민족성(Farley, 1991), 상징적 민족성(Gans, 1991), 이미지화한 민족성(Yinger, 1991) 등 다양하게 이야기되었다.

(3) 문화의 동화와 혼종

문화의 동화란 특정한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이 다른 문화와 차이가 점차 흐려져 그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 고유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종족성을 유지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데, 문화의 동화는 종족성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Barth(2007)는 집단 간 경계를 특정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특징’ 자체보다 다른 집단과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낸 ‘집단 간 경계’에 주목해야 하며, 여러 문화 집단 가운데 종족 집단은 타자와의 경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만의 특이한 문화를 선택한다. 마치 한국 재외동포들이 김치를 먹는 문화를 보고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

문화혼종(acculturation)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 간 지속적이고 직접적 교류 결과로 나타나며, 교류가 지속되면서 문화가 혼합되거나 변하여 집단 고유의 문화가 변화하는 현상이다. 문화혼종에 대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의 규모에 따른 분류로 집단 전체에서 문화 혼종현상이 나타났는지 또는 일부 집단 내부에서 나타났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두 번째, 집단 간 교류가 우호적이었는지 또는 적대적이었는지에 따라 구분하며, 세 번째, 집단 간 규모가 유사한지,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네 번째, 교류하는 집단 간 문화적 복잡성 수준이 같은지, 아

닌지에 따른 구분이며, 마지막은, 집단간 교류가 식민지로 인해 나타나는 것인지 또는 이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이러한 5가지 방법에 따라 문화혼종을 구분한다.⁷⁾

문화의 동화와 혼종을 꺼리는 국가문화는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에 빠지기 쉽다. 자문화중심주의는 단지 자신의 문화에 우월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른 문화 사람에게 강요하는 태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문화에 대한 성찰과 비판 없이 모든 현상을 자기만의 문화로서 이해하고 당연시하는 태도와 본인들의 문화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무관심한 것도 포함된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어 자문화중심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Durkheim(1913)은 자신과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는 자문화중심주의 문화보다 더 진화된 문화라고 하였다. Benedict(1934)는 이처럼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문화상대주의는 모든 문화는 서로 상대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 가치들은 그 사회의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각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문화마다 윤리가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Summner는 이러한 윤리, 도덕은 인간 사회의 일반적 생활양식으로부터 오랫동안 만들어지고 형성되어 온 집단적 습관, 사회적 습성으로 특정 사회에서 사회적 정당성을 포함하는 고도로 세련된 풍습으로 발전할 때 관습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습은 사회적 전통에 기초

7) 문화 혼종 연구를 위한 견해서(1936)

하며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⁸⁾

1.3 국가문화 비교 이론

(1) 문화 비교이론

문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비교경영학에서는 ‘국가(nation-State)’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화의 분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첫째, 국가는 문화를 구별하는데 가장 쉽고 명확한 경계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조직적 현상에 대한 국가문화의 잠재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Bhagat & McQuaid, 1982)

문화에서 분류가 가능한 성별, 세대, 계층 문화는 국가 전체의 문화로 볼 수 없으며 사회 일부분의 문화로 간주한다. 성별, 세대, 계층의 문화는 민족집단이나 국가와 같이 사회 체계와 통합되어 형성되기보다는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인간 단위의 범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류들을 국가 문화로 보기보다는 국가문화 속의 작은 범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이처럼 국가문화 비교의 기저가 되는 국가별 문화가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한 태도나 판단보다 더욱 일반적이고 조직적인 것으로 내면적이고 복합적이며 추상적인 행동영역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치관은 흥미, 감상, 태도, 정의, 선호도, 도시와 건축의 환경 등이 다양한 집단의 생각들이 공통된 행동으로 나타나게끔 하는 궁극적인 것이다.

8) Shone, Steve J. "Cultural Relativism and the Savage: the Alleged Inconsistency of William Graham Sumner".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2004 63(3): 697 - 715

국가문화 비교에 관한 많은 연구는 우선 단일차원과 다차원 구성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차원은 Hall(1976)의 고맥락문화와 저맥락문화로 정의하는 것과 Fukuyama(1995)의 고신뢰성 문화와 저신뢰성 문화로 국가문화를 정의하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것이다. 각 문화에서 메시지가 소통되는 방법에 따라 분류되지만, 단일 차원에서 설명되지 않는 것도 많아 다른 많은 연구에서는 다차원 분류체계를 통해 국가별로 문화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있다.

Kluckhohn & Strodtbeck(1961)은 국가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한 최초의 연구자들이다. 이들은 조직체계에 대한 국가 가치의 지향성과 영향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가치 지향성을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의 공유되는 구성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들의 모형에서 가치 지향성은 인간 본성 지향성,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시간 지향성, 활동 지향성, 관계 지향성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국가 간 문화 특성과 가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Hofstede(1980)의 문화 차원 모형은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국가문화 비교 모형이다. 그는 구분이 되는 국가의 문화를 집합적 프로그래밍(collective programming)으로 정의하였다. 문화는 각 국가의 국민이 공유하는 경험의 결과로 생겨났고 교육, 행정 및 법체계, 가족 구조, 종교적 성향 패턴, 문학, 건축 및 과학이론 등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이것을 집합적 정신프로그램이라고도 불렀다. 그는 국가문화를 권력거리,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회피, 장기지향-단기지향성의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국가 간 문화 특성과 가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Trompenaars(1993)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시간, 환경 등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7가지의 문화 차원을 구분하여 국가의 문화를 비교한 모형이다. 그는 Turner(1997)과 함께 보편주의-특수주의, 분석적-종합적, 개인주의-공동주의, 환경에 대해 내향적-외향적, 시간에 대해 연속으로서의 시간-동기화로서의 시간, 성취한 신분-출생에서의 신분, 평등-위계 등으로 구분하고 국가 간 문화 특성과 가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Triandis(1994)에 따르면 문화는 인간이 만든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의 집합으로서 이는 과거에 생존 확률을 높이고 한 생태적 적소에 모인 사람들의 만족을 가져왔으며, 따라서 그들은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같은 시간과 장소에 살았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하며 만들어진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문화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구분하여 국가 간 문화 특성과 가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렇게 국가의 문화를 비교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러한 국가 문화를 비교하기 위해 분석하는 방법들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결국 분석하는 것은 구성원의 가치관(values)이다. 가치관은 일종의 오랫동안 지속된 신념으로 개인이 궁극적으로 수행할 목표나 수단을 선택하는 기초가 된다. 이러한 가치관은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하나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그 개념이나 본질을 규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치는 가치체계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일관된 행동 양식과 지속적인 믿음이라 정의된다(Rokeach, 1973) 그리고 사람의 행동하는 신념으로 정의되었다.(Allport, 1961) 이러한 국가 구성원들의 공통된 가치는 집단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로서, 어떠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할 순

간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집단의 공통된 사고이다.(Kluckhohn,1962) 이처럼 가치관은 어떠한 상황에 대한 태도나 가치판단이기 보다 더욱 일반적이고 조직적인 것으로 내면적이고 복합적이며 추상적인 행동영역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치관은 흥미, 감상, 태도, 가치 등을 내포하는 것으로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게 하는 궁극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 국가문화 비교 이론

연구자	분석기준	유형
Kluckhohn & Strodtbeck (1961)	환경에 대한 태도 시간에 대한 태도 인간의 본성 행동에 대한 태도 의사결정 태도 공간에 대한 태도	조화 vs 지배 단기지향 vs 장기지향 선 vs 악 행동 vs 존재 개인 vs 집단 공적 공간 vs 사적 공간
Hofstede (1980)	권력거리 개인주의-집단주의 불확실성회피 남성성-여성성 장기지향-단기지향성	수동 vs 능동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안정적 vs 모험적 남성적 vs 여성적 단기지향 vs 장기지향
Trompenaars (1993)	타인과의 관계 시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규칙의 적용 여부 개인 vs 집단 감정의 표현 정도 관계의 폭 시간 활용성
Triandis (1994)	개인주의 집단주의 수직지향 수평지향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앞서 언급한 4가지 대표적 이론에서는 국가 문화의 비교 방법으로 각각 제시한 문화 차원마다 국민의 공통된 가치 방향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비교하였다. 문화 가치는 국가의 문화(national culture)로

서 국민성(national character)과 국민의 전형적 성격(modal personality), 국가 구성원 사이에 빈번히 관찰되고 사회의 공통된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화 가치는 각 집단 또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의 성격이 이렇다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집단에 같은 성향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는 통계적 표현이다. 이처럼 문화 가치는 개인을 정형화하는 것이 아닌 국가마다 사회에 대한 가치 점수로 나타낼 수 있다.

(2) 비교문화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비교문화는 문화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분석 체계 및 연구방법론에서 다양한 주장이 혼재한다. 가장 활발한 경영 분야의 비교문화연구는 기업들의 국제화로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국가 문화 비교 대한 선행연구들은 유사한 국가들을 군집화하여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방법, 개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분류한 방법, 직무 관련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분류한 방법 등 3가지 접근방법으로 된 연구가 많다.

비교문화 연구는 인류학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정치학, 경제학, 종교학, 언어학, 미학, 교육학 등 광범위한 학문영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다. 인류학은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의 문화 또는 한 가지 문화 특성을 그에 상응하는 다른 것들과 비교 연구를 하며, 나아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비교 문화적 시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성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는 연구가 많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체제와 생태적 조건의 기능적 상호관련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비교문화연구를 활용하고 있고, 종교학에서는 다양한 종교를 대상으로 삼아 종교 자체에 대한 일반화를 도출하였다. 교육학에서 비교문화연구는 다문화 교육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문화사회가 급증하면서 다방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 건축과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국가 간 문화를 비교 분석하는 비교문화 연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 시공간적 경계가 없는 사회가 되어 각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이는 개인, 기업, 국가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Hoecklin(1996)은 모든 조직과 국가는 문화적 차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조직 내에서 성공적으로 흡수함으로써 그 조직과 국가는 지속해서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국제화 시대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4 Hofstede의 문화 차원 이론

(1) 문화 차원의 개념

네덜란드 심리학자 Hofstede는 기존의 문화 비교 모델과는 다르게 실증적 조사를 통해 국가별 문화 차원을 구분하였다. 그는 문화는 사람의 정신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 살면서 보고 배운 일정한 기준과 생각, 행동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생각,

감정, 행동을 정신프로그램(mental program)이나 정신소프트웨어(software of the mind)로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주변 환경과 경험으로 국가, 가정, 사회 등에 영향을 받아 국가의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그는 사람의 정신프로그램이 3가지 범주로 구성되어있고 다른 집단과 구별 가능한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3가지 범주는 첫 번째, 인간성은 보편적 특성으로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으며 유전되는 특성으로 분류된다. 두 번째, 문화는 어느 특정 집단을 설명하는 것이며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범주로 분류된다. 세 번째, 인성은 개인마다 다른 개별적 특성이며 일부분 인종과 민족에 따라 유전되기도 하면서 주위 환경에 따라 학습되기도 한다.



그림 3 Hofstede의 정신프로그램의 범주

이 중 학습으로만 만들어지는 문화는 상징, 영웅, 의식, 가치의 4가지 개념으로 함축되어 설명할 수 있다. 상징(symbols)이란 특정한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들만 사용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과 동작, 그림, 대상 등이 해당한다. 한 국가나 민족, 특수한 집단의 언어, 은어, 국기, 지위 등 이 범주에 속한다. 영웅(heroes)은 특정 문화에서 존경받거나 집단에 인정되어 행동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의식(rituals)은 특정 문화 안에서 사회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간주하는 집합적 활동을 의미하며 사회적, 종교적 의식, 말하는 방법 등 이 범주에 속한다. 이 3가지는 상징, 영웅, 의식은 직접 행동이나 생각으로 보이는 범주로서 관행(practices)으로 부른다. 마지막 가치의 개념은 어떤 특정 상태를 선호하게 하는 각 집단의 포괄적 경향을 지칭한다. 가치의 범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양면성을 근거하여 국가의 문화 특성을 분석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는 이런 국가의 문화 가치를 비교할 때 사용하였다.



그림 4 문화의 4가지 범주

그는 1968년과 1972년 2번에 걸쳐 72개국 38개 직업군, 20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IBM사의 116,0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문화 가치를 실증 조사하여 국가별 문화 성향을 나타내는 4가지 차원을 발견하였다. 권위와 관계가 포함된 사회적 불평등, 개인과 집단간 관계, 어떠한 성별로 태어나는 것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정서적 함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에 대처하는 방식, 위 4가지 문화 차원으로 국가별 특성을 확인하였다.(Hofstede, 1980)

이후 1991년 기존의 문화 가치는 서양적 사고로 만들어져 동양적

사고와 일부 차이가 있는 것에 착안하여 중국식 가치조사(CVS : Chinese Value Survey)를 시행하여 5번째 장기지향성 대 단기지향성 문화 차원을 발견하여 문화 비교시 분석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Hofstede의 문화 차원은 1991년, 2005년, 2010년에 업데이트되어 현재는 76개~107개 국가와 지역의 문화 차원별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고 현재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ofstede의 문화 차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마케팅 분야와 다국적기업들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분야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는 컨설팅 회사인 ‘Hofstede Insights’을 설립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국가문화 비교에 대한 유료 컨설팅하고 있으며 2, 3년 간격으로 자체 연구소를 통해 국가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표 3 Hofstede의 5가지 가치 주요 질문

문화 차원	가치측정 대표 질문
권력거리	당신은 가운데 얼마나 불평등이 있어야 하나요?
개인주의	당신은 가족으로부터 얼마만큼 의존적인가요?
남성성	당신이 생각하기에 남자는 어떻게 느끼고 행동해야 하나요?
불확실회피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나 생각에대해서 얼마나 불편한가요?
장기지향성	당신은 과거와 현재 또는 미래 어느 곳에 집중하나요?

그의 이론은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 문화간 차이를 규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검증되어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Foschi, 1980; 황성대, 2004; 백혜주, 2013; 여효가, 2015), 국가 간 문화 비교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Lynn, 1993; Roth, 1995) 그리고 다른 국가문화 비교이론과는 달리 가장 일반적 문화 변수로 활용하였다는 장점이 있고(Hoft, 1995; Mooij, 1998), 일부

학자는 사용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적합한 개념들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Baumgartner&Marcus, 2004; Badre, 2001; Rose, 2004) 특히, 국제마케팅 연구의 표준모델로 활용되고 있다.(Engel et al., 1995; Sivakumar & Nakata, 2001)

(2) 5가지 문화 차원

① 권력거리 : 평등 문화와 불평등 문화 (Power distance index)

권력거리는 한 국가의 제도나 조직의 힘없는 구성원들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포를 기대하고 수용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권력거리 지수(Power Distance Index:PDI)는 한 국가에서의 개인 간, 집단 간 의존(dependence) 관계를 말해 준다. 권력거리 지수가 작은 국가에서는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약하며, 서로 상호의존(interdependence)관계를 선호하지만, 권력거리 지수가 큰 국가에서는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 부하 직원은 이런 의존 관계(독재적이고 가부장적인)를 선호하거나 반대로 전적으로 거부한다. 이는 심리학에서 반의존(counter dependence)관계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권력거리 지수가 큰 국가에서는 의존과 반의존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한 사회 안의 불평등은 다른 사회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사회계층에 따라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접근이 쉽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 대체로 직급과 교육수준으로 사회계층 파악이 가능하다. 위 표를 보면 직급마다 교육수준에 따라 분류가 권력거리 지수가 고르게 분포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부서에서의 지위와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이 지수가 가장 낮은 지수로 낮아 직급에 의존하지 않는 수평적 사고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낮은 지위와 학력 수준이 낮은 직종은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가 작은 국가의 관청은 세속적, 합리적 특징을 보인다. 실용적인 것에 기반을 두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권력은 법률과 도덕적 기준에 통제를 받으며 불평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수가 작은 나라들은 대부분 부유한 중산층의 비율이 높으며 정치적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자주 일어난다. 정치적 성향은 양극단 보다는 중도 노선이 강하며 계층별 수입 분포의 불균형도 적다. 조세제도를 통하여 수입의 재분배 효과를 얻는다.

② 개인주의 문화 집단주의적 문화 (Individual index)

개인주의적(individualism) 사회는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로 소수의 국가가 이에 해당한다. 핵가족(nuclear family)으로 시작하여 개인 자신이 사회에서의 핵심적 존재로서 생각하며 성장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은 서로 다르다. 사회에서 개인 간 구속력은 느슨하며 자신과 직계 가족만을 우선하는 사회이다. 이에 반해 집단주의적(collectivism) 사회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로 세계의 다수의 국가가 이에 해당한다. 대가족(확대가족:extended family)에서 우리라는 집단을 배우고 자신을 집단의 일부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는 개인의 정체 형성의 주된 근원이 되어 사람이 낳 때부터 강력하고 단결이 잘된 내집단에 통합되어

있으며, 평생 무조건 집단에 충성하는 대가로 그 집단이 개인을 계속 보호해주는 사회이다.

Misho(2007)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여 사람의 문화 가치를 배타주의(exclusion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가 이야기하는 보편주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집단 소속과 상관없이 개개인의 성향을 보고 판단하려는 경향으로 정의한다. 배타주의는 집단 소속에 근거하여 일체감이 드는 특정 집단에 호의와 희생을 마련하며, 외부인을 배척하려는 경향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특성을 Hofstede(1980)는 개인주의, 집단주의 문화 가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사회적 환경과 화합을 이루는 것이 핵심적인 미덕이지만,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가족은 개인적인 것이며 사회에서 어떠한 핑계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해야 하며 침묵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긴다. 사교를 위해 되도록 집에서 모이는 것을 선호한다. 사회적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인적 양심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가족에 대한 의무가 재정적인 것만 아니라 가족 행사와 같은 의식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으로 충분하다. 사교를 위해서 레스토랑이나 바에 자주 간다. 사회적 규칙을 어기면 사람들은 집단적인 의무감에서 오는 수치를 개인에게 안겨 체면을 잃게 한다. 동시에 그 개인은 개인적으로 죄책감을 느낀다. 사회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그룹에는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거형태는 지수가 높은 국가의 사람들은

낮은 국가의 사람보다 단독주택에 사는 경향이 높았고 아파트에 사는 경향은 덜했다.

특이한 점은 권력거리 지수가 높은 국가는 대체로 개인주의 지수가 높게 나왔다. 또, 권력거리가 높으면 집단주의적 경향이 나타났으며 반면, 권력거리가 낮으면 개인주의적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확대가족 기반의 집단주의적 사회는 가부장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고 핵가족 기반의 개인주의적 사회는 개인의 사고를 중요시하고 독립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그런 것으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남성성 - 여성성 (Masculinity index)

남녀 간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 역할은 연관성이 없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male), 여성(female)이라는 단어를, 사회적 역할의 측면에서는 남성적(masculine), 여성적(feminine)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후자의 용어는 남성적 행동, 여성적 행동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것이 남성적 또는 여성적인 행동인지는 사회마다 다르나 대부분 사회에서는 사회적 성 역할(social sex roles)에 대해 공통적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남녀 역할(gender roles)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자기주장적이고 경쟁적이며 거친 것으로 간주하며, 여자는 대체로 가정과 아이, 사람들을 돌보는데 더 관심을 두는 것으로 간주한다. 남성은 어떠한 성취를 위해 강한 자기주장과 타인과의 경쟁을 강화하고, 여성의 돌봄의 특성은 양육과 인간관계, 주변 생활환경에 관한 관심을 보인다. 가정에서는 신체적 특징과

물리적 힘의 세기의 우수함이 역할을 분담한다. 이처럼 공통으로 남녀 역할의 특징으로 보이는 자기주장적 행동과 겸손한 행동 중 어느 쪽을 바람직하게 보는가를 남성성-여성성 문화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남성적 문화에서는 배우자감의 부지런함과 정조가 남성에게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도덕적 이중 잣대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적 문화에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양쪽 모두 균등하게 적용되었다. 남성적 국가에서는 책임감, 단호함, 활기, 야심이 남성에게만 간주하고 다정함, 상냥함은 여성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여성적 국가에서는 이러한 특성 모두 남자와 여자 구별 없이 적용되었다. 과거에는 남자의 신체적 조건과 힘이 남성적 사회가 많았다면, 현재는 산업사회, 서비스사회의 확장과 여권운동 등으로 여자가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졌고 이는 남성적 국가에서 여성적 국가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국가의 관습과 규범으로 남성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국가가 많다.

남성성-여성성 차원은 이주민의 문화를 다루는 방식과 연관이 된다. 한쪽은 동화(assimilation)로서 이주민들은 자신의 본래의 문화를 포기하고 그 나라의 문화에 흡수되는 방식이며, 다른 한쪽은 융화(integration) 새로운 국가의 법과 충돌할 때에만 이주민의 본래 종교와 문화를 바꾸게 하는 방식이다. 남성적이고 가난한 국가의 응답자일수록 동화를 원했으며, 여성적이고 부유한 국가일수록 융화에 호의적이었다. 이는 개인주의-집단주의와 남성성-여성성 모두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적 국가에서는 약자와의 결속, 후진국의 원조,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중요시하였고 남성적 국

가에서는 강한 자에 대한 보상, 군비 투자, 경제 성장이라는 것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남성적 국가에서는 국제적 분쟁을 투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며, 여성적 국가에서는 타협과 협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남성적 국가의 정부는 국가의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며 이를 위해 국민의 생활환경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여성적 국가의 정부는 이와 반대로 국민의 생활환경을 우선시하고 이후에 국가 성장을 고려하게 된다. 최근 UN 환경회의에서 미국의 탈퇴 선언은 미국이 어떠한 문화권 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정당들은 적대자에게 진흙을 던지는 것을 전혀 삼가지 않는데, 외국인들은 이에 정나미가 떨어진다고 한다.(Standaard, 1876)

④ 불확실성 회피 성향(uncertain avoidance index)

독일인들은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반면 영국은 유연성 있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이는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라고 불리는 네 번째 차원이다. 극단적인 불확실성은 참기 힘든 불안을 유발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이러한 불안을 완화할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과학, 기술, 법률, 종교 등의 영역이 여기에 속한다. 법률은 타인과의 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예방하고자 노력하며,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혼자 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수용하도록 돕는다. 불확실성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되는 면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도 획득되고 학습된다. 불확실성 회피란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은 긴장성 스트

레스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요구, 성문율, 불문율의 필요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불안이란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나온 용어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관해 막연하게 느끼거나 걱정하는 상태를 말한다. 불안 수준이 높을 문화일수록 더욱 표현적인 문화일 가능성이 크다.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낮은 문화일수록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정도가 더 낮다. 감정의 표출의 억제로 스트레스는 내면화되고 심장질환자가 지수가 높은 국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가 높은 국가의 출신들은 바쁘고 침착하지 못하며 감정적이고 공격적이며 의심이 많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지수가 낮은 국가의 출신들은 둔감하고 조용하며 까다롭지 않고 유유자적하며 절제되어 있고 게으르다는 인상을 준다.

불확실성 회피는 한 국가의 불행한 사람들 비율을 설명하기도 한다. 지수가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의 매우 행복한 사람들의 비율은 비슷했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지수가 높은 국가에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확실성회피 성향이 낮은 국가에서는 규칙이 상대적으로 덜 신성시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잘 지켜지고 있으며, 시민은 자신들이 적어도 지역 수준에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회피 경향이 큰 국가의 시민들은 자신들을 믿기보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많이 의존하였다. 이는 지수가 높은 국가의 시민은 정치에 관심이 적고,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법률이 많고 법을 주체로 하는 경향이 있고 지수가 낮은 국가의 시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원 단체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불확실성 회피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청결성을 중요시한다. 집에서 벽지를 바르고 페인트를 칠하고를 스스로 하는 경향이 있고, 전자통신 도구들 인터넷, 이메일, 이동전화를 느리게 도입했다. 투자에도 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공격적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어떤 물품, 세금 등의 청구서에 대한 지급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이는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도 참고가 된다고 한다.(De Mooji, 2004) 회피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공권력에 반기를 드는 경우가 덜하였으며, 법률과 규칙, 규범을 신봉하며 변경하려고 하는 성향이 적다.

⑤ 장기지향 문화와 단기지향 문화 (long-term orientation index)

장기지향, 단기지향의 가치는 Bond(1987)가 중국식 가치조사 (Chinese value Survey)를 진행하면서 23개국을 조사하다가 밝혀진 다섯 번째 문화가치 차원이다. 장기지향은 미래 보상에 대한 미덕의 수양을 의미하며, 끈기와 절약의 가치를 추구한다. 반면에 단기지향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미덕의 수양을 의미하며, 전통 존중, 체면유지, 사회적 의무 이행 가치를 추구한다.

장기지향 사회는 절약하고 자원을 아끼고 생활하며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인내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수치심 없이 사는 사회를 추구하고 전통보다는 현재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 얼마나 잘 순응하는가가 중요한 가치로서 인정된다. 결혼은 현실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계약으로 생각하며 친인척들과 함께 사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며 배

우자 간의 관심과 취향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기지향 사회는 소비를 지향하고 빠른 결과는 내려고 노력하며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의무에 관심 있으며, 체면과 전통을 존중하고, 개인적 안정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지향 차원은 경제 성장과 상관관계가 큰 차원으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미래 경제 성장도 예측도 가능했다. 장기지향 지수가 높은 경우 끈기, 절약, 인간관계 서열의 정립과 질서의 준수, 수치심을 높은 가치로 평가하였고, 지수가 낮은 경우 인사치레, 신세 진 것, 받은 선물 되갚기, 전통 존중, 체면유지, 진지하고 안정된 성격을 높은 가치로 평가하였다. 가치 중 끈기와 절약은 미래에 대해 장기지향적 가치를 내포하고, 개인적 안정과 존중은 현재 지향인 단기지향적 가치를 내포한다.

장기지향적 가치가 높은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격차가 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하며, 단기지향적 가치가 높은 국가는 능력에 따라 노력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받는 엘리트 사회를 지향한다. 인맥(network)은 개인적 연고를 의미하는데 장기지향 지수가 높은 국가에서는 사업과 경제적 이익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인맥인 미래에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특성은 지수가 높은 국가의 뇌물 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 BPI) 평균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지수가 높은 국가는 평상시 상대방을 상냥하게 대하며 이웃, 친지, 친구 등과 유대를 두텁게 하고 사회적 불평등,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Hastings & Hastings, 1981)

인간 가치와 만족에 있어 장기지향 지수가 높은 국가의 사람들은 평상시 남을 상냥하게 대하고, 가족과 찬지, 이웃, 친구들과의 유대를 중요시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해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를 받으며 살기 위해 노력한다. 지수가 낮은 국가의 사람들은 이러한 선한 동기의 행동에 대해 만족도가 낮았다.

장기지향은 자유주의가 지나쳐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격차를 더욱더 벌어지게 하고 있다. 사람들은 더욱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지위에서의 큰 격차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사회에 찬성한다. 단기지향은 균등의 원리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택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옳다고 한다. 이처럼 능력에 따라 차별이 있는 엘리트 사회에 찬성한다.

1.5. 국내 선행연구

표 4 국가문화 비교와 관련된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주요내용
문화 동화와 갈등	서지수 (2012)	대림동의 조선족타운의 형성과정과 문화동화와 갈등, 트랜스 로컬러티 분석
	선봉규 (2014)	재일코리아인과 중국조선족이 거주지역에서 문화변용의 전략이 어떻게 구현되고 얼마나 되었는지를 이중차원 척도를 통해 분석

	서지수 (2012)	대림동의 조선족타운의 형성과정과 문화동화와 갈등, 트랜스 로컬러티 분석
	선봉규 (2014)	재일코리안과 중국조선족이 거주지역에서 문화변용의 전략이 어떻게 구현되고 얼마나 되었는지를 이중차원 척도를 통해 분석
국가별 문화와 건축디자인	이소미와 1인 (2014)	베트남 현지 대중 레스토랑에 나타난 전통적 표현 특성에 관해 전통적 특성과 현대화 특성을 분석
	김지은 (2010)	중식 레스토랑의 공간 구성요소와 장식요소를 도출하여 전통성 표현을 분석
	S. Kenney (1994)	국가별 성당 건물의 사례연구를 통해 문화적 차이점을 분석
Hofstede 문화 차원이론	Peisheng, Liu (2016)	홉스테드의 문화 가치 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 제품디자인의 선호도 분석
	여효가 (2015)	홉스테드의 모델을 활용한 대만과 중국 문화의 비교 분석
	가이윤 (2015)	GLOBE의 문화차원을 활용한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 비교분석
	백혜주 (2013)	홉스테드 모형을 활용하여 국가별 선호 조형 요소의 관계를 분석

서지수(2010)는 대림동 조선족 마을의 형성과정과 주민과의 문화적 갈등과 동화, 트랜스 로컬러티로서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선봉규(2014)는 일본교포와 중국교포 지역의 문화변용을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이차원 척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선봉규(2014)는 일본에서 재일교포와 조선족 거주지역에 동화와 문화변화에 대해 분석 비교하였다.

이소미와1인(2014)는 베트남 현지 대중 레스토랑에 나타난 전통적 표현특성에 관해 전통적 특성과 현대화 특성을 분석하였고, 김지은(2010)은 중식 레스토랑의 공간 구성요소와 장식요소를 도출하여

전통성 표현을 분석하였다. Kenney(1994)는 국가별 문화별 차이가 성당 건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Hofstede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업 운영과 마케팅 분야에서는 여효가(2015)는 중국과 대만의 문화 차이가 직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하여 권력거리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유창(2010)은 레스토랑 고객의 국가별 서비스 만족도를 문화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포스터(2015)는 다국적기업에 내에 직원 관리를 Hofstede 문화 차원의 국가별 개인주의 지수로 분류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썬(2014)이 문화 차원의 차이가 제품디자인에 미치는 영향과 각 문화 차원마다 제품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를 하였다. 백혜주(2013)는 국가별 문화 차원이 어떻게 디자인 조형요소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최영준(2015)은 문화 차원인 개인주의의 특성으로 한국과 미국의 주택 유형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밝혔다. Rodriguez & Brown(2012)은 도시계획가의 국적에 따라 도시디자인 하는 방식이 다르며 Hofstede의 5가지 문화 차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소라외2인(2004)는 국가별 문화가치를 활용하여 디자인 선호도를 확인하여 KTX의 내부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이외 제품패키지, 핸드폰 형태, 백색가전 디자인 등 Hofstede의 문화 차원 이론과 관련된 선행 연구가 있었다.

2. 국제이주와 사회통합정책

2.1 국제이주이론

국제이주이론의 초창기에는 경제 논리에 기반을 두고 국제이주는 행위자의 경제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주자 스스로 가치를 극대화하여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주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여겼다. 압출흡입이론(push-pull theory)과 신이주경제학이론이(new economics of migration theory) 대표적이다. 이들은 경제적 이유만으로 이주가 이뤄진다고 하기에는 국제이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과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정치, 역사, 사회, 문화 요인에 관해서 설명되지 않았다.⁹⁾ 1970년대 나타난 구조이론은 국제이주가 경제, 사회,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하여 구조적 체계를 형성하면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만들어진 출신국과 이주국 사이의 연결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시장 분절론(segmented labour market theory)과 세계체계이론(world system theory)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구조이론은 국제이주를 자본주의 체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주민과 국가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가진다.

앞서 언급한 이론은 이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주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사회연결망이론(social network theory)과 누적원인론(cumulative causation theory)은 지속적인 이주 원리에 관해 설명은 하였으나, 다차원적으로 발생하는 국제이주를 일반화하지 못하였다. Portes(1995)는 국제이주를 다차원적 구조로써 거시적 구조와

9) S. Castles, M. J. Miller (2016), 이주의 시대, 서울, 일조각, p54-69

사회연결망 등 미시적 구조를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astles & Miller(1998)도 국제이주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Kritz & Zlotnik(1992)의 이주체계론(migration system theory)을 더욱 확장하여 이주의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5 주요 국제이주이론

자료: 김윤경(2014)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영향요인분석 재구성

이론	내용
압출-흡입 이론 (push-pull theory)	신고전경제학의 전제에 따라 개별적 행위자를 전제로, 개인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합리적 선택을 통해 이주가 발생
신이주경제학 (new economics of migration theory)	이주에 있어서 가족 단위의 결정을 중요한 변수로 적용, 송출국의 압출 요인을 강조
이주체계론 (migration system theory)	경제적 요인 이외 정치, 사회와 인구의 영향으로 국제이주가 발생
이중노동시장론 (dual labour market theory)	현대경제체제의 지속적인 저임금 노동을 요구함에 따라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주가 발생, 수용국의 흡입요인을 강조하는 이론
세계체계이론 (world system theory)	세계 경제의 역사적 구조와 식민지 관계에 기원 몇몇 세계도시는 개도국으로 투자되는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중심과 주변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주가 지속해서 이뤄짐
사회연계망론 (social network theory)	사회연계망이 이주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킴 이주의 흐름이 발생하면 이는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관성을 가져 이주가 지속해서 이뤄짐
누적원인론 (cumulative causation theory)	이주 때문에 변화된 사회적 맥락으로 이주가 이어지고 영속화됨
이주체계론 (migration system theory)	이주자들을 교환하는 국가 간의 이주 흐름의 체계를 주목, 송출, 유입구간 정치·경제·사회·인구학적 환경을 배경 요인으로 노동력을 송출하고 수용하는 관계를 맺어 하나의 이주 체계를 형성

2.2 이주민의 문화적응

외국 이주민은 새로운 문화 환경과 만남에 심리적, 사회적 과정이 수반된다. 생애 초기부터 습득하고 익숙해져 있는 관행과 가치, 익숙한 환경과는 전혀 다른 곳에 노출될 때 심리적 변화를 문화 충격(culture shock)이라 한다.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 새롭게 배우고 주변과 사회화해 나가야 하는 유아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이주민은 걱정, 무력감, 적대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신체적으로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주한 국가에서 외국인들은 [그림 5]와 같은 문화적응 곡선처럼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수직축은 감정의 변화를 수평축은 시간의 흐름을 의미한다. 1단계는 새로운 환경에 접했을 때 짧은 기간 황홀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이다. 새로움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시기이다. 2단계는 문화충격을 겪는 시기로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새로움이 낯선 환경으로 변화하는 시기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감정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시기이다. 3단계는 문화적응 단계로 일정 시간이 지나 낯선 문화와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단계로 거주국의 사람들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 알게 되고 수용하는 단계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이주국의 사회망으로 편입하게 되는 시기이다. 4단계는 감정의 변화가 안정된 상태로 긍정, 중립, 부정으로 3가지로 나타난다. 이주민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지인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면, 출신국 보다 부정적인 사회로 생각하게 된다(a). 출신국에서 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주자는 새로운 환경에 문화적응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b). 또 출신국에서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주자가 토착화가 이루어져 동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적응 곡선에서 시간이라는 축도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3개월 이내 단기방문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대부분 황홀감, 문화충격, 문화적응을 하였다고 나타나지만,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은 문화충격의 기간이 단기체류자보다 상당히 길게 나타난다. Hofstede(2010)는 장기체류자의 경우 1년 이상의 문화충격 기간을 가지며, 이후에 문화적응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출신국과 유사한 환경의 장소를 찾거나 이주민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출신국과 유사한 장소와 이주민 공동체 형성은 이주민들의 문화충격을 완화하고 문화적응 기간을 단축하여 국내사회에 동화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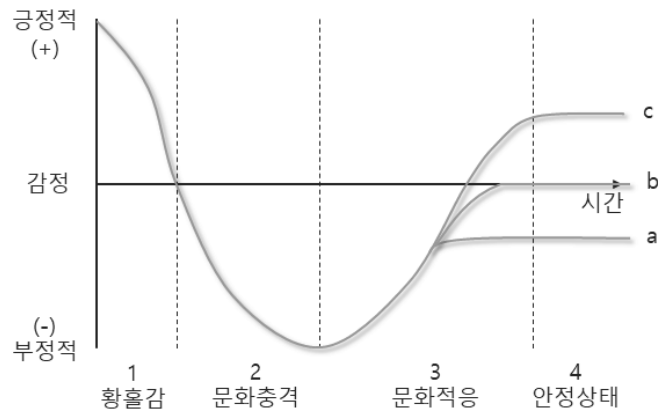


그림 5 문화적응곡선
(박세훈외, 2009, 재인용)

2.3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1) 사회통합정책 모델

① Castle&Miller의 이념형 모델

Castles&Miller(2009)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모델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6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 통합정책을 구분하였다. 이주민의 법적 지위, 사회정책, 소수민족에 대한 집단교육, 반인종주의 수준, 시민권 부여, 국가 정체성으로 6가지 이주민 통합정책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변수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모델을 구분하였다.

첫째, 배제모델(exclusionary model)이다. 단일한 민족집단으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정치공동체는 소수문화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배제모델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국가는 이주민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주민의 영주를 인정하지 않으며 가족의 입국을 불허하고 귀화 조건은 매우 엄격하다. 이 모델을 채택한 국가인 독일은 역사적으로 국경의 정복과 투쟁, 국가의 분열과 재통합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모델을 채택하게 되었다. 스위스나 벨기에 같은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단일한 민족집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배제모델을 채택하였다.

둘째, 동화주의 모델(assimilation model)은 공화주의 모델(republican model) 또는 제국주의 모델(imperial model)이라고도 불린다. 이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 프랑스, 영국은 공화주의적 전통 혹은 제국주의의 경험으로 기인한다. 동화주의 모델의 핵심은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문화적 동화를 요구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사회통합의 근거가 된다. 소수집단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마지막은 다문화주의 모델(multicultural model)이다. 다문화주의 모델은 거주지와 핵심적 정치이념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하여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념이다. 다문화주의 국가의 시민사회에서 권리는 곧 국민이 되는 권리로 이어진다. 다문화주의는 짧은 기간에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 집단을 통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이주민을 시민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다문화주의적 정책을 강화하는 역학을 한다. 이주민들은 투표자가 되고, 소수집단은 정치적 권리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이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대부분 강력한 배제주의적, 동화주의적 저항을 경험하였고 다문화주의는 지금까지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Castles&Miller의 이념적 모델은 이주민에 관해 다양한 부분을 반영한 모델이다. 그러나 국가를 하나의 유형에만 속하도록 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 예로 차별적 배제모형에 속한 국가 중 국가가 이주민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차별하며 단속하지만, 이주민들의 시선을 동화 전제로 그들을 인정하거나 상호존중하고 있을 수 있고 또는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이주민을 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평등하게 대하는 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일부 요소들의 변종 모델에 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또, 현재 실증적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하기보단 이론적, 이념적 자료를 바탕으로 통합정책을 분류한 모

델로서 한계를 가진다.

표 6 다문화 정책 모형
(박진경(2010) 논문을 재구성 및 보완)

구분	차별적 배제모형	동화주의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정책 방향	이주민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국인과 차별적 대우	시민권을 대가로 문화적 동화를 요구	거주지와 핵심적 정치이념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동일하게 대우
목표	이주자 제거 및 최소화	주류사회로 동화	다양성 인정과 공존으로 사회통합
국가의 역할	적극적 규제	제한적 지원	적극적 지원
이주민에 대한 시선	이방인, 위험한 존재	동화를 전제로 인정	상호존중과 인정
평등	차별	평등	적극적 조치
법규	단속, 추방	비차별의 제도화	제반 권리의 허용
정책	거의 불가능	가능한 편	가능
국적 부여	속인주의	속지주의	속지주의, 이중국적허용
정체성	이질화	동질화	이질화
사례 국가	독일, 스위스,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② Kymlicka&Banting의 실증형 모델

Kymlicka&Banting(2016)은 이념형 모델과는 달리 계량화된 국가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하여 이주민 통합정책을 분류하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8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 통합정책을 구분하였다. 다문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 법률 수준, 교육과정에서의 채택, 미디어에서 인종의 대표성, 복장 규정과 휴무입법의 면제, 이중국적 허용, 소수집단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2개 국어 교육과 모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이주민 공동체에 차별금지가 8가지 이주민

통합정책을 구분하는 평가 요소로 활용하였다. 국가별 정책에 따라 8가지의 변수에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주민에 대해 사회통합의 의지와 정책이 강한(strong), 온건한(modest), 약한(weak) 다문화주의 국가를 분류하였다.¹⁰⁾

표 7 이주민 통합정책 모델에 따른 국가 구분
(Kymlicka & Banting(2006), 이영범&남승연(2011) 논문을 재구성)

구분	국가
strong	호주, 캐나다
modest	벨기에, 네델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
weak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Kymlicka&Banting의 모델은 기존의 이념적이거나 이론적인 분류가 아닌 국가별 실제 현황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이고 귀납적으로 통합정책의 강도로 국가를 구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8가지 변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분류한 것으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유형별로 특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 법과 정책적인 측면만을 변수로 설정하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2) 이주민 주거지 분화에 따른 정책

박세훈(2010)에 의하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이주민 공동체의 동화는 민족별 주거지분화(ethnic segregation) 이론과 관련이 있

10) 이영범, 남승연(2011), 다문화주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2), p 143-174

다. 특정 이주민 공동체의 동화에 따른 사회통합에 관련된 이론이다.

이주민 공동체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통합된다는 견해는 시카고학파의 도시생태학으로부터 시작된 지리적 동화론 (spatial assimilation)이다. 이 이론은 주거지 분리, 즉 외국인 밀집지역은 주류사회에 대한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성된 것으로 본다. Massey(1985)에 따르면 이주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 주류사회로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면서 외국인 밀집지역이 사라진다. 그러나 일부 이주민 공동체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외국인 밀집지역이 계속 남아있다. 이 중 일부 외국인 밀집지역은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에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시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도시가 활성화된다면, 정책적으로 이 지역을 긍정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주민 공동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박세훈, 2010)

이러한 주장은 이주민 공동체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이주민 공동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체류국 사회로 편입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체할 것인지 또는 계속해서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남을 것인지에 관한 단계이다. 일부 이주민 공동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류사회로 동화되면서 통합되어 자연스럽게 해체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있다.

둘째, 존속하는 이주민 공동체는 사회통합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지 아니면 사회집단 간 분열을 유발하는지를 지자체가 판단하는 단계이다. 전자는 이주민 공동체를 더불어 살 공동체로 인정하며 후자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이주민 공동체에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립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부정적 요인들이 점점 굳어지면서 외국인 밀집지역이 게토화 되거나 슬럼화될 가능성이 커진다.(Borjas, 1994; Huges, 1990) Lay & Germain(2000)은 사회통합 수준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좋은 주거지 분화와 나쁜 주거지 분화로 분류하였는데, 나쁜 분화에 속하는 집단은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므로 정도에 따라 이주민 공동체와 밀집지역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 개입을 하거나 주류사회로 통합시키고 지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 공동체와 밀집지역의 존속이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국가는 이들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 또는 그대로 성장하게 지켜봐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면 선제적 정책 수립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게토화나 슬럼화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긍정적 도시이미지 구축과 내외국인간 화합을 유도하는 장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반면, 정부가 개입이 필요하지 않으면 민간단체나 이주민 공동체 자율적으로 성장하도록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재정적, 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내 이주민 관련 정책

우리나라는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앞서 언급한 Castles&Miller의 이념적 모델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다문화

모형,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로 지정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책은 다양성을 이해하기보다는 탑다운 방식으로 외국인, 외국문화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여러 국적의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 특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 국가별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국내사회와 사회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국내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과 관련된 정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 연수취업체, 2004년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를 위한 차별적 배제모형의 정책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2006년에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시작으로 다문화를 이해하면서 일부 동화주의적 정책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작하였다. 2007년부터 5년 단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 수립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관련 정책은 법무부에서 총괄하면서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적, 이민 등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에 기반을 두어 내국인에는 다문화와 관련하여 홍보하고, 이주민에게는 한국 문화와 언어학습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다문화가정의 복지를 담당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주민과 2세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외국인 노동허가와 사회적응을 도와주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주민의 정착을 도와주고 여성부에서는 이주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적응,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¹¹⁾

표 8 국내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강은택 외 8명(2012) 재수정]

부처	정책영역	주요 대상	정책초점
법무부	출입국·국적·이민	입국 외국인 전체	· 외국인정책 총괄 · 법질서 수호를 통한 국가안정 · 이주민 사회통합, 체류질서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 체육·관광	일반국민, 이주민	·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 증진 · 문화다양성에 기반 하여 사회 전반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제고 · 이주민 문화·언어적 적응 지원
보건복지부	가족복지, 사회복지	이주민, 다문화가족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
교육부	제도권 교육, 인적자원개발	이주민, 이주민 2세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 학습능력 향상 환경 조성
노동부	고용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 사회적 적응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이주민	· 이주민 정착 지원
여성부	가족복지, 여성인권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 · 이주여성의 사회적 적응 · 다문화가족 생활지원

(4)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평가

여러 국제기관에서 국가별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평가하여 이주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주민 공동체의 권리 증진과 지원을 위해 설립한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nt, IOM)에서는 성공적 사회통합을 위해 6가지 지표를 개발하고 국가별로 측정하였다. IOM에서 제시하는 6가지 지표는 언어

11) 강은택, 박세훈, 하성규, 전명진, 마강래, 권오규, 안아림, 박선영. (2012). 국내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도시정책적 함의. 도시정보, (368), p.3-23.

의 통합, 교육체계의 통합, 사회적 통합, 정치적 통합, 경제적 통합, 거주지의 통합이다. 이 지표를 기준으로 각 국가는 사회통합을 위해 우수한 정책 분야와 부족한 정책 분야를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기준이 되었다.

이외 영국 브뤼셀 영국협회 외국인정책센터(British Council Brussels, Foreign Policy Centre, and Migration Policy Group)에서 개발한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가 있다. MIPEX는 EU회원국을 중심으로 31개국을 대상으로 7개의 영역 4개의 하위지수를 개발하고 이민자 통합정책을 분석하였다. 7개 영역은 노동시장 접근성, 가족 재결합, 교육, 정치적 참여, 장기체류허가, 국적취득, 차별금지이다. 이 지표를 기준으로 국가별 사회통합정책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두 개의 대표적인 사회통합정책은 사회적 통합과 환경적 통합으로 구성되어있다. 사회적 통합은 IOM의 언어 통합, 교육체계의 통합, 사회적 통합, 정치적 통합, 경제적 통합이 MIPEX의 노동시장 접근성, 가족 재결합, 교육, 정치적 참여, 장기체류허가, 국적취득, 차별금지가 포함된다. 환경적 통합은 IOM의 경제적 통합, 사회적 통합, 거주 통합이 MIPEX의 가족 재결합, 장기체류허가, 차별금지가 포함된다.

2.4 국내 선행연구

표 9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이론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주요내용
국제이주	송주연 (2011)	한국으로 국제이주하는 외국인의 설문과 면담을 통해 이주과정에 대한 분석
	오현수 (2014)	사례분석을 통한 다양한 국제이주의 기제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제언
정책제언	박세훈외 3인(2009)	다문화사회의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
	강은택외 7인(2012)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현상 분석과 정책제언
	김은미 (2007)	외국인 밀집지역을 주거복합형 마을과 문화마을로 분류하고 지역별 특징을 분석 정책제언
	김홍매 (2011)	한국과 일본 정부의 국제 노동력 유입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양국에서 이주정책의 변화를 추동하는 다양한 변인과 특성을 분석 및 정책제언
	강은택외 7인(2012)	증가하는 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별, 체류자격별로 외국인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 필요성 주장
사회통합 이론	정해식외 5명(2016)	국내 상황에 적합한 체계적인 사회통합지표 개발
	김지윤 (2012)	다문화사회를 통합하는 정책의 유형별 성과 비교를 통해 각 유형의 강점과 약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분석
	김중관 (2011)	사회통합 지표를 통해서 다문화 선형국인 프랑스와 캐나다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면서 국내 이주민 정책 대안 도출
	강신욱 (2010)	OECD의 사회통합지표를 살펴보고 국내 사회통합을 문제점 지적

송주연(2011)은 이주민들의 설문과 면담을 통해 국제이주 과정에 대해 분석을 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오현수(2014)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국제이주이론에 패러다임 변화를 주장하였다.

국토연구원에 발간한 박세훈외(2009)의 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 정책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유형을 정의하고 증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도시정책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강은택외(2012)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인구 현황과 분포를 분석하여 정책적 제안을 하였고, 김홍매(2011)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국제 노동력 유입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양국에서 이주정책의 변화를 추동하는 다양한 변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였다.

정해식외 5명(2016)은 국내 상황에 적합한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지표를 개발하였고, 김지윤(2012)은 선진국의 사회통합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정책별 특징을 설명하였다. 김중관(2011)은 다문화국가인 프랑스와 캐나다의 사회통합정책을 비교·분석하면서 국내 이주민 정책에 관하여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강신욱(2010)은 OECD의 사회통합지표를 바탕으로 국내 사회통합정책의 부족함을 비판하였다.

3.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 및 유형

3.1 외국인 밀집지역 개념

외국인 밀집지역은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첫 번째, 주로 지리학자와 인류학자들에 의해 통용되고 있는 공간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정의하고 있다. (Relpf, 1995, Tuna, 1977; 박세훈외 2009, 재인용) 공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소성은 체험을 통해 특정 장소에서 느껴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다른 장소와는 차별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두 번째, 외국인 밀집지역을 다문화의 공간으로서 문화적 교류와 혼합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다양한 인종들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화들이 혼합된 다문화 공간이라는 장소가 생겨났다.(정지희, 2015) 이곳에서 문화의 결합은 국내 문화와 새로운 이주민 문화가 혼합된 공간으로, 외국인의 이주 전 공간도 아니고 그들에 의해 변화된 공간도 아닌, 두 문화 간 경계 공간 또는 제2의 공간이라는 메타포(metaphor)를 만들어냈다(최병두, 2018).

세 번째, 외국인 밀집지역을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을 근거로 하여 정의한다. 초국가주의를 근거로 한 외국인 밀집지역은 국가 간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측면의 경계를 뛰어넘어 소수민족이 이주국의 어느 특정 국가에 터 잡아 민족의 네트워크의 거점 혹은 결절점으로 상징되는 곳이다. 이런 동일 문화와 민족적 네트워크는 이주민에게 국가 간 이주를 쉽게 하고 결절점 역할을 하여 강인한 흡입력으로 전 지구적 소수민족집단을 외국인 밀집지역에 응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조현미, 2006)

네 번째,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태적, 행정상 정의는 일정 지역의 외국인 인구수와 정책적 관리의 기준으로 정의된다. 첫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장 제2조에서는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인 재한외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경찰청에서는 2012년 관할 지역 내 등록외국인이 3,500명 이상이거나 또는 외국인 비율이 2%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2년에 외국인 주민이 주민등록인구 대비 10% 이상 또는 300명 이상인 지역을 정의하여 이를 근거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이주민의 필요에 의한 결합으로 새로운 로컬리티 형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같은 인종, 민족, 문화 등 외국에 거주하는 같은 이주민 공동체가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는 주류집단, 이질적인 체류국 주민과는 분리, 고립되어 형성된 지역으로 그들에게 익숙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내 사회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시카고학파는 이러한 지역을 특성에 따라 민족 클러스터(ethnic cluster), 민족 커뮤니티(ethnic community), 민족 엔클레이브(ethnic enclave), 민족 근린지역(ethnic neighborhood), 게토(ghetto) 등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정의하였다.(Alba et al.,1997)

3.2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과 발전

앞서 알아본 다양한 국제이주이론에서 공통으로 언급되는 특징이 있는데 초기 이주민이 대부분 젊은 노동자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고소득을 위해 출신국보다 발달한 국가로 이주하여 취업하고 경제적 소득을 발생시킨다. 일부 이주국에 남은 이주민은 현지에서 가정을 꾸리거나 출신국의 가족을 불러들여 이주국에서 집단을 형성하고 점차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발전한다. 박세훈외(2009)는 이러한 이주민 공동체 형성과 진화는 국제이주의 보편적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을 Castle & Miller(2003)는 4가지 단계로 정리하였다. 첫째, 젊은 임시노동자들이 유입되는 단계이다. 둘째,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서 출신국별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셋째, 이민공동체 중심의 조직, 상점, 관련 직업이 등장하고 이주국과 관계가 밀접해지고 넷째, 영구 정착지로 발전하며 이주국의 정책과 여건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정치적 차별받으며 소수민족으로 남게 된다.



그림 6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과정
(박세훈, 2010, 재인용)

현재 한국은 영구정착지 형성과 소수민족의 정치화가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다. 현재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민족과 국가 간 네트워크 형성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계중국인 공동체는 경제 인프라를 형성하고 정착지를 마련하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¹²⁾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면서 규모에 따라 도시사회도 변화가 일

12) 박세훈외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연구1: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p95-96

어났다. 1단계는 밀집지역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 외국인 인구 2%이내 규모이며 단신 이주 중심의 외국인이 증가한다. 내국인은 이들에 대해 경계하는 경향이 생기며 외국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도심지 주변으로 고립되어간다.

2단계는 가족과 친족 공동체 중심의 밀집지역이 형성되는 시기로, 출신국별 이주민 공동체 분화가 일어나고 민족 경제 인프라가 형성된다. 외국인 규모는 5%내외이며 영주권을 가진 이주민이 증가하고 민족별 소득 격차가 심화된다. 이 시기에는 이주민에 대해 사회적 차별이 고조되고 갈등이 발생한다.

3단계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이주민 2, 3세대가 성장하는 시기이며 일부 발전된 지역의 이민자 공동체의 정치화가 시작된다. 외국인 점유율이 10% 내외이며¹³⁾ 다양성이 사회의 핵심 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일부 이주민은 여전히 단순노동자로 도시하위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이주민들은 외국인의 정치적 권리와 문화적 권리를 요구하며 정치화된다.

표 10 외국인 밀집지역과 도시사회 변화과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도시사회	·외국인 2% 점유 ·단기 이주 중심 ·사회적 소외와 주변화	·외국인 5% 점유 ·영주권 가진 이주민 증가 ·사회적 차별, 소외 갈등 심화	·외국인 10% 점유 ·다양성 존중이 주요 이슈화 ·일부 외국인 도시 하위계층 형성 ·외국인 집단 정치화
밀집지역	·밀집지역 형성 시작 ·밀집지역 공간적 고립	·가족, 친족 공동체 중심의 밀집지역 형성	·이주민 2-3세대 성장 ·부정적 사회 이슈

1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 따르면 영국내 체류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공동체로 분리 ·이주민 경제 인프라 형성 ·주민과 갈등 발생	발생 ·외국인 집단 정치화
--	--	---	-------------------

현재 한국은 2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일부 서울과 일부 수도권 도시는 이미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이슬람 문화권, 몽골, 필리핀 등 이주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들과 관련한 경제 인프라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으며 빈곤, 실업, 범죄 등 부정적 사회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만호(2007)는 이러한 사회 이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주류사회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점차 이주민은 고립되고 사회통합이 어려워지고 굳어질 수 있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기 시작은 1876년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 이후 일본과 중국(당시 청나라)에 의한 집단거주지역이다. 개항기에서 해방하기까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인과 일본인이 대부분 이었다. 일본인은 강화도조약으로 인한 개항 이후, 외교관과 공관을 시작으로 개항장, 개시장, 개방지를 중심으로 일본 상인들을 중심으로 일본인 집단거주지가 형성되었다. 중국인은 1882년 임오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청국의 군대와 함께 넘어온 상인들이 한국 화교가 거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1981)

해방 후 일본인은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갔고, 1960년대 정부의 화교 경제에 규제강화로 중국인들 인구도 많이 감소하였다. 일본인과

중국인 공동체가 위축되었지만, 해방과 함께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시작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32만 5천 명까지 늘었다가 60년대에는 5~6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동두천, 파주, 평택, 의정부에 주둔하였고 주변에 미군과 미군 가정을 위한 상가, 유흥시설, 기지촌 등이 들어섰다.

1960년대 서울 한남동, 이태원동 일대 외국공관이 들어서고 군인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외국인 집단거주지가 이 일대 형성되었다. 이후 여러 국가의 주재원들과 가족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외국인 학교, 종교시설, 현지 음식점, 식료품점 등 외국인 관련 시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동부이촌동에 외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곳에 일본인 마을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1985년에 서울 프랑스학교가 반포4동으로 이전하면서 프랑스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서초동 서래마을이 프랑스 마을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한남동에 외국공관들이 늘어나고 서울독일학교가 생기면서 독일인 체류자가 늘어나고 집단거주지가 형성되었다.(박세훈, 2010)

1980년대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1988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노동자 임금도 급상승하였다. 이는 국내 저임금 노동자의 감소로 이어졌고 1990년대 초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정책의 시작으로 단순 기능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급증하였다. 이 시기에 산업단지 인근으로 외국인 거주지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인근 지역으로 단순 기능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들었다. 중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여러 국가의 외국인들이 이 일대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이주민 음식점, 식료품점, 상가 등 생겨나 이국적 풍경이

형성되었다.

구로공단 주변 구로구 가리봉동에는 단순 기능 노동자 유형의 한국계중국인이 집단 거주를 하였으나 지역의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대림동, 신길동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이외 동대문구 광희동 주변으로 러시아인, 몽골인, 중앙아시아인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다. 종로구 혜화동 성당 필리핀인들을 위한 미사가 열리면서 주말에 필리핀 장터가 생겨났다. 2000년 이후에는 다양한 체류 목적의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 그들의 거주지와 그들을 위한 서비스 지역이 생겨나고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이 국내 도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을 때 문화적 자원 새로운 긍정적 이미지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 밀집지역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림동, 가리봉동, 신림동 등 한국계중국인 거주지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그들의 문화 가치를 알아보고 그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3.3 기존의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

(1) 도시 공간적 의미에 따른 유형

김윤경(2014)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도시 공간적 의미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⁴⁾ 첫째, 외국인 밀집지역을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14) 김윤경(2014),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영향요인,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4

장소로만 정의하지 않고 사회-공간복합체로서 사회적 관계를 내재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공간으로 보았다. 둘째, 도시하위계층의 분리된 공간으로 보는데 초기 이주자들의 경제적 현실과 사회, 문화적 차별이 공간적 분리까지 나타나는 공간으로 보았다. 셋째, 이주자의 정체성이 표출되는 공간으로 애착의 장소이며 외부와는 차별적 장소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밀집지역을 상품화되는 공간으로 이국적 특성을 활용하여 장소 마케팅을 하는 공간으로 보았다.

표 11 외국인 밀집지역 의미

의미	내용
사회-공간복합체	외국인 밀집지역은 사회적 관계와 공간적 관계의 상호작용으로 응축되며 나타나는 변화의 공간적 산물
도시하위계층의 집적지	초기 이주민의 경제적 현실과 사회·문화적 차별로 사회적 양극화가 진행되어 도시하위계층으로 전락하고 주류사회와 공간적으로 분리되며 사회 갈등을 야기
정체성의 장소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나타나는 출신국과 관련된 정체성이 표현되는 장소로서 출신국의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달리 나타남
상품화되는 공간	외국인 밀집지역을 장소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여 공간을 상품화하며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활력을 북돋게함

(2) 거주 목적과 입지에 따른 유형

박세훈(2009)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거주자 유형과 입지 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90년대부터 급증하였고 현재 가장 많은 체류 외국인의 유형인 단순 기능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공단 배후 노동자거주지이다. 이 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에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이 많다고 대표적인 도시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남양주 마곡, 수원시, 시흥시, 평택시, 대구 달서구, 창원시, 김해시 등이 이러한 도시에 공단 배후 노

동자 거주유형의 외국인 밀집지역이 있다. 이 유형은 정부가 정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더는 증가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 도심지 내 건설업과 일용직에 종사하는 한국계 중국인이 거주하는 대도시 저렴주택지 유형이다.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한국계 중국인이 대도시 중심부에 거주하며 건설업, 요식업, 간병인 등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집값이 저렴하지만, 교통이 편리한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동, 신길동 등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지역에 체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한국계 중국인을 위한 상업시설과 서비스시설이 형성되어 있다.

세 번째, 외국인 관련 시설의 주변 지역은 예전의 개항장이나 조계지였던 곳, 미군 주둔지, 종교시설 인근에 외국인들이 모여들면서 생겨난 유형이다. 1900년도 초기, 청나라 상인의 조계지였던 인천지역과 미군 주둔으로 발달한 이태원 지역에 형성되었다. 또한, 이슬람사원과 성당 등 종교시설로 이태원 지역과 혜화동 지역에 이슬람계 외국인들과 가톨릭계 필리핀 사람이 모여들어 이 지역에 관련 상업시설과 서비스시설이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 고급주거지로, 대사관과 외국인학교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유형이다. 서초동의 서래마을, 동부이촌동의 일본인 마을, 한남동의 독일인 마을, 성북동 대사관로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서울의 주거지역에 위치하며 안정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특정 외국인만을 위한 상업시설과 서비스시설이 발달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색은 가지고 있으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위주로 많이 생겨났다. ¹⁵⁾

15) 박세훈외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연구1: 외국인 밀집지역의

표 12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과 사례

유형	특징	사례
공단배후 노동자거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 지역 -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국적 	안산시 원곡동, 남양주 마곡
대도시 저렴주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 일용직, 건설업 종사 - 중국, 몽골, 베트남 등 다국적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외국관련시설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계지, 미군, 사원의 계기로 형성됨 - 거주지보다는 상업지역으로 발달 - 중국, 이슬람문화권, 일본 등 	인천시 차이나타운, 부산시 러시아타운, 서울시 이태원 이슬람타운
전문인력의 고급주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학교, 대사관 중심으로 형성 - 한국 주재원 중심으로 거주 - 선진국 중심으로 형성 	서울시 서래마을, 동부이촌동 일본인마을, 서울시 한남동 독일타운

박세훈의 연구는 당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00만 명 미만으로 현재의 약 40% 정도였고 서울시 기준 한국계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이 97% 정도로 한정된 국가의 체류 외국인이 대다수였다. 이에 최근에 관련 연구들은 기초자료 활용에 한계로 나타난다.

3.4 국내선행연구

외국인 밀집지역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정책, 동화, 지역의 형성특징 및 만족도, 환경요소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p95-96

표 13 외국인 밀집지역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주요내용
유형분류	박세훈 (2010)	체류자격과 거주지 특성을 기준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4가지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공간, 사회, 정책을 분석
외국인 거주지역	정윤영외3인 (2014)	지방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미시적 공간단위에서의 거주 외국인분포 특성 및 밀집지역을 탐색 영향요인 분석
	정지은 외 (2011)	국적별 체류 외국인의 주거입지 패턴을 분석하고 거주지 선택 영향 요인 분석
	이진영 (2011)	실증분석을 통한 수도권에서 외국인 거주지 분포특성 분석
	김숙진외 1인(2017)	중국내 조선족들의 디아스포라적 거주지 이동요인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지역적 분포패턴을 분석
	최은진외 1인(2011)	출신국적에 따른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거주지 분리정도를 행정구를 기준으로 분석
	한기수 (2011)	서울시 6곳의 외국인 밀집지역 사례를 분석을 통해 외국인 선호 주거특성요인을 도출 및 발전 방향 제시
	홍성표 (2013)	도시맥락을 위한 건축 입면의 인지요소를 전문가 설문을 통해 도출하고 AHP 기법을 통해 순위 결정
	김경수 (2011)	사례조사를 통하여 특화거리의 물리적 환경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 도출
도시건축 변화	우신구외1인 (2014)	종로길 가로경관의 변화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
	장영진 (2006)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상업 전략과 상가의 변화양상 분석
	박정환 (2017)	가로경관의 요소를 도출하여 신촌 모델촌 가로경관 이미지 분석
	하중성 (2016)	2010년 이후 삼청동 상업화 과정에 따른 입면 변화 연구
거주지 만족도 이미지	김흥수외 1인(2013)	장소인식 요소를 활용하여 설문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 장소의 만족도를 분석
	최창규외 1인(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장소 이미지를 분석

박세훈(2010) 체류자격과 거주지 특성을 기준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4가지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공간, 사회,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윤영외3인(2014)은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미시적 공간 단위에서 체류 외국인의 분포특성과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정지은외1인은 국적별 체류 외국인의 주거입지 패턴을 분석하고 거주지 선택 영향요인 분석하였고, 이진영(2011)은 사례조사를 통해 수도권 외국인의 거주지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김숙진외1인(2017)은 중국 내 조선족의 거주지 이동에 따라 사회적 변화를 분석하고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최은진외1인(2011)은 서울시에 출신국에 따른 이주자 거주지 분리 정도를 분석하였다. 한기수(2011)는 서울의 대표 외국인 밀집지역 6곳을 사례 분석하여 외국인들의 주거 선호특성요인을 도출하였다.

우신구 외 1인(2014)은 종로길 가로경관의 변화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고 장영진(2006)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상업가로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박정환(2017)은 신촌모텔촌 가로경관의 이미지를 분석하였고, 하종성은(2016)은 삼청동의 상업화 과정을 건축 입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한기수는 서울에서 6개 외국인 밀집지역의 사례조사를 통해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거특성을 도출하였다. 김홍수외1인(2013)은 장소 인식 요소를 활용하여 설문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 장소의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최창규외1인(2012)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장소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제 3 장 이주민 공동체 변수 설정과 측정

1. 연구의 설계

1.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국가별 이주민 특성과 국내 체류 현황을 조사하여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이 반영된 외국인 밀집지역을 유형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외국인 공동체와 밀집지역을 이론과 철학으로 분류하거나 일부 한정된 요소로 분류하여 실제 이주민 공동체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나타난 일부 특성만으로 만들어 외국인 밀집지역 마다의 특성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이 반영된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화와 유형별 도시건축 환경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음과 같이 연구를 설계하였다.

먼저,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양한 국적과 체류자격의 이주민이 거주하는 서울시로 한정하고 국적별 체류인상위 14개 국가를 연구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이후 14개 국가를 대

상으로 이주민 공동체 특성을 조사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후 유형별 도시·건축 환경을 조사하여 두 특성간 연관성을 고찰하고 확인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 공동체 변수 및 체류 현황 변수 선정과 측정

둘째, 변수의 표준화와 일부 변수 임의방식의 동일 가중치 적용

셋째, 계층적 군집분석(ward's method)을 통한 군집수 설정

넷째, 비계층적 군집분석(K-means)을 통한 군집 특성 분석

다섯째, 분산분석(ANOVA)을 통한 유효 변수 검증

여섯째, 유형별 도시건축 환경 실증조사

일곱째, 이주민 특성과 건축·도시건축 환경 특성 연관성 고찰

1.2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는 국내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중 다양한 국적과 체류 자격의 이주민이 거주하는 서울시를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국가는 서울시 체류 외국인 상위 14개 국가로 중국, 미국, 대만, 베트남, 일본, 몽골, 필리핀, 프랑스, 우즈베키스탄, 인도, 캐나다, 영국, 러시아, 태국으로 한정하였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행정동별 체류 인구와 관련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마지막 공개 자료인 2016년 2분기 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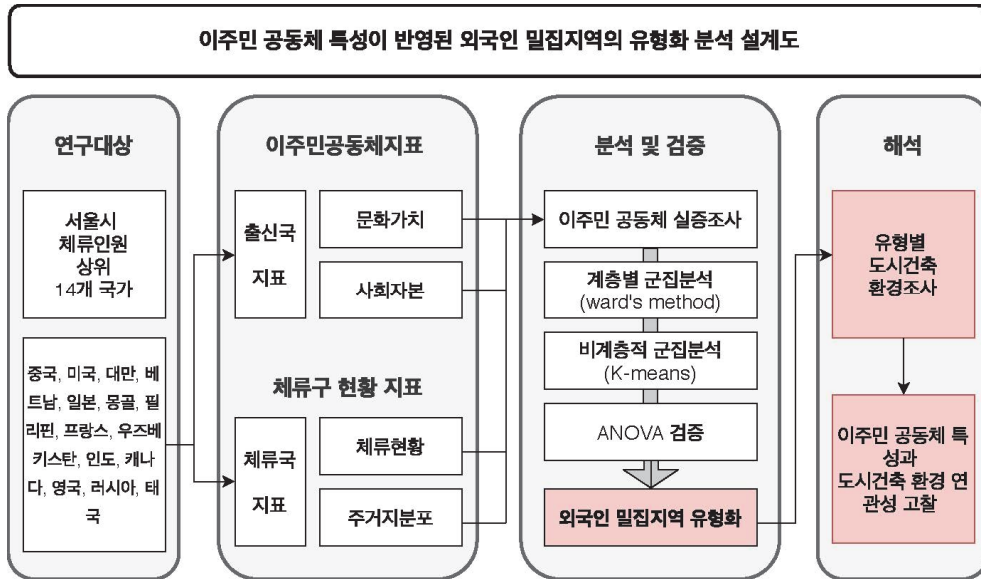


그림 7 연구 설계도

2. 변수의 선정

2.1 이주민 공동체 변수 선정 배경

기존 김윤경(2014)와 박세훈(2009)의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은 첫째, 이념과 철학적 요소에 따른 유형 분류로 국가나 지역에 대한 유형화라기보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실제적 유형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두 번째, 외국인 밀집지역의 입지 유형과 이주자들의 체류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단순히 그 시점의 지역의 특성만으로 유형화를 하여 이주민 공동체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상황이 변화되면 유형화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국가의 이주민 공동체의 출신국 특성과 체류

국에서 나타나는 이주민 공동체 특성을 실증조사하기 위해 변수를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2.2 출신국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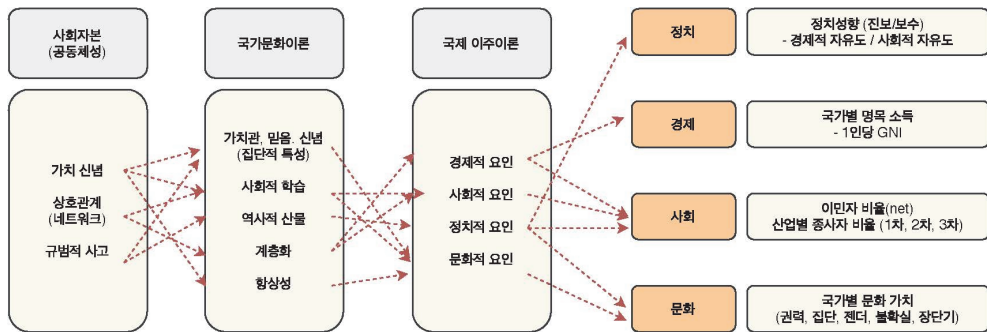


그림 8 출신국 특성 변수 선정

(1) 사회자본 변수

2장에서 공동체는 문화적 신념, 네트워크, 호혜성의 3가지 특성을 가지며 이를 사회자본으로 연결하여 보았다. (Putnam, 2000 ; 김수영외2인, 2014) Bourdieu(1985)는 공동체를 경제, 문화, 사회자본으로 공동체를 계층화하고 다른 집단과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집단의 특성을 확인하고 다른 공동체와 구별 가능한 요소를 사회자본, 공동체성 요소로 명하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규범, 문화 특성, 가치관의 특성을 내포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이주에 영향을 미친 출신국의 특성을 사회자본 요소로 명하고 국가별 정치·경제·사회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정치적 지표로 국가의 진보, 보수의 성향 정도를 활용하였다. 사회민주주의 이론에서 사회정책은 노동자의 조직화 정도와 정당의 성향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았다.(Korpi, 1983; Esping-Andersen, 1990; 홍경준, 1999; 홍승아, 2005; 이영범, 남승연, 2011) 진보성향의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많이 도입하여 중저소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경향이 높다.(홍승아, 2005) 이러한 사실로 진보, 보수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변수를 국가별 경제자유도와 사회자유도로 선정하였다. 보수성향의 국가는 높은 경제자유도를 보이지만 사회자유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진보성향의 국가는 높은 사회자유도를 보이지만 사회자유도보다 낮은 경제자유도를 보인다.(Wilson, 2019) 이 두지표를 통해 국가의 정치성향을 확인하였다.

경제지표로 1인당 GNI를 활용하였다. 국제이주이론에서 다양한 이유로 국제이주가 발생하지만 가장 많은 원인은 경제적 원인의 이주이다. 대표적인 국가 경제지표인 GDP(국내총생산)는 국가의 경제 규모 파악에 유용하지만, 국가별 국민의 평균 생활 수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에 1인당 국민소득(GNI)은 국가별 개인 명목소득으로 개인의 경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로 이주민의 경제특성을 파악하는 변수로 활용하였다. 16)

사회적 지표는 이민자 비율과 산업별 농업(1차산업), 제조업(2차산업), 서비스업(3차산업) 종사자 비율을 활용하였다. 이민자 비율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며 출신국의

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 정책흐름 : 1인당 지표의 의미와 영향 분석. 재정포럼, 120(0), 110-115.

민족적, 인종적 이질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홍경준, 1999)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비율은 국가의 경제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국제이주를 예측할 수 있어 이주민 공동체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영범&남승연(2011)에 따르면 1차산업은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으로 종사자 비율이 높으면 국제이주에서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노동자가 많을 확률이 높으며, 2차산업은 제조에 대한 기술력이 있다는 의미와 그 만큼 일자리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차산업은 서비스산업으로 전문성을 가진 노동자가 그만큼 존재한다는 의미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예상할 수 있다.

[사회자본 변수]

- 정치부문 : 경제자유도, 사회자유도
- 경제부문 : 1인당 GNI
- 사회부문 : 이민자 비율,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비율

(2) 문화가치 변수

국가의 문화는 가치관, 믿음,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특성으로 역사적 산물로서 누적해온 국가의 문화 가치관과 규범은 학습되어 전해지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Ollier, 1995) 국가의 문화는 사회 구성원으로 습득된 지식, 믿음, 예술, 교육, 권리, 다양한 능력과 관습들의 복합적인 총체로 국가 정체성과 국민성으로도 불리며, 국

가간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국가문화는 규범처럼 강요되는 것이 아니며, 조작되지도 않는다. 국가의 문화는 매우 복잡하고 무의식 속에서 행해지는 국민들의 가치판단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국가 문화가치는 국민성(national character)과 국민의 전형적 성격(modal personality), 국가 구성원 사이에 빈번히 관찰되고 사회의 공통된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화의 가치를 각 집단 또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의 성격이 이렇다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 같은 성향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는 통계적 표현이다. 이처럼 문화의 가치는 개인을 정형화하는 것이 아닌 국가 사회를 비교하기 위한 점수로 봐야 한다.(Hofstede, 2010)

권력거리 문화 차원은 사회에 계층에 대한 불평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력의 집중을 일반화한다. 지수가 높은 경우 육체 노동은 천하게 생각하는 사회로 보며 가난한 중산층 국가가 많이 해당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모든 계층에 대해 권리와 기회가 평등하고 사회적 배려가 있는 출신국보다 부유한 국가로의 국제이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차원은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 사회인지를 구분하는 변수이다.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집단내의 유대감과 충성 등으로 표현이 되어 같은 출신국의 이주자들끼리 집단거주지를 만들거나 이주민 경제를 발전시켜 익숙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성성-여성성의 문화 차원은 이주민 문화를 다루는 방식과 연관이 있다. 부유한 국가는 이주민들이 자민족 문화와 공존을 이해하는 반면, 가난한 국가는 이주민들에게 자민족 문화에 동화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이 문화의 가치는 이주민이 출신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그들이 외국인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내는지 예측할 수 있다.

불확실성회피 문화 차원은 불확실한 미래 대한 불안감에 대한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에 따라 종교, 법률, 과학 등으로 그 정도가 나타난다.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 호기심을 자아내는 존재로 인식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공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국가도 있지만 다른 것은 위험하다고 보는 국가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외국인 이주자가 되었을 때 외부와 단절하고 그들만의 폐쇄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지향 - 단기지향 문화 차원은 동양적 사상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가족과 친지 등 동일 집단의 유대를 중요시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 노력과 희생을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잘못을 잡으려고 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주민이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투자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Hofstede의 5가지 문화 차원을 출신국의 문화적 특성을 확인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을 분류하는 변수로 활용한다.

[문화가치 변수]

- 권력거리 (PDI)
- 개인주의-집단주의 (IDV)
- 남성성-여성성 (MAS)
- 불확실성 회피성 (UAI)
- 장기지향-단기지향성 (LTO)

2.3 체류국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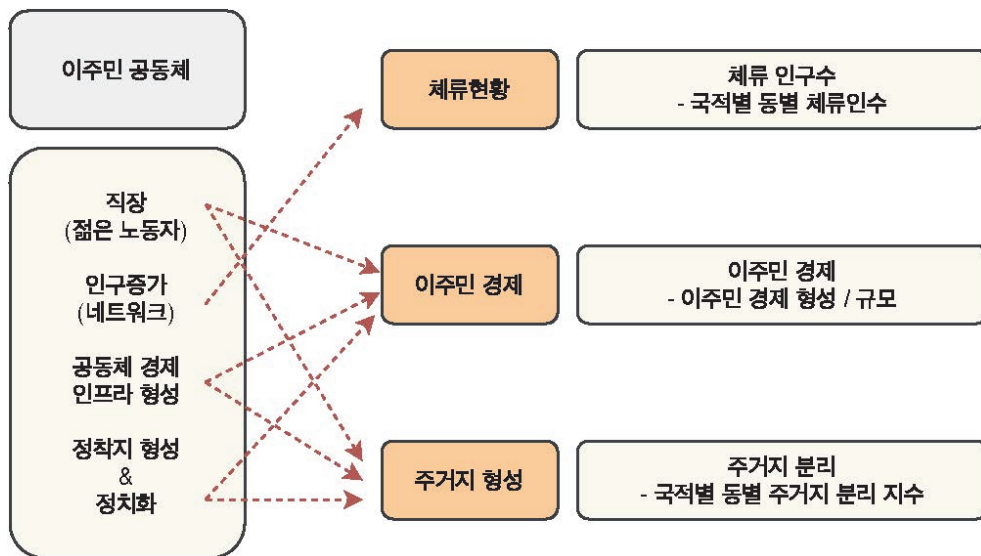


그림 9 체류국 특성 변수 선정

(1) 체류 인구와 이주민 경제

이주민의 문화적응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과정에서 국가별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된다. 이주민의 낮은 환경에 적응을 해나가면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이주민 공동체 특성이 나타나며 이주민 공동체간 서로 비교할 수 있다.(Castle & Miller, 2003)

국가별 체류 인구는 국적별 체류인구 수와 거주지역을 확인하는 지표로 인구수를 통해서 이주민 공동체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현재 국내사회의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출신국과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주민 경제지표는 이주민 공동체에서 자신들을 위한 상업지역을 형성하고 있는가와 그 규모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이주민 경제는 외국인 공동체 형성의 진화로 볼 수 있다. 이주민 공동체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후에 이주민 경제 인프라는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이주민 공동체 위주의 커뮤니티가 발달하면서 그들을 위한 조직, 상가, 서비스시설이 동시에 발달한다. 이러한 이주민 공동체의 발달에 따라 도시사회도 변화한다. 이주민 경제 지역 형성은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과 발전의 중요한 과정으로 공동체가 얼마나 성장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추후 이주민 공동체 확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

[인구, 이주민 경제 변수]

- 국가별 체류인구 지표
- 이주민 경제 지역 지표

(2) 주거지 분리

외국인의 주거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는 같은 출신국의 이주민이 공간적으로 집중되고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현상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유로 공간적으로 내국인과 분리되어 외국인 밀집지역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다문화국가에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Zorlu & Mulder(2010)은 민족·국가 집단마다 문화적 선호와 주류집단의 차별로 주거지가 분리되었으며, 분리 양상은 민족·국가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외 여러 연구에서 주거지 분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문화적 동화로 주류사회에 흡수되어 국가 집단의 특성 표현과 주거지의 분리가 최소화되거나 사라진다.(Portes, 1995). 둘째, 민족성 이론으로 같은 민족과 국가끼리 모여 같은 문화의 친밀성을 근거로 주거지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특성이 그 지역에 표현된다는 이론이다(Allen & Turner, 1996). 마지막으로 체류국의 권력과 경제적 이유로 비주류인 이주민이 소외된 지역으로 주거지 분리된다는 이론이다(Galster, 1990).¹⁷⁾ 본 연구는 체류국과 이주민 공동체와의

17) 하성규, 마강래, 안아림 (2011),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2권 제3호, p91 - 105

관계와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거지 분리 정도를 유형화 변수로 선정하였다.

[주거지 형성 변수]

- 국적별 동별 주거지 분리 지수

3. 변수 측정과 분석방법

3.1 변수 수집 및 표준화

연구 대상인 14개 국가를 출신국 지표인 사회자본 변수 7가지와 문화가치 변수 5가지, 체류국 지표인 체류 현황 변수 2가지와 주거지 분리 1가지, 총 15가지 변수를 측정하였다.

표 14 이주민 공동체 변수

구분	유형	변수	데이터
출 신 국 지 표	사회자본 변수	이민자비율	U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1인당 GNI	WORLD BANK
		제조업 종사자 비율	OECD
		농업 종사자 비율	
		서비스 종사자 비율	
		경제적 자유도	state of world liberty index
		사회적 자유도	
	문화가치 변수	권력거리	Hofstede insight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회피	
		장기지향-단기지향성	
체 류 국 지 표	체류현황 변수	체류인구수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이주민경제	미디어, 현장조사, 인터뷰
	주거지 분포패턴	주거지 분리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수집된 데이터들은 지표가 서로 달라 함께 분석할 수 있도록 Z-score 표준화를 통해 지수의 척도를 다음과 같이 표준화하여 분석하였다.(강신욱 등, 2012) Z-score 표준화는 각 지표의 값에서 그 변수의 평균 지표 값을 빼고 다시 해당 변수의 표준편차로 나누는 방법이다. 지표 값이 평균보다 클 때 양의 값을 가지고 평균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음의 값을 가진다. 18)

$$z = \frac{X - M}{SD}$$

(z:표준화 지수, X:지표값 M: 변수의 평균 SD: 변수의 표준편차)

체류국 지표의 변수는 이주민의 경제 규모와 주거지 분리 정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 변수의 성격에 따라 기준을 두어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중치 부여는 임의의 방식과 통계적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수화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식으로 임의의 방식인 동일가중치(equal weight)을 적용하였다.

18) 정해식외5명 (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 분석과 검증 방법

본 연구는 다변량 통계기법으로 14개 국가의 이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국가 간 특성을 토대로 유사한 특성이 있는 그룹끼리 묶는 군집분석(clustering analysis)을 외국인 밀집지역을 유형의 도출에 활용하였다. 실증조사된 변수를 수치화하여 유사성에 대한 거리를 구해 거리가 가까운 국가끼리 군집을 형성하게 된다. 즉, 변수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들이 하나의 유형을 형성하는 것으로 국가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이고 귀납적인 유형화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15가지 이주민 공동체 지표의 변수가 14개의 국가에서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군집의 수를 정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최초 14개의 군집에서 시작하여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유사한 군집끼리 군집을 시켜 최종 1개의 군집이 될 때까지 수행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ward의 방법¹⁹⁾을 활용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의 수가 확정하고 난 후, 군집간 특성에 따른 분석과 유사한 특성의 군집끼리 재분류하는 K-means(K-평균)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유사한 특성의 국가끼리 군집을 최종 분류하였다. 비계층 군집분석에서 ANOVA 검정을 통해 군집에 사용된 변수를 검정하였다.

19) Ward, J. H. (1963). Hierarchical grouping to optimize an objective fun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8(301), 236 -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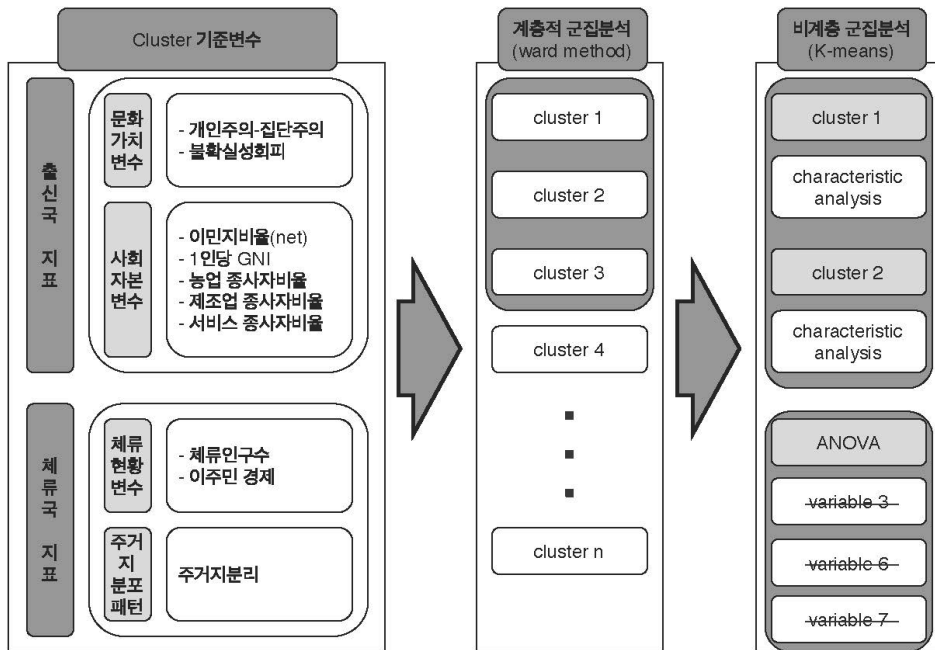


그림 10 군집분석 프로세스

제 4 장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화

1. 이주민 공동체 특성

1.1 출신국 지표

(1) 문화가치 변수

표 15 문화가치 변수

유형	변수
문화가치변수	권력거리 (PDI)
	개인주의-집단주의 (IDV)
	남성성-여성성 (MAS)
	불확실성회피 (UAI)
	장기지향-단기지향성 (LTO)

문화가치 변수는 Hofstede's insights²⁰⁾에서 제공하는 5가지 문화 차원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대상국 14개국 중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20) <https://www.hofstede-insights.com/>

의 결측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두 국가의 결측치를 각 국가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 국가의 지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다. 몽골은 러시아의 지배와 중국의 경제적 영향이 많은 지역으로 이들 국가 지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구소련의 국가 중 하나로 러시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러시아의 지수를 사용하였다.

표 16 문화가치 변수

국가	문화차원				
	PDI	IDV	MAS	UAI	LTO
중국	80	20	66	30	87
미국	40	91	62	46	26
대만	58	17	45	69	93
베트남	70	20	40	30	57
일본	54	46	95	92	88
몽골	87	30	51	63	84
필리핀	94	32	64	44	27
프랑스	68	71	43	86	63
우즈베키스탄	93	39	36	95	81
인도	77	48	56	40	51
캐나다	39	80	52	48	36
영국	35	89	66	35	51
러시아	93	39	36	95	81
태국	64	20	34	64	32

① 권력거리

국가별 문화가치 지표를 살펴보면 권력거리는 필리핀,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골, 베트남이 높게 나타나는데 과거 구소련연

방국이었거나 공산주의 정권의 영향을 받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캐나다, 영국, 미국은 권력거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로 권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부와 다른 어떤 권력에 수궁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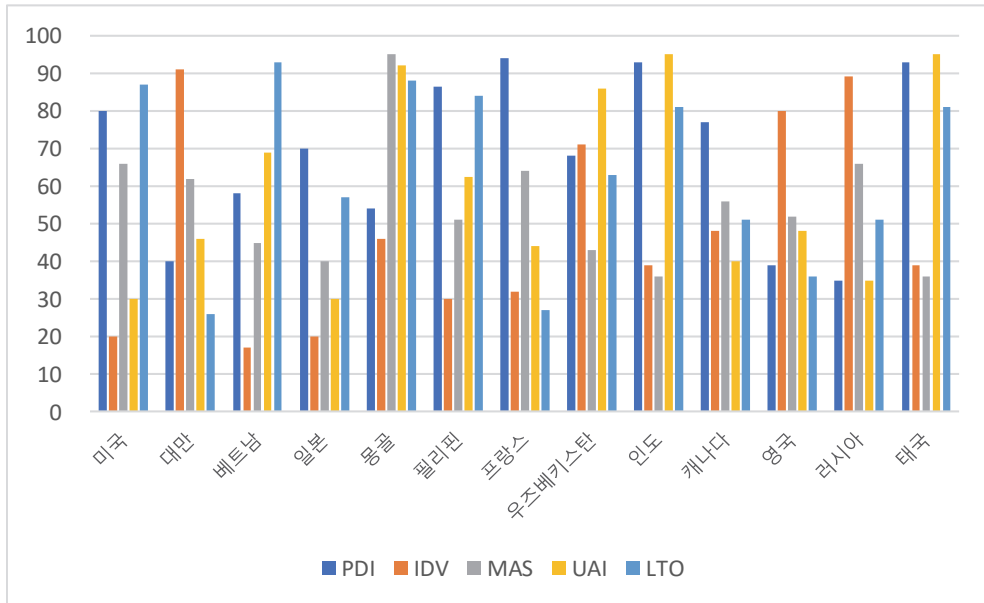


그림 11 국가별 문화 가치 변수

② 개인주의- 집단주의

개인주의-집단주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 국가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로 개인과 가족의 이익을 우선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대만,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필리핀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로 집단을 개인보다 우선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③ 남성성-여성성

남성성-여성성은 일본, 캐나다, 영국이 여성적 국가로 여성성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타협과 협상을 우선하며 체류국과의 융화에 호의적이다. 태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는 남성성이 강한 국가로 나타나 투쟁적 협상을 우선하며 체류국에 쉽게 동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지닌다.

④ 불확실성회피성

불확실성회피성은 대만, 일본, 프랑스,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태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 법률, 과학 등에 의지하는 성향을 지닌다. 반면에 미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 캐나다, 영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주국 문화와 공존하려고 한다.

⑤ 장기지향-단기지향성

마지막으로 장기지향-단기지향성은 대만, 중국, 일본,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래를 노력하고 현재를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미국, 필리핀, 태국, 캐나다가 낮게 나타났는데 현재의 삶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2) 사회자본 변수

표 17 사회자본 변수

유형	변수
사회자본 변수	이민자비율(net) ²¹⁾
	1인당 GNI ²²⁾
	제조업 종사자 비율 ²³⁾
	농업 종사자 비율
	서비스 종사자 비율
	경제 자유도
	사회 자유도

사회자본 변수는 2장에서 언급한 공동체 구성요소이면서 다른 공동체와 구별하는 요소로서 문화 특성을 제외한 정치, 사회, 경제특성으로 구성하였다.(Putnam,2000; 김수영외2인, 2014; Bourdieu, 1985)

① 1인당 GNI

출신국에서 이주민 개인의 경제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1인당 GNI지수는 2018년 기준, 미국이 63,080 달러로 14개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캐나다, 영국, 일본, 프랑스가 40,000 달러 수준으로 그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10,230 달러, 대만은 27,376 달러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인도, 태국은 10,000 달러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

21) www.un.org

22) www.worldbank.org

23) www.oecd.org

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는 2,000 달러 수준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1인당 GNI - 국제이주 변수

국가	경제지표	이주지표
	1인당 GNI(\$)	국제이주지표(%)
중국	9,460	-0.25
미국	63,080	2.93
대만	27,376	1.27
베트남	2,360	-0.84
일본	41,310	0.56
몽골	3,660	-0.27
필리핀	3,830	-0.63
프랑스	41,080	0.56
우즈베키스탄	2,020	-0.28
인도	2,020	-0.4
캐나다	44,940	6.56
영국	41,770	3.9
러시아	10,230	1.25
태국	6,610	0.28

② 이주민 비율

국제 이주비율(net)은 대상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과 유출되는 자국민의 합을 비율을 사용하였다. 2018년 기준 이주민 순유출국은 중국,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베트남과 필리핀의 이주민 유출이 가장 많았다. 이주민 순유입국은 미국, 대만, 일본, 프랑스, 캐나다, 영국, 러시아, 태국으로 나타났고 캐나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미국, 영국 순으

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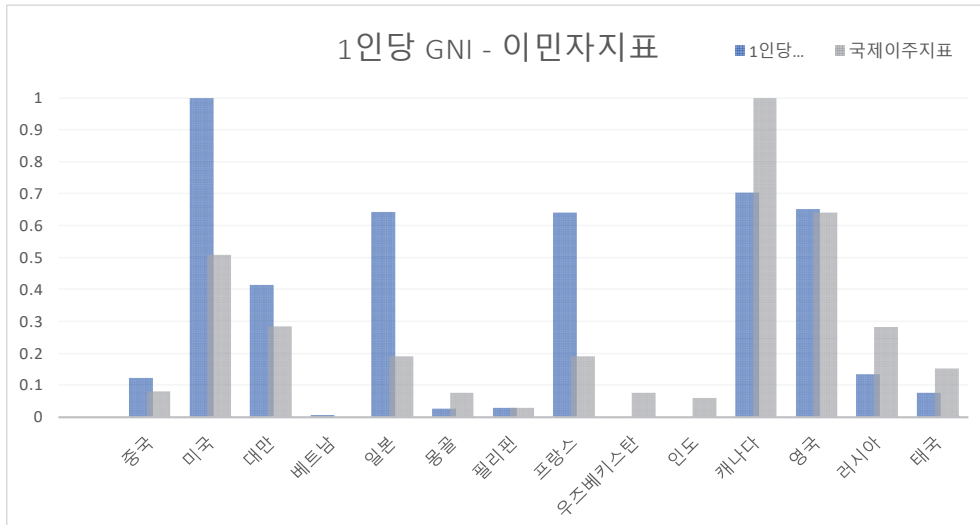


그림 12 국가별 1인당GNI지수-국제이주지표

③ 산업별종사자비율

2018년 기준 농업 노동자 비율은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가 10%대로 높았고 필리핀이 9.6%, 태국이 8.4%, 중국이 7%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중국이 40.50%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 프랑스, 영국이 10%~20%대로 낮게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은 20~30%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미국이 80%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 영국, 캐나다가 70%대로 높았다. 우즈베키스탄이 48.50%, 몽골이 49.70% 가장 낮았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이 50%대로 낮았다.

표 19 산업별 종사자 변수

국가	산업별 종사자 비율(%)		
	농업	제조업	서비스
중국	7.90	40.50	51.60
미국	0.90	19.10	80.00
대만	1.80	36.00	62.10

베트남	15.30	33.30	51.30
일본	1.10	30.10	68.70
몽골	12.10	38.20	49.70
필리핀	9.60	30.60	59.80
프랑스	1.70	19.50	78.80
우즈베키스탄	17.90	33.70	48.50
인도	15.40	23.00	61.50
캐나다	1.60	28.20	70.20
영국	0.70	20.20	79.20
러시아	4.70	32.40	62.30
태국	8.20	36.20	5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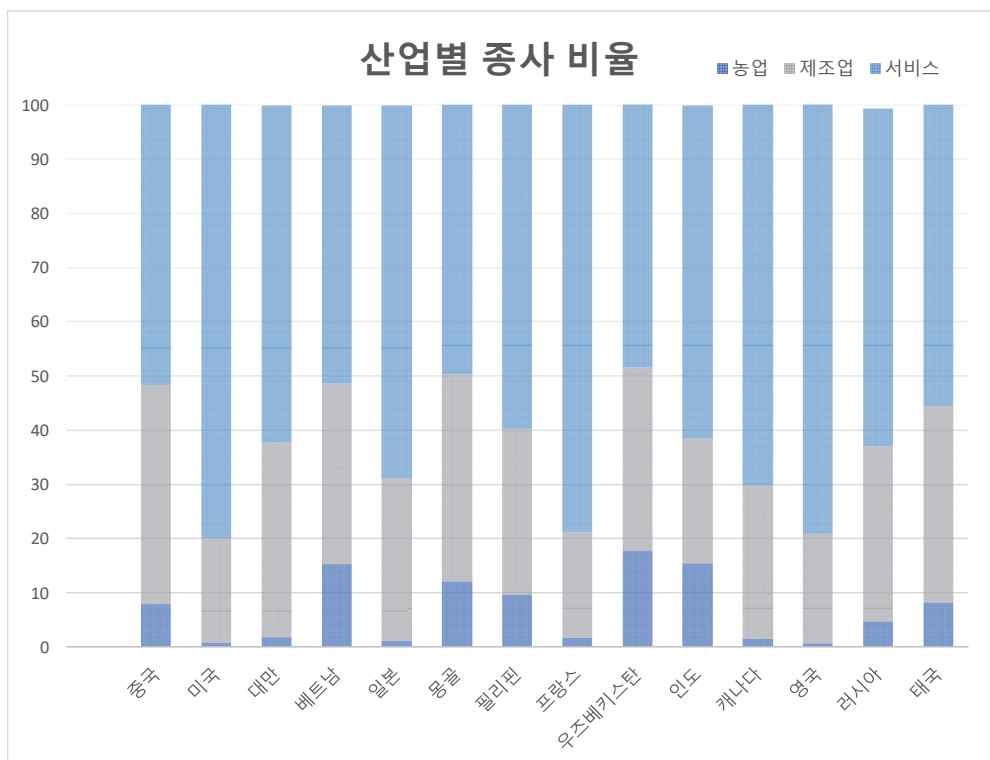


그림 13 산업별 종사비율

④ 정치성향

정치성향은 경제 자유도와 사회 자유도를 활용하였다.(Rhamey, 2019) 경제자유도가 높고 사회자유도가 높은 국가는 진보적 정치성향으로 경제자유도가 낮고 사회자유도가 낮은 국가는 보수적 정치성향으로 나타난다. 미국, 대만, 영국이 0.8점대로 높게 나타났고, 일본, 필리핀, 태국이 0.7점대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이 가장 낮은 0.5~0.6 점대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유는 캐나다가 0.97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만,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이 0.8~0.9점대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이 0.17 점대로 가장 낮았으며 베트남, 러시아도 0.2점대로 낮게 나타났다.

표 20 정치성향 변수

국가	정치성향 (%)	
	경제자유	사회자유
중국	0.61	0.17
미국	0.84	0.87
대만	0.83	0.90
베트남	0.58	0.24
일본	0.77	0.90
몽골	0.66	0.80
필리핀	0.71	0.58
프랑스	0.70	0.86
우즈베키스탄	0.56	0.17
인도	0.60	0.65
캐나다	0.84	0.97
영국	0.85	0.88
러시아	0.64	0.29
태국	0.70	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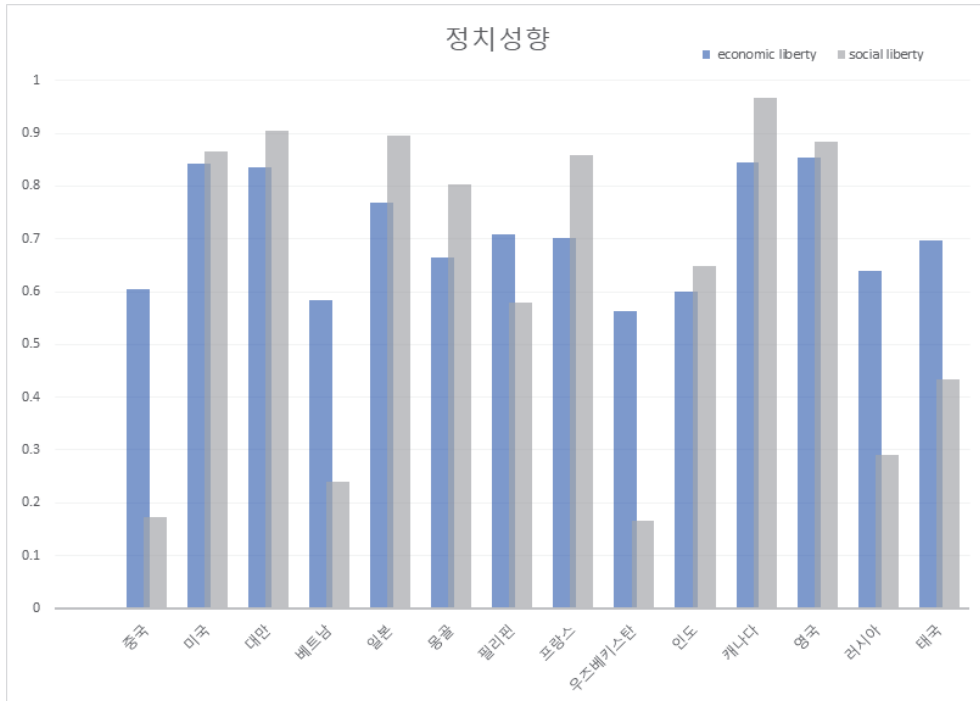


그림 14 정치성향

1.2 체류국 지표

(1) 체류 현황 변수

표 21 문화가치 변수

유형	변수
체류현황 변수	체류 인구수
	이주민 경제

연구대상 국가인 14개 국가를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체류외국인 통계자료는 개인정보보호 법으로 2016년 2분기 자료를 활용하였다. 서울시의 국적별 외국인 등록인구 현황을 보면 한국계중국인의 비율이 50.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인이 20.94%로 많았고, 이후 미국,

타이완, 일본, 베트남이 3% 비율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아시아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미국, 캐나다의 북아메리카 지역이 각각 3.38%, 0.65%로 나타났고,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유럽지역이 0.52%, 0.54%, 0.75%로 나타났다.

표 22 서울시 등록외국인 현황 (2016)

국적	인구수	비율
전체	273,233	100.00%
중국	196,181	71.80%
한국계중국인	138,957	50.86%
미국	9,242	3.38%
대만	8,664	3.17%
베트남	8,708	3.19%
일본	8,191	3.00%
몽골	5,189	1.90%
필리핀	3,665	1.34%
프랑스	2,044	0.75%
우즈베키스탄	1,954	0.72%
인도	1,898	0.69%
캐나다	1,777	0.65%
영국	1,470	0.54%
러시아	1,431	0.52%
태국	1,292	0.47%
기타	21,527	7.88%

다음은 서울시 체류 목적별 등록외국인 현황이다. 2016년 기준으로 서울시 체류외국인 중 방문취업의 목적이 34.11%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가장 많은 체류 외국인이 있는 한국계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의 대다수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 목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 영주와 유학, 결혼이민이 각각 16.83%, 10.16%, 7.87%로 나타났다.

표 23 서울시 체류목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2016)

체류자격	합계	비율	체류자격	합계	비율
전체	273,233	100.00%			
방문취업(H-2)	93,201	34.11%	구직(D-10)	2,514	0.92%
영주(F-5)	45,998	16.83%	관광취업(H-1)	1,261	0.46%
유학(D-2)	27,773	10.16%	교수(E-1)	902	0.33%
결혼이민(F-6)	21,504	7.87%	상사주재(D-7)	753	0.28%
방문동거(F-1)	18,063	6.61%	연구(E-3)	621	0.23%
거주(F-2)	12,506	4.58%	무역경영(D-9)	594	0.22%
일반연수(D-4)	11,597	4.24%	전문직업(E-5)	553	0.20%
동반(F-3)	7,983	2.92%	종교(D-6)	537	0.20%
특정활동(E-7)	7,971	2.92%	예술흥행(E-6)	472	0.17%
비전문취업(E-9)	4,291	1.57%	취재(D-5)	83	0.03%
회화지도(E-2)	3,878	1.42%	기술지도(E-4)	68	0.02%
기타	3,834	1.40%	산업연수(D-3)	49	0.02%
기업투자(D-8)	3,222	1.18%	문화예술(D-1)	39	0.01%
기타(G-1)	2,962	1.08%	선원취업(E-10)	4	0.00%

이주민들은 새로운 환경 적응과 동화되는 과정에서 음식, 상품, 서비스시설 등에서 출신국에서 경험하여 익숙한 것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주민 자체적으로 이주민 공동체를 위한 출신국에서 판매하는 식료품과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음식점, 서비스시설이 생겨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업시설을 이주민 경제로 정의하고 한정한다. 이러한 이주민 경제를 2000년 이후 이주민 경제와 관련된 보도자료와 서울시 14개 국가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장조사

를 통해 이주민 경제 여부와 규모를 실증 조사하였다.

표 24 서울시 국적별 이주민 경제지역

국가(민족)	지역명칭	이주민 경제
중국(통합)	대림동 차이나타운 자양동 차이나타운 봉천동 차이나타운	○
중국(한국계)	독산동 차이나타운 신길동 차이나타운	○
미국	이태원	X
베트남	왕십리 도선동 베트남타운	○
대만	연희동 화교마을	○
일본	동부이촌동 리틀도쿄	○
몽골	광희동 몽골타운	○
필리핀	해화동 필리핀마을	△
프랑스	반포4동 서래마을	○
우즈베키스탄	광희동 몽골타운	△
인도	이태원 인도거리	X
캐나다	이태원	X
영국	이태원	X
태국	분산	X
러시아	광희동 몽골타운	○

상기 표와 같이 현재 이주민 경제가 형성된 곳은 중국, 베트남, 대만, 일본, 필리핀, 프랑스, 인도,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로 나타났다. 이주민 경제가 형성되지 않은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태국이었다. 조사된 결과로는 이주민 경제의 여부는 외국인의 체류 인구수와 밀접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이주민 경제의 형성은 체류 인원수와 장소와는 상관없이 국가나 민족의 문화적 특성과 체류국과의 관계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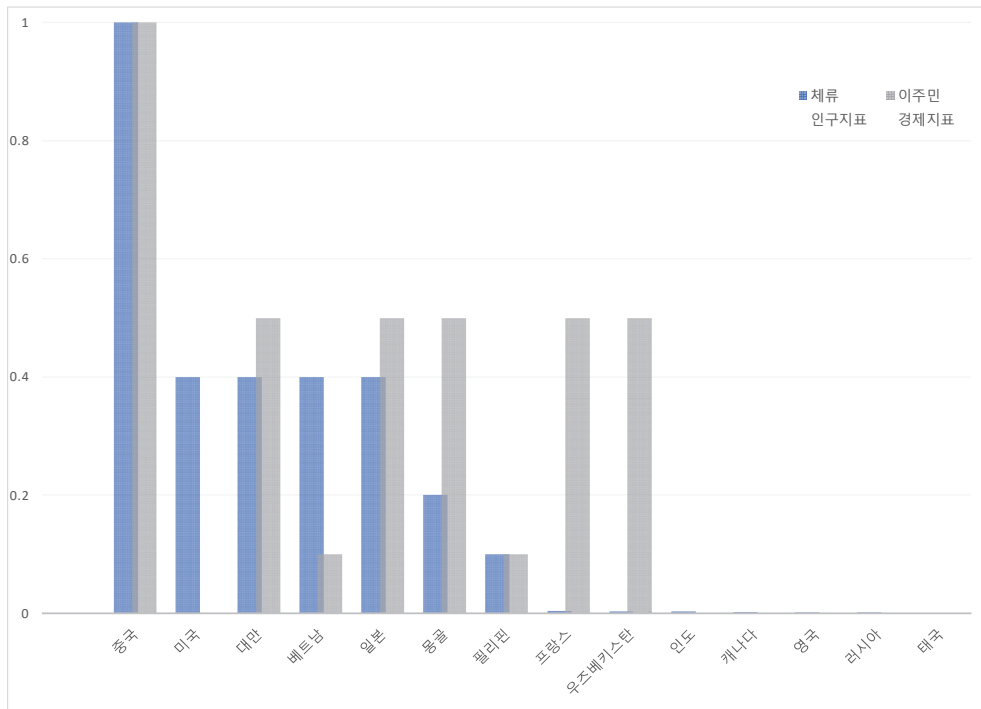


그림 15 서울시 체류외국인 현황

국내에서 가장 많은 체류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대림동, 자양동, 봉천동, 독산동, 신길동 등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집단거주지의 주변에 이주민 경제 시설이 있다. 경제주체는 대부분 중국인이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적 중국인 공동체를 위한 이주민 경제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경우는 집단거주지와 이주민 경제 지역과 떨어져 있으며 규모가 작다. 현재 왕십리 도선동에 식품 상점을 포함한 일부 식품점과 음식점이 모여 있으며 경제주체는 한국인과 베트남인 모두 있으며 식품점은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음식점은 한국인과 베트남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일본 이주민 경제는 이촌1동을 중심으로 리틀도쿄라는 이름으로 형성되었다. 20세기 초반부터 형성된 지역으로 2000년대 초까지 국

내 일본인이 가장 많이 거주한 지역이었으나 10년 전부터 일본인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집단거주지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기존에 형성된 이주민 경제 시설이 줄었으나 여전히 식품 상점과 음식점, 서비스시설 등 일부 시설이 남아있다. 이곳의 이주민 경제의 주체는 일본인과 한국인 모두이며 오래된 일본 관련 음식점과 서비스시설은 대부분 일본인이 경영하고 있었다.

대만은 연회동에 화교 마을로 불리는 지역에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으며 대만인을 위한 화교 식품 상점과 음식점, 서비스시설이 형성되어 있다. 대부분 주체는 대만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만인과 중국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국 손님이 증가하고 있다.

필리핀은 서빙고동, 용산2가동, 한남동 남쪽에 집단거주지가 일부 형성되어 있다. 주말에는 혜화동 성당 주변에 필리핀인을 위한 주말장이 열린다. 대부분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집단거주지와 이주민 경제가 반포4동 프랑스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일부 음식점과 서비스시설은 프랑스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인과 한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도는 한남동, 서빙고동에 집단거주지가 일부 존재하나 이주민 경제는 용산동2가 해방촌 지역에 있는 작은 힌두교 사원 주변으로 일부 음식점과 식료품점, 소규모 상점이 있으며, 인도인들과 한국인 모두 이용하고 있다.

러시아와 몽골,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광희동 같은 지역에 러시아타운, 몽골타운으로 이주민 경제가 형성되어 있고 비슷한 문화권

인 우즈베키스탄도 이주민 경제도 일부 형성되어 있으며 공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곳이 러시아타운으로 유명했으나 현재는 몽골인이 증가하면서 경제주체가 몽골인으로 바뀌고 명칭도 몽골타운으로 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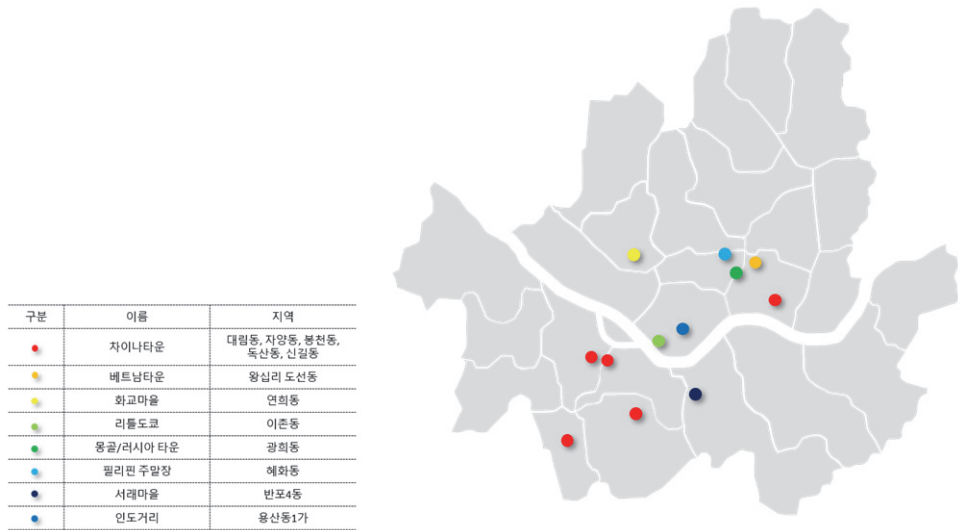


그림 16 외국인 이주민경제 지역

(2) 주거지 분리 변수

외국인 집단거주지의 주거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는 동일 출신국의 외국인 집단이 공간적으로 집중되었거나 분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제, 사회, 문화적 이유로 공간적으로 내국인과 분리되어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과 유럽 등 다문화국가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Zorlu & Mulder(2010)은 국가 집단마다 문화적 선호와 주류집단의 차별로 주거지가 분리된다고 하였다. 주거지 분리 양상은 국가 집단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이외 다수의 연구에서 주거지 분리에 관해

설명하는데, 첫째, 문화적 동화로 주류사회에 흡수되어 국가 집단의 특성을 표현과 주거지의 분리가 최소화되거나 사라진다.(Portes, 1995). 둘째, 민족성이론으로 같은 출신국의 이주자가 모여 같은 문화의 친밀성을 근거로 공동체의 특성을 표현하고 주거지 분리도 이루어진다.(Allen and Turner, 1996) 마지막으로 체류국의 권력과 경제적 이유로 비주류인 국가집단이 소외된 지역으로 주거지 분리가 이루어진다.(Galster, 1990)²⁴⁾

국적별 공간별 이주민의 주거지 분포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GIS(QGIS 3.4)를 활용하여 지역별 거주인구를 열지도로 시각화하였다. 열지도를 통해 국가별 체류 지역이 다양하다는 사실과 국가별 집단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적별 분포패턴을 보면 대부분 국가와 대륙, 유사한 문화 국가끼리 근접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 분리지수를 확인하기 전에 국가별 체류 외국인 분포 비율을 확인하였다. 주거지 분리와 별도로 국가별 체류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2016년 서울시 국가별 체류 외국인분포 비율을 보면 중국이 영등포 대림2동과 구로구 가리봉동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계중국인도 유사한 분포패턴을 보여 중국인과 한국계중국인 집단거주지가 겹쳐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인이 서울시 외국인의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주거지는 몇 개의 지역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4) 하성규, 마강래, 안아림 (2011),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2권 제3호, p91 - 105

표 25 국가별 체류 외국인 상위 지역 (2016)

국가(민족)	체류(명)	대표지역	지역명칭
중국(통합)	196,181	대림2동(4.98%), 구로제2동(4.56%), 가리봉동(3.74%)	대림동 차이나타운 자양동차이나타운
중국(한국계)	138,957	대림2동(6.03%), 구로제2동(5.38%), 가리봉동(4.72%)	봉천동차이나타운 독산동차이나타운 신길동차이나타운
미국	9,242	한강로동(5.00%), 용산2가동(4.69%), 한남동(3.91%)	이태원
베트남	8,708	잠실3동(3.59%), 상동제1동(1.77%), 군자동(1.70%)	왕십리 도선동 베트남타운
대만	8,664	연희동(12.82%), 연남동(6.54%), 신촌동(2.89%)	연희동 화교마을
일본	8,191	이태원제1동(10.40%), 한강로동 (6.17%), 신촌동(4.18%)	동부이촌동 리틀도쿄
몽골	5,189	이문제1동(4.16%), 석관동(2.39%), 연목본동(2.20%)	광희동 몽골타운
필리핀	3,665	서빙고동(3.90%), 용산2가동(3.57%), 한남동(3.52%)	해화동 필리핀마을
프랑스	2,044	반포4동(13.80%), 신촌동(5.19%), 방배4동(4.40%)	반포4동 서래마을
우즈베키스탄	1,954	광희동(13.25%), 장충동(7.01%), 군자동(5.02%)	광희동 몽골타운
인도	1,898	한남동(5.74%), 서빙고동(3.69%), 화양동(3.21%)	이태원 인도거리
캐나다	1,777	용산2가동(4.61%), 보광동(4.45%), 공항동(3.43%)	X, 이태원
영국	1,470	한남동(6.53%), 보광동(5.92%), 연희동(4.90%)	X, 이태원
태국	1,292	신촌동(5.11%), 휘경제1동(3.17%), 서빙고동(3.02%)	X, 분산
러시아	1,431	소공동(8.25%), 용산2가동(3.21%), 신촌동(2.94%)	광희동 몽골타운

미국은 용산구 미군 부대 주변인 용산2가동, 한남동에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고 일부 연희동과 신촌에 유학, 회화지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는 서대문구 연희동과 마포구 연남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용산구의 이촌1동과 한강로동, 갈현2동에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은 송파구 잠실3동과 광진구 군자동에 일부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 지역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몽골은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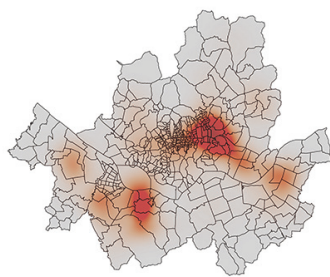
대문구 이문동부터 중구 광희동까지 서울의 다소 동북쪽에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용산구 서빙고동부터 원효로까지 용산구에 확산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는 반포4동을 중심으로 서초구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서대문구 신촌에 유학 등의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의 경우는 용산구와 서대문구에 일부 집중되어 있고 나머진 전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구 광희동과 장충동에 집중되어 있고 전 지역에 분산된 패턴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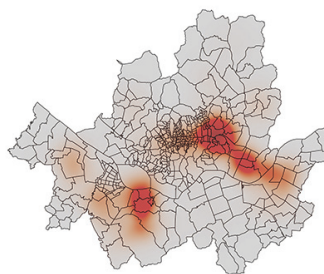
인도는 용산구 한남동과 서빙고동, 한강로동에 집단거주하고 여러 지역에 분산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중구 소공동에 가장 큰 집단거주지가 있으며 주변으로 거주하는 패턴으로 서울 중심부 위주에 거주하는 패턴이 보였다. 태국의 경우는 서울 중심부에 집단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 곳곳에 분산되었다.

영국의 경우는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패턴을 보였다. 일부 연희동과 신촌에 유학과 회화지도의 목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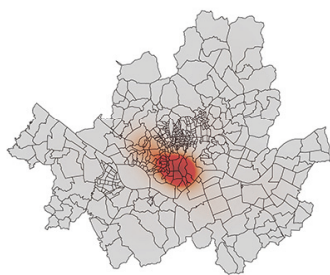
이러한 국가별 거주 분포패턴 정리하면 중국, 미국, 대만, 일본, 몽골, 필리핀, 프랑스, 인도, 러시아, 영국의 경우는 집단거주지가 존재하고, 베트남,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경우는 서울 전역으로 분산되어 거주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으로 같은 국가와 민족끼리 집단거주하려는 성향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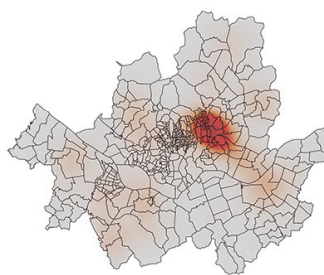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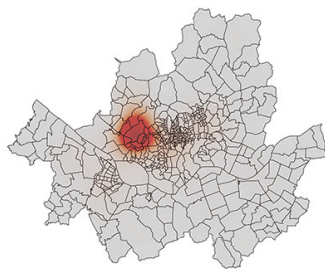
한국계중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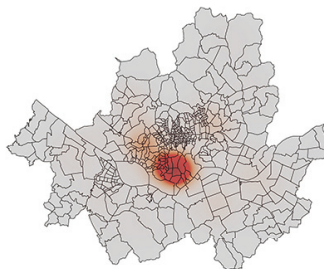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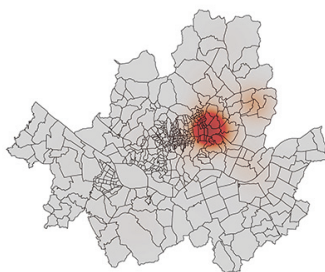
캐나다



대만



러시아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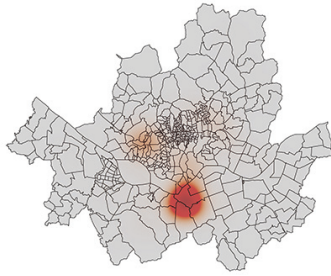


몽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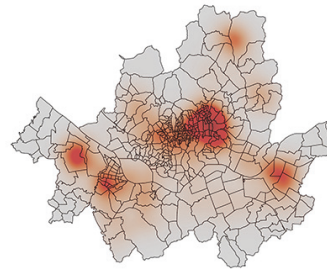


필리핀

그림 17 국가별 체류지역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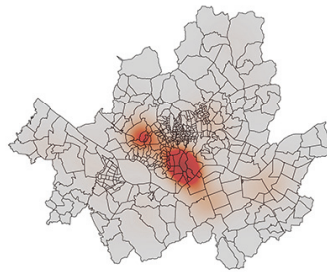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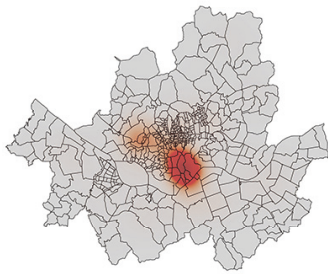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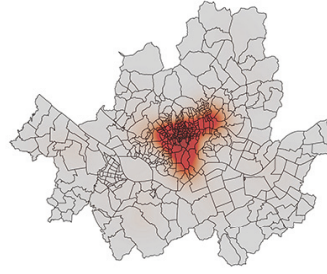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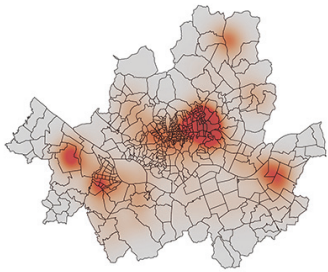
캐나다



영국



러시아



태국

그림 18 국가별 체류지역 현황-2

본 연구는 국적별 공간적 주거지 분포패턴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적 공간 집중도를 측정하는 비유사성지수(dissimilarity index) 사용하였다. 비유사성지수는 Duncan and Duncan(1955)이 개발한 지수로 현재 집단의 주거 패턴의 균일성을 측정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²⁵⁾ 이 지수를 통해 어느 특정 집단이 어느 공간에 어느 정도 모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비유사성지수는 ‘특정 국가 외국인의 서울시 총인구수에 각 동의 외국인 수를 나눈 값(= x_j/X)에서 서울 내국인 수에 각 동 내국인 수를 나눈 값(= y_j/Y)의 차를 모두 합하여 구해진다. 이러한 비유사성지수(D) 공식은 다음과 같다.

$$D = \frac{1}{2} \left(\sum_{j=1}^J \left| \frac{x_j}{X} - \frac{y_j}{Y} \right| \right)$$

비유사성지수는 주거지 분포패턴이 균등한 상태가 되기 위하여 한 집단이 이주해야 하는 비율(최은영, 2003)을 나타낸다. 지수 D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이론적으로 공간적 분리 정도가 높으면 1에 가깝고 분리 정도가 낮으면 0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비유사성지수는 대체로 0.3보다 낮으면 거주지 분리 정도가 낮다고 보며, 0.3 ~ 0.6 사이는 보통 수준의 거주지 분리로 보며, 0.6보다 크면 거주지 분리가 되었다고 해석한다.²⁶⁾ 본 연구에서는 비유사성지수가 0.3 이상의 주거지 분리가 이뤄지고 민족 경제와 커뮤니티가 발달되어 건축, 도시의 민족 문화가시성을 조사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려고 한다.

25) 하성규, 마강래, 안아림 (2011),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2권 제3호, p91 - 105

26) 박윤환 (2010), 수도권 지역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제48권 제4호, p429-453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유사성지수는 특정 집단의 공간 분리를 측정함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비유사성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외국인이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적별 주거지 분리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14개의 국적과 한국계 중국인의 주거지 분리 양상을 분석하였다. 외국인을 아래 표는 서울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의 423개의 동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적별 외국인 주거지 분리 정도를 측정하였다.

표 26 서울시 구별 국가별 체류 외국인 비유사성지수

출신국가	유의미한 지역
중국(통합)	구로구(0.5918), 광진구(0.4785), 중구(0.4216), 영등포구(0.4210), 동대문구(0.4104), 관악구(0.3728), 동작구(0.3712), 서대문구(0.3423), 성북구(0.3003)
한국계중국인	구로구(0.5665), 동작구(0.4453), 관악구(0.3970), 영등포구(0.3847), 광진구(0.3780)
미국	서대문구(0.3401)
일본	용산구(0.3184)
우즈베키스탄	중구(0.3262)
프랑스	서대문구(0.3060)
기타	용산구(0.3074), 서대문구(0.3047)

우선, 서울시 전체는 0.3 이상²⁷⁾인 지역구가 20개 지역구로 나타나 대부분 지역의 유의미한 주거지 분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인구인 한국계중국인의 구별 비유사성지수를 보면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광진구에서 0.3 이상의 유의미한 수치를 보

27) 일반적으로 비유사성지수는 대체로 0.3보다 낮으면 거주지 분리 정도가 낮다고 보며, 0.3 ~ 0.6 사이는 보통 수준의 거주지 분리로 보며, 0.6보다 크면 거주지 분리가 되었다고 해석된다.

였다. 여러 지역에 유의미한 수치가 나온 것은 서울시 여러 지역에 밀집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은 서대문구에서, 일본은 용산구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구에서 프랑스는 서대문구에서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고 기타 국가는 용산과 서대문구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타났다. 나머지 대만,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인도, 캐나다, 영국, 러시아, 태국은 구 단위에서는 유의미한 지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27 서울시 행정동별 국가별 체류 외국인 비유사성지수

출신국가	유의미한 지역
중국(통합)	광진구 자양4동(0.3400), 서대문구 신촌동(0.3262), 동작구 신대방1동(0.2392), 영등포구 대림2동(0.2270), 구로구 구로2동(0.2232), 구로구 가리봉동(0.2121)
한국계중국인	광진구 자양4동(0.4183), 동작구 신대방1동(0.3304), 종로구 창신2동(0.2820), 중구 신당동(0.2807), 영등포구 대림2동(0.2287), 구로구 가리봉동(0.2282)
미국	서대문구 신촌동(0.3696), 서대문구 연희동(0.3107), 강남구 역삼1동(0.1363)
대만	서대문구 연희동(0.3433), 중구 회현동(0.3267), 마포구 서교동(0.0689)
일본	서대문구 신촌동(0.5496), 은평구 갈현2동(0.4114), 용산구 이촌1동(0.3957)
필리핀	용산구 이태원1동(0.1721), 용산구 용산2가동(0.1365)
우즈베키스탄	중구 광희동(0.4401), 중구 장충동(0.2123)
러시아	중구 소공동(0.5238)
인도	용산구 한남동(0.2055)
프랑스	서대문구 신촌동(0.6119), 서초구 반포4동(0.5003)
기타	서대문구 신촌동(0.4755), 강서구 공항동(0.3805), 성동구 사근동(0.3523)

행정동 단위에서의 국적별 주거지 분리 정도는 다음과 같다. 한국계중국인의 경우 광진구 자양4동(0.3400), 서대문구 신촌동(0.3262)에서 높은 분리 정도를 나타냈고, 대림2동과 구로2동, 가리봉동은 0.2 정도의 수치를 보여 인구는 밀집되었으나 내국인과 주거지가 명확히 구분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수치는 후자의 세 지역의 불법체류자 인구의 수치가 반영되지 않아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서대문구 신촌동(0.3696), 서대문구 연희동(0.3107)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타났다. 이곳은 유학생과 어학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학생과 어학교사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

대만은 서대문구 연희동(0.3433), 중구 회현동(0.3267)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타났다. 연희동의 화교 마을과 예전 명동 주변 화교 마을의 영향으로 보인다.

일본은 서대문구 신촌동(0.5496), 은평구 갈현2동(0.4114), 용산구 이촌1동(0.3957)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타났다. 신촌의 경우 미국과 같이 학생과 어학원이 밀집하여 높았고, 이촌1동은 이촌동 리틀도쿄 지역의 영향으로 보인다. 갈현2동의 경우 초·중·고등학교가 일본과 자매를 맺어 교환학생이 많고, 자식들을 위해 부모들도 한국에 와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구 광희동(0.4401)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몽골타운 주변으로 집단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중구 소공동(0.5238)에 높은 수치를 보였다. 과거 광희동 지역에 거주하다 소공동 주변으로 이전하였다.

프랑스는 서대문구 신촌동(0.6119), 서초구 반포4동(0.5003)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신촌의 경우는 학생과 어학원에 영향으로 보이며, 반포4동은 프랑스 학교로 인한 마을이 형성으로 주거지가 분리 형성되었다. 나머지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인도, 캐나다, 영국, 태국의 경우는 유의미한 지역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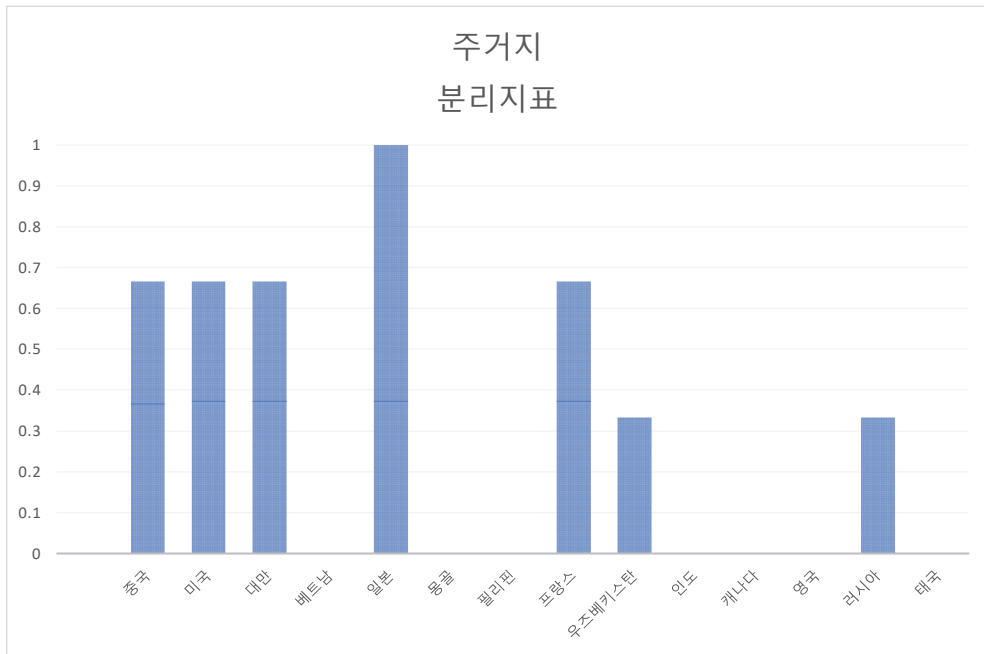


그림 19 주거지분리지표

서울시에서 구 단위의 외국인 주거지 분리는 일부 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구로구, 광진구,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관악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의 경우는 비유사성지수가 0.3 이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여 외국인의 주거지 분화가 일어난 것으로 예측되나 나머지 16개의 행정구에서는 주거지 분화가 이뤄진 경우가 거의 없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분리지수가 높은 9개 지역 대부분은 구도심과 노후화가 진행된 지역이 많고 시내 중심부이거나 중심부에 인접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도심 주거지 노후화로 내국인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주거비용이 저렴한 지역에 외국인이 이주하여 집단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중 서대문구, 용산구의 경우 미국, 대만,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광진구의 경우는 중국인과 한국계중국인 위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은 국내 체류 자격과 주거비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3 소결

서울시 이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15가지 변수를 측정하고 국가마다 특성을 분석하였다. 문화가치 변수는 5가지 항목으로 국가별 측정하였다. 문화가치는 동남아의 개발도상국 집단과 유럽지역과 북미지역의 국가 동아시아국가로 유사한 성향을 보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정권의 영향을 받아 특이한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일부 동아시아국가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중간 점수로 나타나 경제적 성장의 정도가 문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이 이민자 비율과 1인당 GNI, 산업별 종사자비율, 정치성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현황 변수는 인구가 많으면 이주민 경제 발전에 유리하지만, 형성과는 연관이 없었으며 주거지 분리는 체류 인구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제이주가 출신국의 경제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주환경 요인이 거주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이주민 공동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징이 체류 현황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도 있었다. 최초 이주민들이 주거지를 형성할 때 집단주의 성향이 높으면 같은 출신국 사람들끼리 같은 지역에 거주하려는 성향이 크며, 1인당 GNI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 거주지역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산업별종사자 비율과 개인주의적 특성은 산업단지, 상업지역, 외국인학교 등 거주지역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중국이 가장 많으며 다른 국가보다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중에서 한국계중국인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계중국인은 재외교포로 분류되고 국내 체류 자격 조건이 다른 외국인에 비교해 까다롭지 않고 체류 기간 연장이 쉽다. 그리고 한국말 사용이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외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아시아권이 국가가 많았으며 이외 북미지역의 미국, 캐나다, 유럽의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10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

이주민들은 출신국에서 경험하여 익숙한 것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주민 경제를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중국, 대만, 일본, 몽골, 프랑스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인도, 러시아는 일부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태국은 이주민 경제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는 대체로 이주민 경제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럽과 북미지역은 이주민 경제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앞서 언급한 집단주의 성향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

인다. 이주민 경제는 체류인구수와 절대적인 관계는 없지만, 중국처럼 체류 인구가 많으면 규모가 크고 여러 지역에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서울시 체류 외국인의 거주지 분포 특성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들은 서울 구도심 지역에 집중하여 노후된 도심지역에 분포되어있는 경향을 보이고 북미와 유럽지역의 국가들은 생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 편리한 도심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거주지 형성 전후 경제적 조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 분리지수는 이주민이 집중되어 거주한 지역 중 내국인과의 비율을 바탕으로 이주민 공동체의 주거지가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수이다. 대부분 이주민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주거지 분리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한 국가의 주거지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인도, 캐나다, 영국은 집단거주지가 존재하지만, 주거지 분리로 볼 수 있는 지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은 집단거주지가 없고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어 주거지 분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 도출

2.1 기술통계

본 연구의 대상인 14개 국가에 대하여 4장에서 선정한 이주민 공동체 지표 15개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가별 문화 가치 성향에 대한 변수인 개인주의-집단주의 지수의 경우 평균은 45.86 중간값이 50에 근접하였다. 최대값을 가진 국가는 91점이고 최소값을 가진 국가는 17점이었다. 불확실성회피의 경우는 평균이 61.21점이었고 최대값을 가진 국가는 93점이고 최소값을 가진 국가는 26점이었다. 두 문화 가치 변수의 다양한 값을 가진 국가가 연구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자본 변수들을 살펴보면 1인당 GNI의 최대값을 가진 국가는 63,080달러로 나타났고 최소값은 가진 국가는 2,020달러로 나타나 표준편차가 21,029.09달러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민자 비율은 유입보다 유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국민 수의 -0.84%로 나타났고 반면 유출보다 유입이 가장 높은 국가는 국민 수의 6.56%로 나타났다.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 종사자 비율이 62.81%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 종사자 비율이 7.06%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정치성향 지표를 유추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도 변수와 사회적 자유도 변수는 평균이 0.71%, 0.62%로 나타났다. 대상국 대부분은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사회적 자유도는 최소값은 0.17%, 최대값은 0.97%로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류 현황지표 중 체류 인구수는 가장 많은 국가가 196,191명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국가가 1,292명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51,385로 국가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의 경제

는 평균이 0.12로 적은 수치로 분석되었고, 주거지 분리에서는 평균이 0.31로 분석되었다.

14개 연구대상 국가와 지역에 대한 변수별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개 변수 모두 유효한 목록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다음 계층별 군집분석을 하였다.

표 28 기술통계량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출신국지표	문화가치	권력거리	14	35	94	67.96	19.86
		개인의주의-집단주의	14	17	91	45.86	25.46
		남성성-여성성	14	34	95	53.29	16.01
		불확실성회피성향	14	30	95	59.75	23.41
		장기지향-단기지향	14	93	26	61.21	23.64
	사회자본	1인당 GNI	14	2,020	63,080	21,410.43	21,029.09
		이민자비율(net)	14	-0.84	6.56	1.05	2.09
		농업 종사자 비율	14	0.70	17.90	7.06	6.17
		제조업 종사자 비율	14	19.10	40.50	30.07	7.12
		서비스 종사자 비율	14	48.50	80.00	62.81	11.12
		경제적 자유도	14	0.56	0.85	0.71	0.10
		사회적 자유도	14	0.17	0.97	0.62	0.30
체류국지표	체류현황변수	체류인구수	14	1,292	196,181	17,979	51,385.39
		이주민경제	14	0.00	1.00	0.12	0.26
	주거지분포패턴	주거지분리	14	0.00	1.00	0.31	0.36
유효 N(목록별)			14				

2.2 군집분석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실증적 조사와 분석을 기반을 둔 귀납적 유형화를 위해 3장에서 선정한 출신국 지표 12개 변수와 체류국 지표 3개 변수를 활용하여 군집화 분석을 하였다.

(1) 계층적 군집분석

본 연구에서는 제곱유클리디안거리²⁸⁾를 사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²⁹⁾을 하였다. 제곱 유클리드거리(squared euclidean distance)삼각형 원리를 이용하여 두 지점 간 최단거리를 구하여 제곱한 방식으로 다차원 공간에서 거리측정에 많이 사용된다.

$$d(x, y) = \|x - y\|^2 = \sum_{i=1}^k (x_i - y_i)^2$$

이렇게 구한 거리를 기반으로 하여 군집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 ward 연결법을 활용하였다. 각 군집의 오차분산 자승(ESS) 총합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사한 사례들을 군집화하면서 구분하는 방식이다. ESS를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Em = \sum_{l=1}^{n_m} \sum_{k=1}^p (x_{ml,k} - \overline{x_{m,k}})^2$$

$\overline{x_{m,k}}$: k번 변수의 m번 군집 평균

다음과 같이 거리가 가까운 순서로 군집화가 진행되었다. 12단계에서 13단계에서 계수의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나서 전 단계인 12단계에서의 군집을 기준으로 군집계수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표 29 군집화 일정표

결합 군집		계수	처음 나타나는 군집의 단계		다음 단계
군집 1	군집 2		군집 1	군집 2	
11	12	5.208	0	0	5
7	10	5.654	0	0	6
4	14	7.077	0	0	6

29) 유사도가 가장 높은 개체들을 찾아 연속적으로 유사한 개체를 군집화시키는 방식

9	13	7.700	0	0	9
2	11	8.361	0	1	11
4	7	9.144	3	2	7
4	6	9.595	6	0	9
3	5	13.981	0	0	10
4	9	14.311	7	4	12
3	8	16.395	8	0	11
2	3	24.781	5	10	12
2	4	35.696	11	9	13
1	2	53.889	0	12	0

군집의 수를 결정을 재확인을 위해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활용하였다. 그래프에서도 4개의 군집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군집의 수를 4개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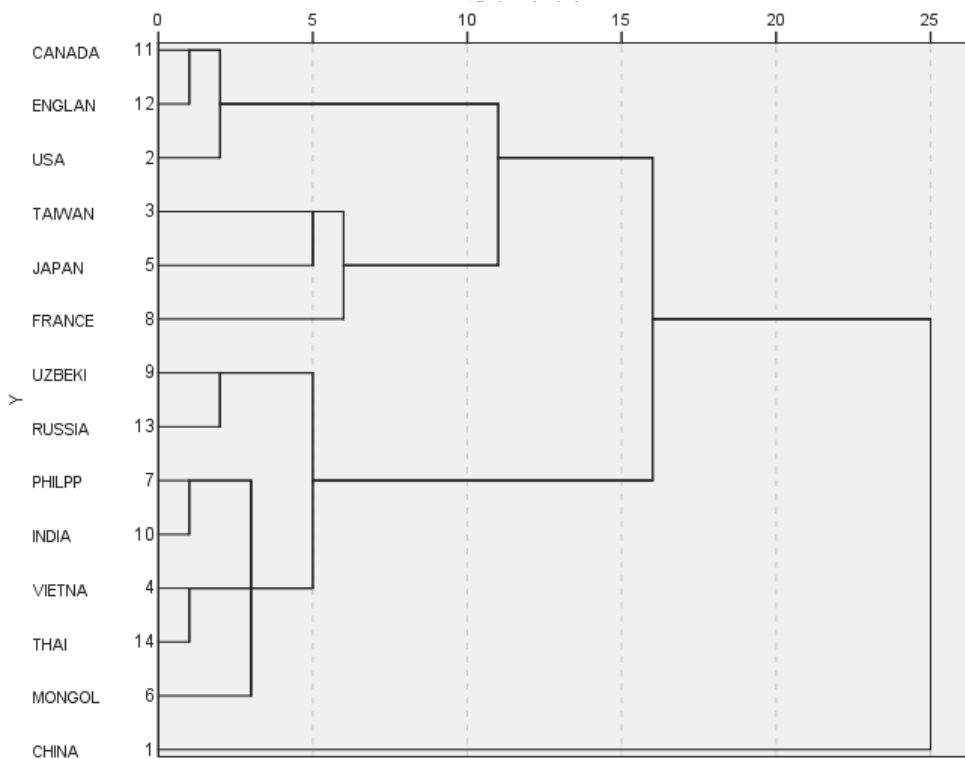


그림 20 집단 간 덴드로그램
계층별 군집분석 결과 형성된 4개의 군집에 소속된 국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군집 1은 중국만으로 분석되었다. 군집 2는 캐나다, 영국, 미국으로 분석되었으며, 군집 3은 대만과 일본, 프랑스로 분석되었다. 군집 4에는 필리핀, 태국, 인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러시아를 비롯해서 가장 많은 7개국으로 분석되었다.

표 30 비계층적 군집결과

구분	대상 국가
군집 1 : 1 개국	중국
군집 2 : 3 개국	캐나다, 영국, 미국
군집 3 : 3 개국	대만, 일본, 프랑스
군집 4 : 7 개국	필리핀, 태국, 인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러시아

(2) 비계층적 군집분석

4개 군집의 수를 최종 설정하고 각 군집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비계층적 분석인 K-means 분석을 하였다. K-means 군집방법은 어느 한 군집에만 속하도록 하는 상호배반적 군집방법으로 군집의 수(k)를 미리 결정하고 각 개체가 어느 군집에 속하는지 분석하는 방식으로 군집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³⁰⁾

$$X = C_1 \cup C_2 \cdots \cup C_K, \quad C_i \cap C_j = \phi$$

$$\arg \min_c \sum_{i=1}^K \sum_{x_j \in C_i} \|x_j - c_i\|^2$$

군집분석의 값의 수렴을 위해 반복 계산은 10회로 제한하였다. K-means의 분석표에서 나타난 F-검정법은 각 군집의 평균들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F값은 각 군집을 결정하는데 상대적 중요도를 의미한다. F값은 다른 변수의 F값과의 단순 비교

30) 나성호(2002), 고객 세분화를 위한 군집분석 기법 중 K-평균 군집분석과 코호넨 네트워크의 분류 성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학위논문

목적으로만 활용되었다. 또한, 유의확률을 통해 변수의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1차 군집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 1차 K-means 분석

ANOVA						
구분	군집		오차		F	유의확률
	평균제곱	자유도	평균제곱	자유도		
표준화 점수(IDV)	3.705	3	0.189	10	19.643	0.000
표준화 점수(UAI)	1.080	3	0.976	10	1.106	0.392
표준화 점수(PDI)	3.082	3	0.375	10	8.213	0.005
표준화 점수(MAS)	1.440	3	0.868	10	1.659	0.238
표준화 점수(LTV)	1.994	3	0.702	10	2.840	0.092
표준화 점수(GNI)	3.979	3	0.106	10	37.463	0.000
표준화 점수(IMM)	2.687	3	0.494	10	5.439	0.018
표준화 점수(AGR)	3.180	3	0.346	10	9.186	0.003
표준화 점수(IND)	2.917	3	0.425	10	6.868	0.009
표준화 점수(SER)	3.562	3	0.231	10	15.394	0.000
표준화 점수(ECO)	3.171	3	0.349	10	9.091	0.003
표준화 점수(SOC)	3.118	3	0.365	10	8.549	0.004
표준화 점수(PER)	4.321	3	0.004	10	1157.885	0.000
표준화 점수(MAR)	4.210	3	0.037	10	113.478	0.000
표준화 점수(HAB)	2.622	3	0.514	10	5.105	0.021

1차 군집분산 결과에서 9개의 변수가 유의확률을 만족하였고 6개의 변수가 유의확률 0.05 초과하여 일부 변수가 유의수준을 만족하

지 못하였다. 유의수준을 초과한 변수는 불확실성회피, 남성성-여성성, 장기지향-단기지향성, 이민자 비율, 제조업 종사비율, 주거지 분리 변수가 군집형성에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1차 분석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6개의 변수를 제외하고 9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2차 K-means 군집분석을 하였다.

표 32 2차 K-means 분석

ANOVA						
구분	군집		오차		F	유의확률
	평균제곱	자유도	평균제곱	자유도		
표준화 점수(IDV)	3.705	3	0.189	10	19.643	0.000
표준화 점수(PDI)	3.082	3	0.375	10	8.213	0.005
표준화 점수(GNI)	3.979	3	0.106	10	37.463	0.000
표준화 점수(AGR)	3.180	3	0.346	10	9.186	0.003
표준화 점수(SER)	3.562	3	0.231	10	15.394	0.000
표준화 점수(ECO)	3.171	3	0.349	10	9.091	0.003
표준화 점수(SOC)	3.118	3	0.365	10	8.549	0.004
표준화 점수(PER)	4.321	3	0.004	10	1157.885	0.000
표준화 점수(MAR)	4.210	3	0.037	10	113.478	0.000

2차 분석의 결과에서는 ANOVA 검증을 통해 9개 변수 모두 유의수준을 만족하였다. 최종 군집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3 최종 군집분석 결과 종합

구분	군집				F	유의확률
	1	2	3	4		
표준화 점수(IDV)	-0.979	1.708	-1.092	-0.259	19.643	0.000

표준화 점수(PDI)	0.584	-1.357	-0.483	1.215	8.213	0.005
표준화 점수(GNI)	-0.576	1.986	0.297	-0.926	37.463	0.000
표준화 점수(AGR)	0.136	-0.999	-0.854	1.757	9.186	0.003
표준화 점수(SER)	-1.008	1.546	-0.064	-1.287	15.394	0.000
표준화 점수(ECO)	-0.928	1.286	1.189	-1.409	9.091	0.003
표준화 점수(SOC)	-1.491	0.817	0.916	-1.491	8.549	0.004
표준화 점수(PER)	3.466	-0.170	-0.170	-0.322	1157.885	0.000
표준화 점수(MAR)	3.409	-0.471	-0.083	-0.083	113.478	0.000

최종 군집분석 결과 소속 군집이 최초의 비계층 군집분석과 차이를 보였다. 군집 1은 중국, 군집 2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군집 3은 대만, 일본, 군집 4는 베트남,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인도, 러시아, 태국으로 나타났다. 최초 군집분석에서는 프랑스가 군집 3에 해당하였는데 ANOVA 검증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6개의 변수를 제외하고 다시 K-means 군집분석을 한 결과 프랑스가 군집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표 34 군집별 국가 수

각 군집의 케이스 수		
군집	1	1.000
	2	4.000
	3	2.000
	4	7.000
유효		14.000
결측		.000

표 35 군집별 대상국가간 중심거리

소속군집			
케이스 번호	국가	군집	거리
1	CHINA	1	0.000
2	USA	2	0.954
3	TAIWAN	3	0.767
4	VIETNAM	4	1.366
5	JAPAN	3	0.767
6	MONGOL	4	1.315
7	PHILIPPINE	4	1.147
8	FRANCE	2	1.640
9	UZBEKISTAN	4	1.762

10	INDIA	4	1.279
11	CANADA	2	0.826
12	ENGLAND	2	0.788
13	RUSSIA	4	1.566
14	THAI	4	1.357

군집 간 중심거리는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가 소속된 군집 2와 대만, 일본이 소속된 군집 3이 2.372로 가장 가까운 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군집 간 상대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분석되었다. 다음은 대만, 일본이 소속된 군집 3과 필리핀, 태국, 인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러시아가 소속된 군집 4가 중심간 거리 3.474로 분석되었다. 반면 중국이 소속된 군집 1과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가 소속된 군집 2는 7.476으로 중심거리가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나 군집 간 특성이 가장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6 군집 중심간 거리

최종 군집중심간 거리				
군집	1	2	3	4
1		7.476	6.337	5.405
2	7.476		2.372	4.764
3	6.337	2.372		3.474
4	5.405	4.764	3.474	

표 37 최종 군집분석 결과

구분	대상 국가
군집 1 : 1 개국	중국
군집 2 : 4 개국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
군집 3 : 2 개국	대만, 일본
군집 4 : 7 개국	필리핀, 태국, 인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러시아

2.3 이주민 공동체 변수 특성

각 유형의 특성 영역별 지표 값의 표준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각 변수의 표준편차의 값이 커 군집 간 특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에서 군집마다 변수별 주요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38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표준화)		군집요인	군집				평균 (n=14)	표준 편차
			1 (n=1)	2 (n=4)	3 (n=2)	4 (n=7)		
이주국 지표	문화 가치	개인주의-집단주의	-0.979	1.708	-1.092	-0.259	-0.156	1.296
		권력거리	0.584	-1.357	-0.483	1.215	-0.010	1.139
	사회 자본	1인당 GNI	-0.576	1.986	0.297	-0.926	0.195	1.300
		농업 종사비율	0.136	-0.999	-0.854	1.757	0.010	1.269
		서비스업 종사비율	-1.008	1.546	-0.064	-1.287	-0.203	1.278
		경제 자유도	-0.928	1.286	1.189	-1.409	0.035	1.403
		사회 자유도	-1.491	0.817	0.916	-1.491	-0.312	1.362
체류국 지표	체류 현황	체류인구	3.466	-0.170	-0.170	-0.322	0.701	1.845
		이주민 경제	3.409	-0.471	-0.083	-0.083	0.693	1.820

(1) 문화 가치 변수

문화 가치 변수 중 개인주의-집단주의는 F값이 19.643으로 다른 변수에 비해 높게 나타나 군집형성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표준편차도 1.296으로 군집 간 특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거리는 F값이 8.213으로 다른 변수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표준편차도 1.139로 낮아 개인주의보다는 군집 형성에 영향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9 문화가치 변수 군집요인

군집요인		개인주의-집단주의		권력거리	
		표준화수	평균점수	표준화수	평균점수
cluster 1	(n=1)	-0.979	20	0.584	80
cluster 2	(n=4)	1.708	82.75	-1.357	45.5
cluster 3	(n=2)	-1.092	14.5	-0.483	56
cluster 4	(n=7)	-0.259	32.57	1.215	82.5
F		19.643		8.213	
유의확률		0		0.005	

개인주의-집단주의 변수는 군집 2가 평균 82.75점(1.708)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분석되었고 개인주의가 매우 강한 문화를 가진 국가로 분석되었다. 반면 군집 1과 군집 3은 각각 20점(-0.979), 14.5점(-1.092)으로 상당히 낮은 점수로 분석되었고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국가로 분석된다. 군집 4도 32.57점(-0.259)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있는 국가들로 분석되었다.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군집 2는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며 북미와 서유럽의 국가들이 이러한 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국가들은 사회에서 개인의 이익과 행동에 대해 구속력이 느슨한 편이고 개인들은 가족을 우선시한다. 반면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군집 1과 군집 3은 아시아권 국가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집단내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주민 공동체의 경우 같은 국가 출신의 이주민간의 유대감으로 내국인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며 집단거주지를 형성하려고 한다. 이주민 경제를 발전시키고 출신국과 유사한 거주환경을 형성하려고 하며 자국내 가족과 친족 등을 국내로 이주시키려고 한다.

권력거리 변수의 경우 군집 4와 군집 1이 각각 82.50점(1.215),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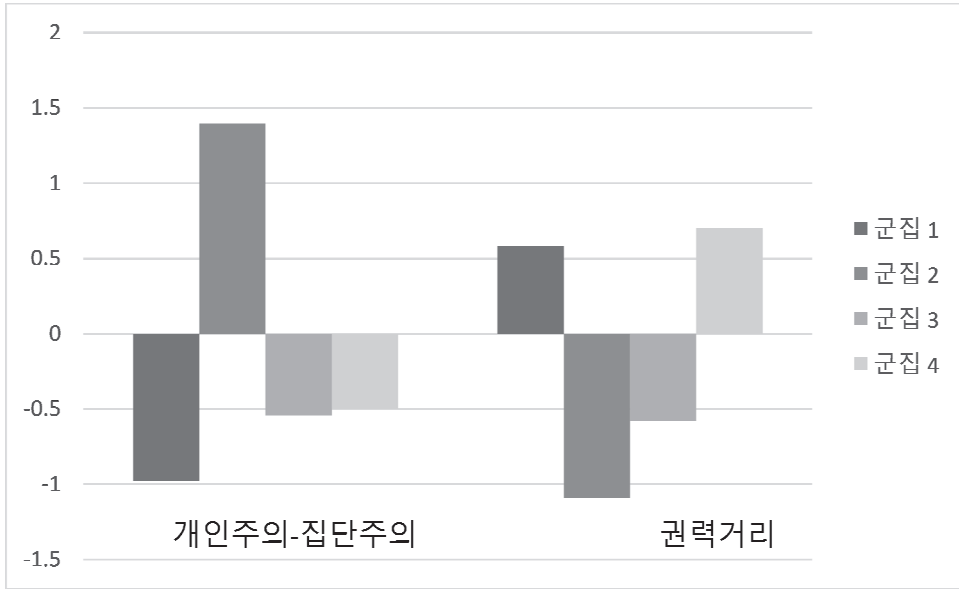


그림 21 군집 간 개인주의-집단주의와 권력거리

점(0.584)으로 높게 나타나 권력거리 점수가 높은 국가들로서 권력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성향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 2는 45.5점(-1.09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권력에 수긍하거나 이해하기보다는 평등한 관계로 보고 권력에 대해 수평적 사고를 하는 국가로 분석되었다. 군집 3은 56점(-0.58)으로 상대적으로 중앙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1인당 GNI

국가별 1인당 GNI의 군집 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 F값이 37.463으로 앞서 언급한 문화 가치 변수 중 개인주의-집단주의 변수보다 높고 사회변수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군집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표준편차도 1.300으로 군집 간 특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1인당 GNI 변수 군집요인

군집요인		1인당 GNI	
		표준화수	달러(평균)
cluster 1	(n=1)	-0.576	9,460
cluster 2	(n=4)	1.251	47,718
cluster 3	(n=2)	0.618	34,343
cluster 4	(n=7)	-0.809	4,390
F		37.463	
유의확률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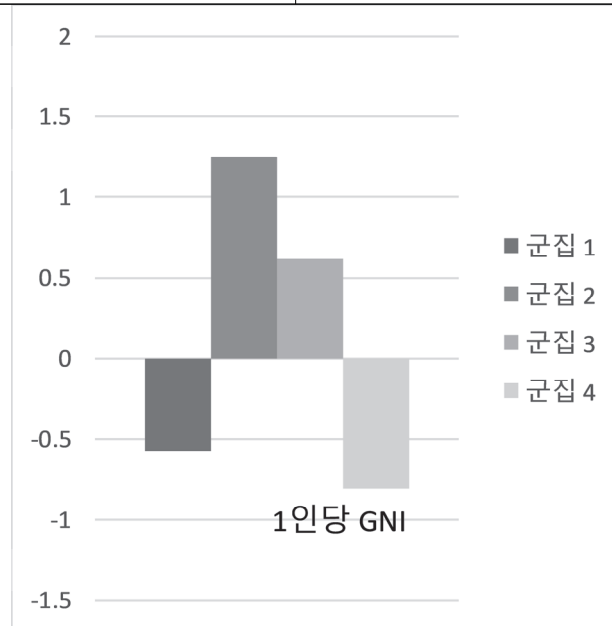


그림 22 군집간 1인당 GNI

국가별 1인당 GNI의 변수의 경우 군집 2가 47,718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군집에 소속된 국가의 개인 평균 수입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집 3도 34,343달러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군집 1과 군집 3은 각각 9,460달러, 4,390달러로 군집 1의 약 1/5, 1/10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별 종사비율

산업별 종사자 비율에서 군집화에 유의미한 수치는 농업 종사비율과 서비스업 종사비율이다. 제조업의 비율은 군집화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제외하였다. 산업별 종사자 비율 중 서비스 종사비율의 F값이 15.394로 높게 나타났고 농업 종사비율은 9.186으로 나타나 서비스업 종사비율이 국제이주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준편차는 각각 1.269, 1.278으로 두 변수 모두 군집 간 특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산업별 종사자 비율 변수 군집요인

군집요인		농업 종사비율		서비스업 종사비율	
		표준화수	평균비율	표준화수	평균비율
cluster 1	(n=1)	0.1355	27.70	-1.00786	51.60
cluster 2	(n=4)	-0.94677	1.23	1.28086	77.05
cluster 3	(n=2)	-0.91029	1.45	0.23318	65.40
cluster 4	(n=7)	0.78173	11.89	-0.65456	55.53
F		9.186		15.394	
유의확률		0.003		0	

농업 종사비율은 군집1이 27.70%(0.13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농경을 포함한 1차 산업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4의 경우 11.89%(0.782)로 군집 1보다는 다소 낮지만, 군집 2, 군집 3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1차 산업노동자 비율이 높다고 분석할 수 있다.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으로 1차산업의 종사자 비율이 높은 국가의 이주자들은 취업에 있어 단순 노동의 유형으로 이주를 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군집 2와 군집 3은 각각 1.23%(-0.947), 1.45%(-0.910)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종사비율은 국가별로 50 ~ 70% 분포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종사비율은 군집 2가 77.05%(1.28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 군집의 국가들은 1, 2차 산업노동자 합친 수의 3배 이상이 서비

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문성이 높은 직군의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군집 1과 군집 4는 각각 51.60%(-1.008), 55.53%(-0.6555)로 군집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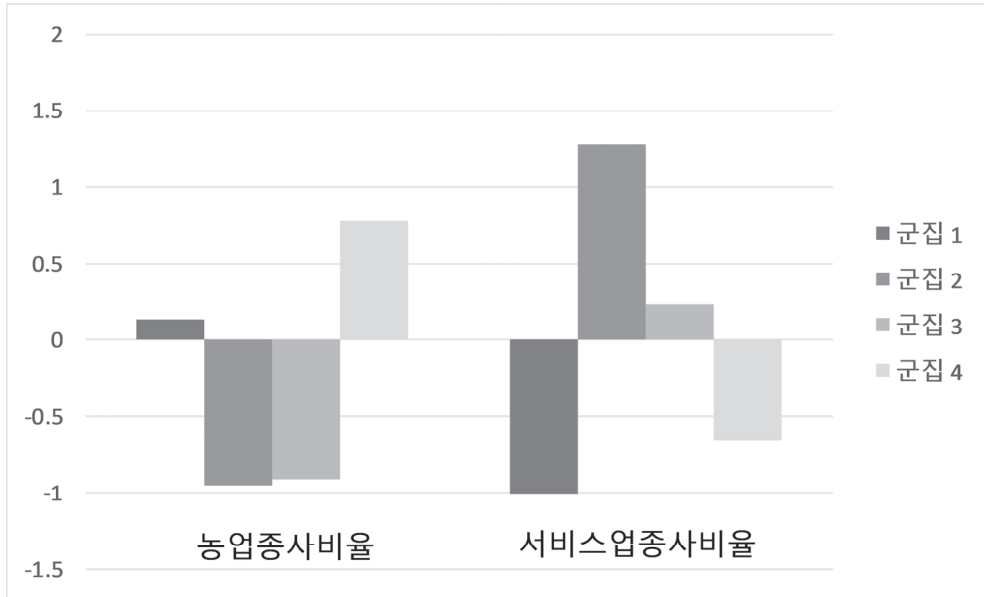


그림 23 군집간 산업별 종사비율

(4) 정치성향

정치성향은 경제 자유도와 사회 자유도 변수를 활용하였다. 보수 성향의 국가는 매우 높은 경제 자유도를 보이며 사회적 자유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진보성향의 국가는 매우 높은 사회 자유도를 보이지만 낮은 경제 자유도를 보인다. (Wilson, 2019) 두 변수 F값은 각각 9.091, 8.549로 다른 변수보다 군집 분류에 영향이 낮게 나타났다. 경제 자유도는 군집 간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사회 자유도는 군집 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각각 1.403, 1.362로 두 변수 모두 군집 간 특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정치성향 변수 군집요인

군집요인		경제 자유도		사회 자유도	
		표준화수	평균점수	표준화수	평균점수
cluster 1	(n=1)	-0.928	61	-1.491	17
cluster 2	(n=4)	0.973	81	0.900	89
cluster 3	(n=2)	0.901	80	0.916	90
cluster 4	(n=7)	-0.681	64	-0.562	45
F		9.091		8.549	
유의확률		0.003		0.004	

경제 자유도 변수의 경우 군집 2와 군집 3이 각각 81점, 80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경제 활동이 자유로우며 부의 축적과 사용이 자유롭다. 반면 군집 1과 군집 4는 각각 61점, 64점으로 분석되어 경제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중국, 베트남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이거나 개발도상국으로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지며 부의 축적이 국가에 의해 제한된다. 이들은 경제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낮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도가 낮은 국가의 이주민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미래에 대한 대비에 소극적인 편으로 가진 돈을 다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이주 후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계층의 이동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회 자유도는 군집 3과 군집 2가 각각 90점, 89점인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국가의 제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반면에 군집 1은 17점으로 군집 2, 군집 3보다 상당히 낮아 개인의 사회활동에 대해 일정 부분 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군집 4는 45점으로 중간점으로 개인의 활동을 국가가 일부 제재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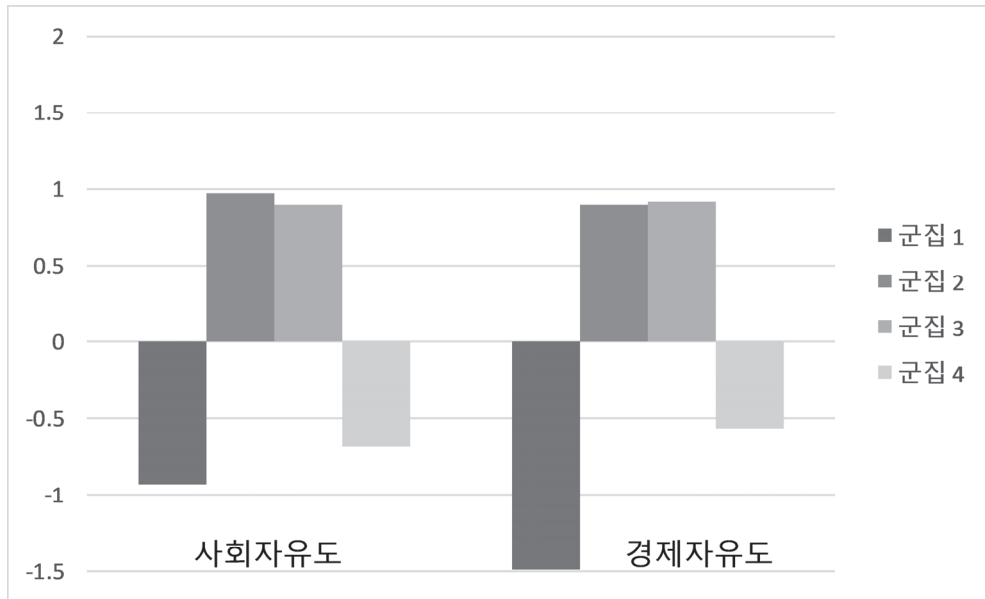


그림 24 군집간 사회자유도-경제자유도

(5) 체류 현황

체류 현황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체류 현황 변수인 체류 인구와 이주민 경제의 F값이 각각 1157.885, 113.47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두 변수 모두 외국인 밀집지역 군집 분류에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표준편차는 각각 1.845, 1.820으로 두 변수 모두 군집 간 특성의 차이가 변수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체류현황 변수 군집요인

군집요인	cluster 1 (n=1)	cluster 2 (n=4)	cluster 3 (n=2)	cluster 4 (n=7)	F	유의확률
체류인구	3.46648	-0.28414	-0.17048	-0.28414	1157.885	0
이주민 경제	3.40879	-0.37413	-0.08314	-0.24942	113.478	0

체류 인구의 변수는 군집 1, 중국이 다른 군집의 5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과 근접해 물적·인적자원의 교류가 가장 많으며 한국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한국계중국인이 포함되었으

며 이들 교포를 위한 완화된 체류자격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체류 인구수가 많아지면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의 기회가 많아지고 이주민 경제 형성의 기회가 많아지며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커지며 이주국에 대한 영향력도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군집 2와 군집 4는 체류 인구가 각각 평균 3633.25명, 3448.14명으로 나타나 다른 군집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체류현황 지수 표준화

군집요인		체류인원		이주민 경제	
		표준화수	평균인구(명)	표준화수	평균점수
cluster 1	(n=1)	3.466	196,181.00	3.409	5.00
cluster 2	(n=4)	-0.284	3633.25	-0.374	0.13
cluster 3	(n=2)	-0.170	8427.50	-0.083	0.50
cluster 4	(n=7)	-0.284	3448.14	-0.249	0.29
F		1157.885		113.478	
유의확률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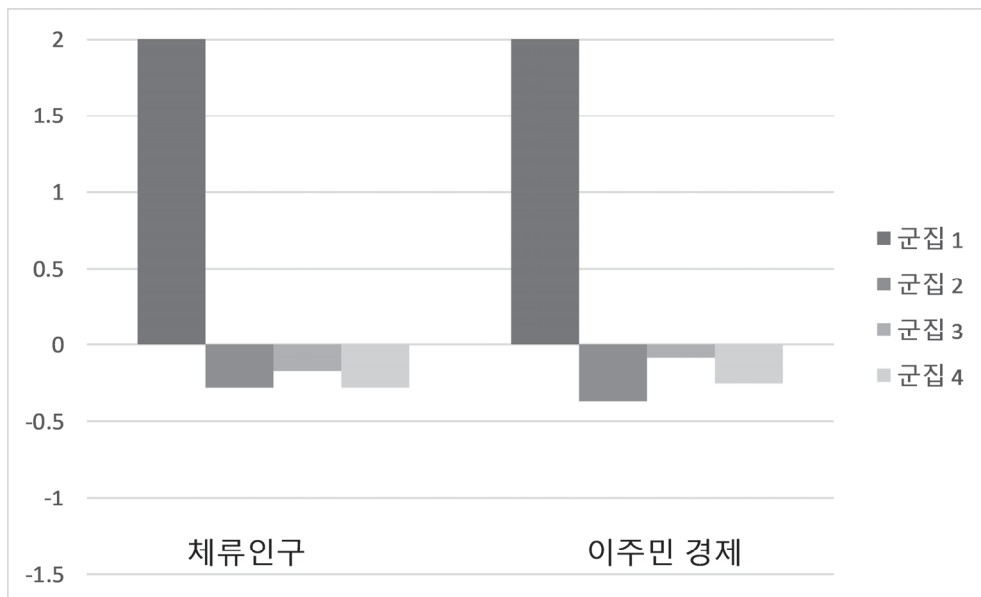


그림 25 군집간 체류인구-이주민경제

이주민 경제는 국가별 이주민 경제가 일어나는 상업가로 유무를 확인한 것으로 가로의 규모와 상가의 양에 따라 정하였다. 군집 1은 이주민 경제 상업가로의 규모가 가장 크고 많으며, 상가 수가 가장 많았다. 군집 3은 0.50점으로 중소규모의 이주민 경제 상업가로는 존재하였다. 군집 2는 0.13점으로 이주민 경제 상업가로는 일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4 외국인 밀집지역 분석

권력거리 성향이 높은 유형 1과 유형 4는 사회 내부의 불평등을 인식하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정도가 크다. 그리고 수평적 관계보다 수직적 관계를 선호하는 편이다. 이들은 사회계층별 불평등을 인정하고 수긍한다.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그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거, 교육 등에 대한 기회가 불만족스럽더라도 주어진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그 상황을 인정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일부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부족한 교육환경에도 환경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반면에 유형 2와 유형 3은 권력거리 성향이 낮은 편으로 사회에서 수평적 관계를 기반을 둔 상호의존 관계를 선호한다. 실용적인 것에 기반을 두며 합리적 사고를 하는 편이며 조세제도를 통해 계층별 수입 분포의 불균형도 적은 편이다. 이들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만족스러운 지역에 거주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 가치 변수인 개인주의-집단주의 변수와 권력거리 변수는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권력거리 변수가 높은 점수를 받은 유형 1과 유형 4는 낮은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권력거리가 낮은 유형 2는 개인주의 성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Hofstede는 이러한 현상을 가족의 구성으로 분석하였는데,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국가는 핵가족으로 구성된 비율이 높고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국가는 대가족으로 구성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비교하면서 상관성을 입증하였다.

각 유형 간 1인당 GNI는 유형 1과 유형 4의 경우는 국제이주이론에서 압출-흡입이론과 신이주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경제적 기회와 여건이 더 나은 국가로 이주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는 이주체계론적 의미로 국가 간 이주 흐름의 체계를 경제적 여건 배경 요인으로 노동력을 지속해서 송출하고 이주국에서는 이러한 유입을 수용하는 관계를 맺은 것으로 분석도 가능하다. 낮은 소득으로 인해 거주지를 저렴한 지역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유형 2와 유형 3의 경우는 반대의 경우로 노동력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주요 국제이주이론보다 새로운 경험과 기회 또는 기존 산업 인프라의 관리를 위해 찾아오는 이주민들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 종사비율이 높은 유형 1과 유형 4는 아시아권 개발도상국과 러시아가 속해있다. 고차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인 저임금 1차 산업종사자가 많은 국가로서 국제이주를 유발하는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의 서비스업 비율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질 또한 차이가 있다.

농업 비율이 낮은 유형 2와 유형 3은 선진국의 북미지역과 서유럽 국가, 대만, 일본이 속해있다. 과거 산업시대가 지나가고 현재 3차, 4차 산업이 발달하여 3, 4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국가로서 노동에 의한 경제적 이주를 유발하는 요인이 적다.

유형 1과 유형 4는 보수적 정치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 간 비교에서는 경제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평균점수는 중간 이상으로 상위 그룹에 속하며 사회자유도는 하위 그룹에 속해 보수적 성향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유형 2와 유형 3은 보수와 진보를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사회 자유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으로 보인다.

이주민 경제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단계는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이주민 공동체 위주의 커뮤니티가 발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체류 인구와 이주민 경제의 지수가 높은 유형 1은 이미 국내에서 상당히 성장한 이주민 공동체 규모와 외국인 밀집지역을 형성하였고 지금도 발전하고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경제적 자산은 그들 집단거주지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후 영구 정착지 형성과 집단의 정치 참여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유형 3도 유형 1처럼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유형 2는 집단거주지 형성과 발전, 이주민 경제 발전 등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형 4도 유형 2와 유사하지만, 이주민 경제가 일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성장 가능성이 있다.

각 유형 간 1인당 GNI는 유형 1과 유형 4의 경우는 국제이주이론에서 압출-흡입이론과 신이주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경제적 기회와 여건이 더 나은 국가로 이주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는 이주체계론적 의미로 국가 간 이주 흐름의 체계를 경제적 여건 배경 요인으로 노동력을 지속해서 송출하고 이주국에서는 이러한 유입을 수용하는 관계를 맺은 것으로 분석도 가능하다. 낮은 소득으로 인해 거주지를 저렴한 지역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유형 2와 유형 3의 경우는 반대의 경우로 노동력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주요 국제이주이론보다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찾거나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사업의 관리 또는 확장을 위한 이주민이 많다.

농업 종사비율이 높은 유형 1과 유형 4는 아시아권 개발도상국과 러시아가 속해있다. 고차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인 저임금 1차 산업종사자가 많은 국가로서 국제이주를 유발하는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의 서비스업 비율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질 또한 차이가 있다.

농업 비율이 낮은 유형 2와 유형 3은 선진국의 북미지역과 서유럽 국가, 대만, 일본이 속해있다. 과거 산업시대가 지나가고 현재 3차, 4차 산업이 발달하여 3, 4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국가로서 노동에 의한 경제적 이주를 유발하는 요인이 적다.

유형 1과 유형 4는 보수적 정치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 간 비교에서는 경제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평균점수는 중간 이상으로 상위 그룹에 속하며 사회자유도는 하위 그룹에 속해 보수적 성향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유형 2와 유형 3은 보수와 진보를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사회 자유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을 보인다.

이주민 경제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단계는 이미 일정규모 이상의 이주민 공동체 위주의 커뮤니티가 발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체류 인구와 이주민 경제의 지수가 높은 유형 1은 이미 국내에서 상당히 성장한 이주민 공동체 규모와 외국인 밀집지역을 형성하였고 지금도 확장하고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경제적 자산은 그들 집단거주지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후 영구 정착지 형성과 집단의 정치 참여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유형 3도 유형 1처럼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유형 2는 집단거주지 형성과 발전, 이주민 경제 발전 등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형 4도 유형 2와 유사하지만, 이주민 경제가

일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림 26 유형 1 이주민공동체 지수



그림 27 유형 2 이주민공동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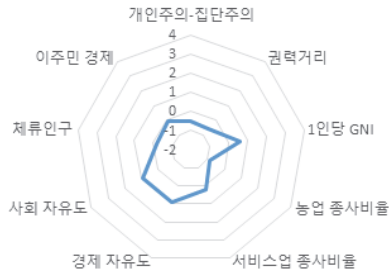


그림 28 유형 3 이주민공동체 지수



그림 29 유형 4 이주민공동체 지수

제 5 장 이주민 공동체와 도시건축 환경 연관성 고찰

4장에서는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특성을 고찰한다. 우선 체류국 한국과 이주민 공동체 변수 비교를 통해 유형별 공동체의 성향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유형별 이주민 공동체 변수가 외국인 밀집지역 도시·건축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였다.

도시·건축 환경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거주환경 요소를 선정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거주환경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크게 3가지를 중점으로 확인하였다. 첫째, 거주환경으로 거주환경의 질과 관련된 사항인 지역별 인구밀도, 거주유형, 4m미만도로, 정비구역, 대중교통 접근성, 출신국과 유사한 환경, 체류 외국인 수를 확인하였다. 둘째, 지역 커뮤니티로 지역의 특성과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주민 공동체의 체류유형과 종교 및 행사, 체류 지역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로 이주민 밀집지역의 형성 원인과 체류 이유와 특성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유형별 지역의 사업체 밀도, 이주민 경제, 상업시설 용도 비율을

알아보았다.

선정한 거주환경 요소의 측정은 동일한 유형에서도 다수의 외국인 밀집지역이 존재하지만, 유형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과 지역마다 측정되는 요소의 평균값을 거주환경 특성 고찰에 활용하였다.

거주환경	인구 밀도, 거주 유형, 4m미만도로, 정비구역, 접근성, 출신국 유사환경, 체류외국인
커뮤니티	체류 유형, 지역별 특성, 종교 및 행사
지역경제	사업체밀도, 이주민 경제, 상가 용도

그림 30 거주환경 요소

1. 유형 1

1.1 이주민 공동체 특성

유형 1의 이주민 공동체 특징은 한국과 비교해 집단주의 성향이 조금 높으며, 권력거리 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보다는 같은 국가의 이주민과 집단거주하려는 특성이 있으며 공동체 내부에 어떠한 규범이나 규칙 또는 흐름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르려는 성향이 있다. 또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수긍하려는 성향이 있어 스스로 환경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인당 GNI 차이도 한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 경제적 목적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농업의 종사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은 특별한 기술력 없이 종사할 수 있는 단순노동자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으로 산업단지와 농어촌 등의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도는 한국에 비교해서 조금 낮으며 사회적 자유도는 상당한 차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유도가 낮은 것으로 돈의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사회적 자유도가 낮은 것은 새롭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보다는 주변의 상황에 맞춰서 생활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 보인다. 유형 1 이주자는 자립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변 거주환경에 따라 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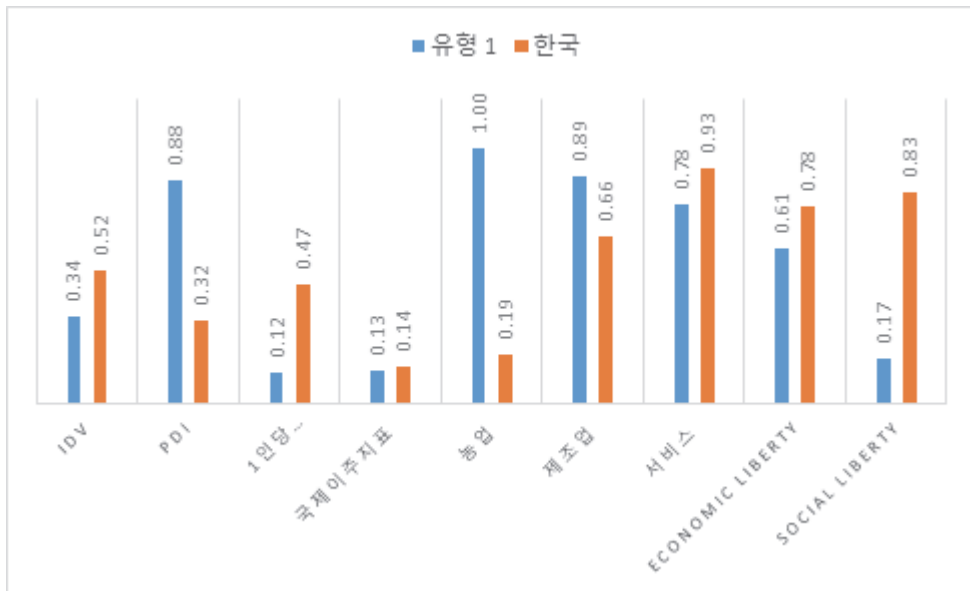


그림 31 유형 1 이주민 공동체 특성

1.2 도시건축 환경

(1) 거주환경

유형 1에 해당하는 국가인 중국은 자양4동, 신대방1동, 창신2동, 신당동, 대림2동, 가리봉동, 신정3동, 구로2동 등 산업단지 주변에 집단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29,917.13명/km²로 과밀지역에 속한다.³¹⁾

거주유형은 아파트 비율이 52.52%로 가장 많으며, 단독주택이 26.50%, 다세대주택이 18.75%, 연립주택이 2.74%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 73.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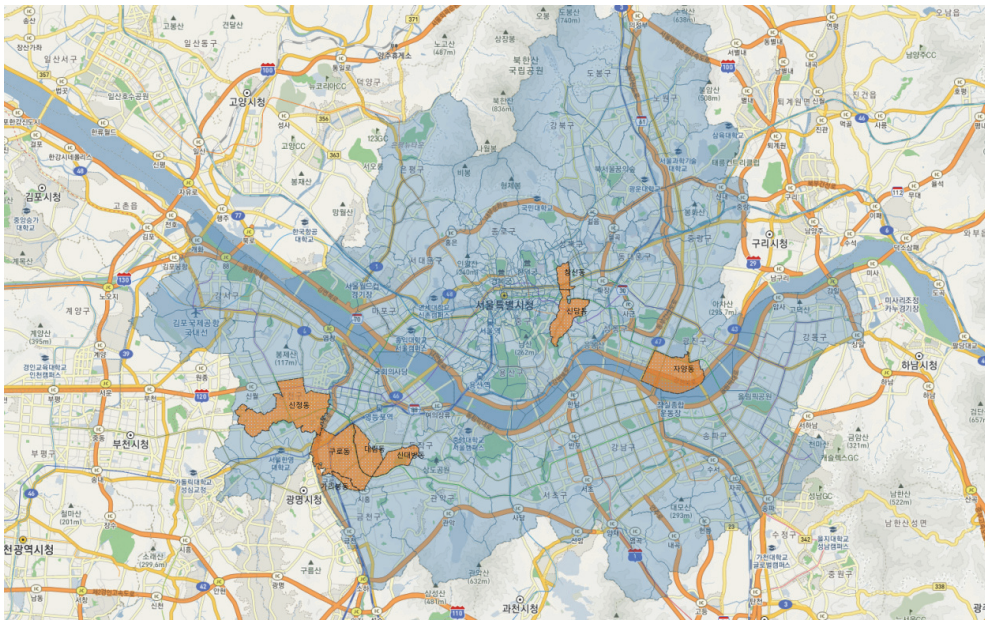


그림 32 유형1 밀집지역 분포

지역내 도로는 6m미만의 지역내부로가 많았으며 특히 주거지역 내부에는 4m 미만의 도로가 많아 지역내부 차량 이동이 불편하며, 보차 분리가 되지 않아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주택단

31) 2016년 기준 서울시 평균 인구밀도 : 16,861명/km²

지가 많아 개별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노상, 노외 주차장과 같은 공용주차장도 충분하지 않아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대림동 노후주택

자양동, 신당동, 신정동, 가리봉동, 구로동 등의 지역은 주택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이 중 일부 지역에서는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인 지역으로³²⁾ 현재 거주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지역들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여 도심지나 도시 외곽으로의 대중교통도 발달하여 서울시내외로 접근성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1의 집단거주지와 이주민 경제 상권 시설의 대부분 간판은 한자(간체자)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한글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부 영어로 된 간판이 있으나 많지 않다. 대부분 음식점과 소매점에서는 중국어 사용이 가능하였고 한글도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였다. 일부 직원은 한국어가 어색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건물 파사드와 내부공간에서 출신국의 전통적 양식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이주민 경제 상권은 이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대부분 이주민이 이용하고 있었다.

32) 권영선(2018), 서울시 주택노후도 현황분석 및 시사점, 주택산업연구원



그림 34 대림동 차이나타운 옥외광고물

유형 1의 체류 외국인인 2016년 기준 196,181명으로 다른 유형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한국계중국인의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 커뮤니티

체류유형은 방문취업(H02)이 44.45%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주권(F05)을 가진 비율이 19.42%, 유학생(D02)이 9.80%로 나타났다. 유형 1은 취업과 관련된 유형이 많아 대부분의 거주지가 산업단지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 국제종교 자유위원회 등 다수의 단체에서는 중국인은 종교에 대해 탄압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2015년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90% 이상이 무신론자로 나타났지만, 일부 중국인들은 선교사와 목사, 신부 등에 의해 교회와 성당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공동체에서는 그들을 위한 일부 시설이 존재하며 이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도움을 주려는 행사도 일부 개최되고 있다.

중국의 전통 4대 명절(청명, 단오, 중추, 춘절) 중 가장 큰 명절인 춘절에 중국 이주민들은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대림동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춘

절에 관련된 식품이 판매되거나 상점과 길거리에 춘절을 알리는 홍보물 정도 붙여져 있다. 일부 홍등으로 가로를 장식하기도 한다. 한국으로 온 중국 관광객과 일부 중국 체류자가 음식점과 식품점을 방문한다. 중국인을 위한 행사는 영등포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대규모 행사가 있고 민간단체, 종교단체에서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소규모 행사가 있다.



그림 35 차이나는 대림문화축제



그림 36 춘절 전통 장식품

(3) 지역 경제

유형 1 지역의 평균 사업체 밀도는 4,705개/km²로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³³⁾ 특히 지역내 이주민 경제가 상당히 발달하였다. 유형 1의 이주민 경제 상권은 대림동 차이나타운, 자양동 차이나타운, 봉천동 차이나타운, 독산동 차이나타운, 신길동 차이나타운 등 여러 지역에 출신국과 관련된 식품점과 음식점, 소매점, 서비스시설 등으로 분산되어 발달하였다. 이주민 상업시설은 대부분 외국인 밀집지역에 내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이주민의 이용도가 높아 계속해서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2018년 기준 서울시 평균 사업체 밀도 : 1,360개/km²



그림 37 대림동 차이나타운 상가

(4) 종합

유형 1의 국내 거주환경 특성은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 주변에 위치해 인구밀도가 높고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노후주택의 비율이 높다. 도시환경정비 지역이나 재개발사업이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공간을 찾으면서 노후주택이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형 1은 이주민 경제가 발달했으며, 주변에 재래시장 인근에 있다. 또, 사업체 밀도가 높은 곳으로 이주민 경제 상업시설과 산업단지 주변에 일할 기회가 많은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1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 도시내외부로 이동이 편리한 지역이다. 반면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모두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4m 미만의 도로 비율이 높아 통행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변에 공원이나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1은 종교와 행사가 다양하지 않으며 관련된 시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행사에서는 내국인과 화합이나 이주민의 문화를 홍보하기보다는 이주민 자신들을 위한 행사로 분석되었다.

표 45 유형 1 거주환경 특성

구분	유형 1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비율이 높음 • 노후주택 비율이 높음
거주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밀도가 높음 • 도시환경정비 지역, 재개발 등 열악한 환경
상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경제 발달 • 대형시장 인근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m 미만의 도로 비율이 높음 • 비교적 평지 • 공원 부족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밀도가 높음 (4,705개/km²)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한 대중교통 (지하철/버스정류장) • 주차공간 부족 (상업, 주거지역)
공간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주변 • 도시외부로 이동이 용이
종교 및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와 행사가 적은편 • 출신국 사람들을 위한 축제
주요 지역	자양4동, 신대방1동, 창신2동, 신당동, 대림2동, 가리봉동, 신정3동, 구로2동

2. 유형 2

2.1 이주민 공동체 특성

유형 2의 이주민 공동체 특징은 한국과 비교해 개인주의 성향이 상당히 높으며, 권력거리 지수도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국가의 이주민과 내국인을 차별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불평등한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권력에 대해서 수평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처한 상황에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즉시 의견을 내고 그러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노

력을 한다.

1인당 GNI는 한국보다 높아 취업을 위해서 한국을 왔기보다는 외교관이나 주재원, 유학 등의 목적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의 비율이 상당히 낮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에 종사하는 비율도 한국과 비슷해서 이주의 목적이 취업과는 거리가 있다. 경제적 자유도와 사회적 자유도는 한국과 비슷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조건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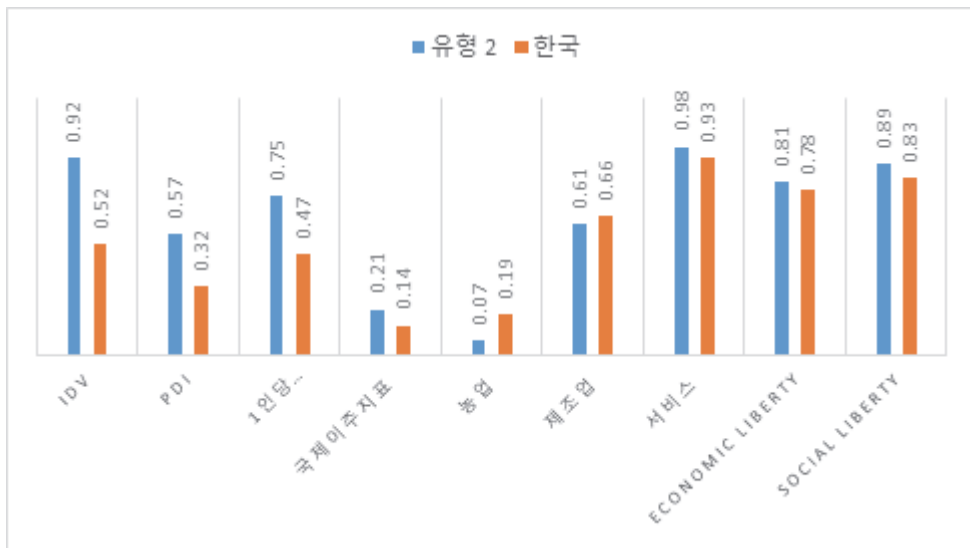


그림 38 유형 2 이주민 공동체 특성

2.2 도시건축 환경

(1) 거주환경

유형 2에 해당하는 국가는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로 신촌동, 연희동, 반포4동 등에 외국인학교와 대학교 인근에 집단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인구밀도가 12,254.33명/km²으로 저밀지역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은 아파트 비율이 37.67% 가장 많았으나 다른 유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주택이 31.45%로 나타났다. 연희동의

노후 주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곳에 거주하는 이주민 대부분이 유학생으로 대부분 기숙사에 거주하여 거주환경과 직접적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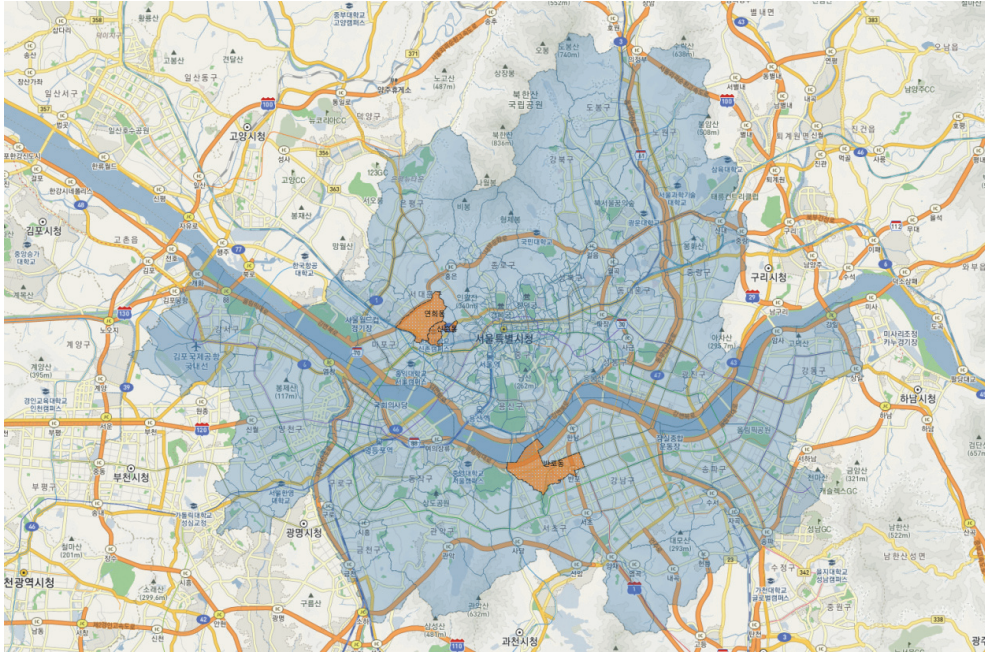


그림 39 유형 2 밀집지역 분포

지역내 도로는 6m미만 지역내부로가 많았으나 지역내 차량 이동이 원활하였고 보차 분리가 되어있어 보행자는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였다. 대부분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에 주차장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주거지역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으며 상업가로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된 차량이 일부 있었다.



그림 40 반포4동 고급빌라

연희동 일부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일부 거주환경이 열악하지만, 이주민 거주지와는 분리되어 있어 이주민 공동체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2는 대학교 인근과 외국인학교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 인접하여 도심지와는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에 강과 산, 공원 등에 인접하여 있다.

유형 2는 이주민 경제 상권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으나 프랑스인 밀집지역에서 이주민과 관련된 음식점과 식품점 등으로 일부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 도로가 형성되어 접근성이 우수하고 이용도도 높으나 규모가 크지 않으며 한국 상업시설과 혼재되어 독자적인 이주민 경제 상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림 41 반포4동 서래마을 상가

유형 2의 체류 외국인은 평균 3,633.25명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국내 체류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 커뮤니티

체류유형은 회화지도(E02)가 21.40% 가장 많았고 결혼이민(F06)이 11.08%, 유학생(D02)가 10.06%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화지도와 유학생의 비중이 높아 대학교 인근에 집단거주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외국인학교 인근으로 거주지가 형성되어 자녀들의 통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며 백화점과 대형상가가 인근에 있어 편리한 생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공원과 광장이 많아 주거환경의 질을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 2의 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일부 이슬람교, 유대교 등이 있다. 대학가 주변에 일부 교회에서 영어, 프랑스 예배가 있고, 교포나 영미권 출신을 위한 미국 교회가 있으나 이 들만을 위한 종교시설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 2에 해당하는 국가 중 영미권 국가를 위한 정기적인 행사는 많지 않았다. 프랑스는 프랑스학교를 중심으로 가장행렬 행사와 3월에 ‘프랑코포니(Francophonie)’ 7월에 ‘프랑스대혁명 기념축제’, 가을에 있는 ‘반포서래 한불음악축제’, 12월에 ‘프랑스 크리스마스 전통마켓’ 등 다양하게 열린다. 이러한 축제는 프랑스인만을 위한 축제라기보다 자신들의 문화를 한국에 알리며 더불어 어울릴 수 있는 행사로 보인다.



그림 42 서울내 프랑스 행사

(3) 지역 경제

유형 2는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영어권 국가로 서울 도심지에서는 대부분 음식점과 식품점, 서비스시설에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편이

며, 간판과 메뉴 등이 영어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밀집지역 대부분 상업시설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음식점과 식품점에서 프랑스어 간판이 설치되어있다. 일부 레스토랑과 상점, 부동산, 은행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시설이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프랑스인의 비율이 낮아 그런 것으로 보인다. 반포4동은 프랑스인이 밀집하여 거주하지만, 대부분 시설은 프랑스인을 위하기보단 내국인을 위한 시설로 보인다.



그림 43 서래마을 옥외광고물

이 지역은 사업체 밀도가 1,560개/km²로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1과 달이 지역내 이주민 경제의 규모가 작거나 존재하지 않고 유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밀집지역 형성에 일자리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4) 종합

유형 2의 국내 거주환경은 다음과 같다. 백화점과 대학교 주변에 위치하고 인구밀도가 낮으며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일부 지역에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관리가 잘되어 거주

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양호한 거주환경의 도심지역으로 주거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주민 경제는 일부 국가에만 작은 규모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주민들의 취업을 위한 것은 아니며 이주민과 내국인이 같이 이용 가능한 음식점과 식료품점 정도로 나타났다.

유형 2의 거주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편이며 대학교, 백화점, 외국인학교가 인근에 있다. 사업체밀도는 높으나 이주민을 위한 사업체는 아니며, 백화점과 변화가 인근으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4m 미만의 도로 비율이 낮으며 주변에 공원과 광장이 많아 거주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이주민을 위한 종교시설은 없으나, 행사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개최되는 행사는 이주민만을 위하기보다 내국인과 함께 즐기고 화합하며 이주민 문화를 알리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표 46 유형 2 거주환경 특성

구분	유형 2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와 다세대주택(빌라) 비율이 높음 • 일부지역 주택의 노후도가 높음(관리잘됨)
거주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밀도가 낮음 • 일부 지역에 재개발 진행중 • 거주환경은 대체로 양호함
상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경제 일부 형성 • 백화점 인근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m 미만의 도로 비율이 낮음 • 비교적 평지 • 공원이 많음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밀도가 약간 높음 (1,560개/km²)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한 대중교통 (지하철/버스정류장) • 주차공간 부족 (상업지역)

공간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주변 • 학교, 대학가 주변 • 도심지로 이동이 용이
종교 및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 시설은 적음 • 다양한 행사 열림 • 출신국 사람들과 내국인 모두를 위한 축제
주요 지역	신촌동, 연희동, 반포4동

3. 유형 3

3.1 이주민 공동체 특성

유형 3의 이주민 공동체 특징은 한국과 비교해 집단주의 성향이 조금 높으며, 권력거리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보다는 같은 국가의 이주민과 집단거주하려는 특성이 있으나 같은 국가의 출신의 이주민과 내국인을 차별하지 않으며 불평등한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권력에 대해서 수평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처한 상황에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즉시 의견을 내고 그러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1인당 GNI는 한국보다 높아 취업을 위해서 한국을 왔기보다는 외교관이나 주재원, 유학 등의 목적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의 비율이 상당히 낮고 제조업과 서비스에 종사하는 비율도 한국과 비슷해서 이주의 목적이 취업과는 거리가 있다.

경제적 자유도와 사회적 자유도는 한국과 비슷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조건으로 보인다. 경제적 자유도와 사회적 자유도가 높아 우수한 자본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적 자유도가 높아 한국사회에 적응을 쉽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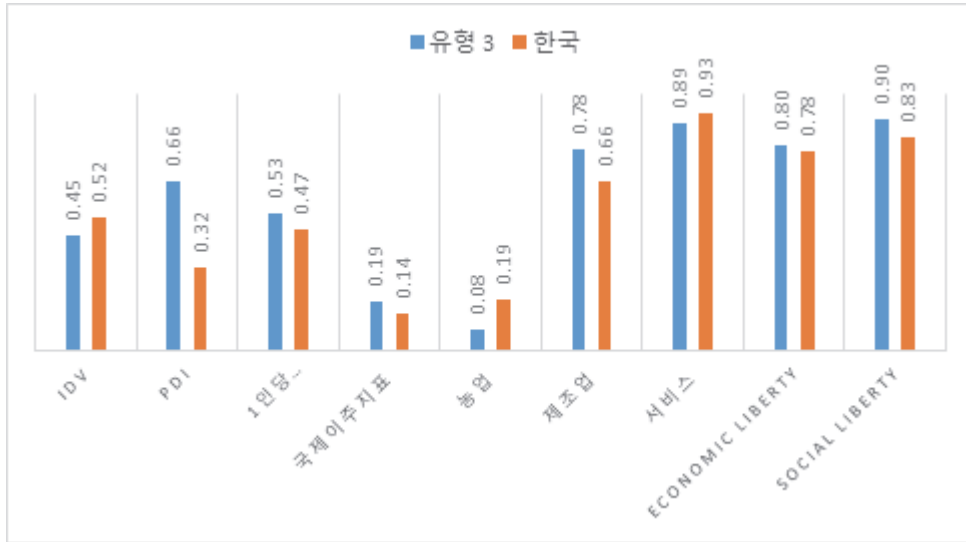


그림 44 유형 3 이주민 공동체 특성

3.2 도시건축 환경

(1) 거주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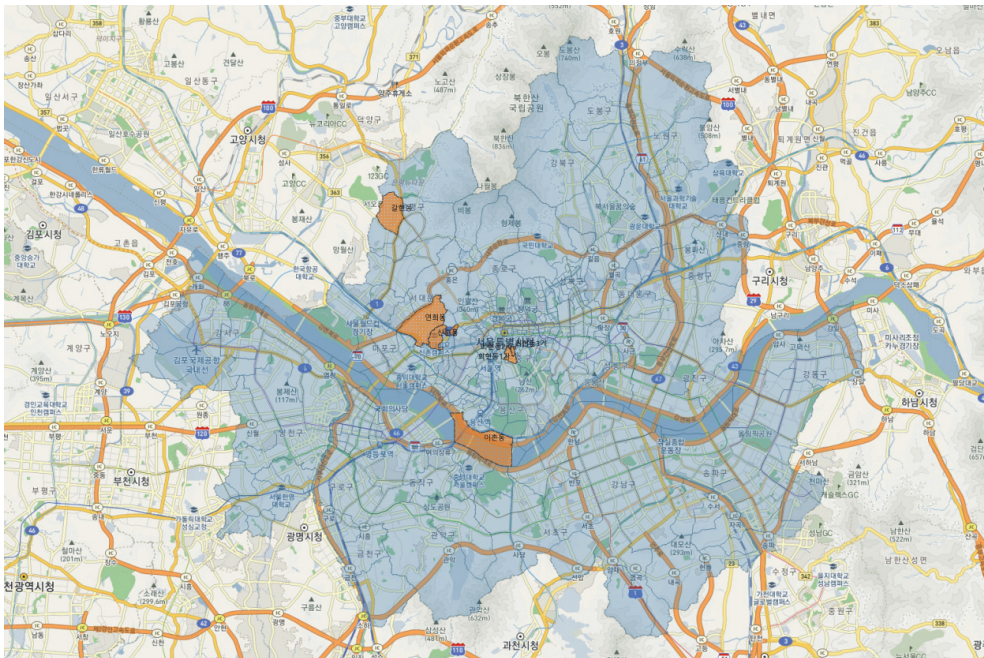


그림 45 유형 3 밀집지역 분포

유형 3에 해당하는 국가는 대만과 일본으로 연희동, 회현동, 신촌동, 갈현2동, 이촌1동 등에 집단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는 14,334.60명/km²으로 서울시 기준 저밀지역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은 아파트가 46.48%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이 33.16%로 나타났다. 연희동에 주택이 노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유형 2 처럼 유학생 대부분 기숙사에 거주하는 편으로 거주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촌1동은 중고층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도로는 6m미만의 지역내부도가 비율이 높으나 차량 이동이 원활하였고 보차 분리가 되어있어 보행자는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였다. 대부분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에 주차장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주거지역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으며 상업가로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차된 차량이 일부 있었다.



그림 46 이촌1동 중고층아파트

연희동 일부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일부 거주환경이 열악하지만, 이주민 거주지와는 분리되어 있어 이주민 공동체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촌1동은 노후 공동주택이 많으나 일부 리모델링이 진행되었고 대부분 관리가 잘되어 있어 거주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3도 유형 2 처럼 대학교 인근과 외국인학교 주변에 있다. 이 지역들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 인접하여 도심지와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에 강과 산, 공원 등에 인접하여 있다.

유형 3의 지역들은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출신국의 영향을 받은 상가들이 있으며 이주민과 관련된 음식점, 식품점, 서비스시설에서 중국어와 일본어 소통이 가능하며 간판과 메뉴 등 한국어와 함께 표시되어 있다.



그림 47 연희동 화교마을 상가

유형 3의 체류 외국인은 평균 8427.50명으로 유형 1과 함께 체류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 커뮤니티

국내 체류 기간이 오래된 유형 3은 영주권(F05)을 가지고 체류하는 이주민이 40.24% 가장 많으며, 결혼이민(F06)은 10.58%, 유학생(D02) 7.34%, 기업투자(D08) 6.66%로 나타났다. 영주권을 가진 이주민은 외국인학교가 인근인 연희동과 이촌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유학생은 신촌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과 일본 이주민을 위한 종교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중국어, 일본어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가 일부 있었다. 두

국가 모두 특별한 행사는 없었고 일본의 경우 일 년에 한 번 ‘한일 축제 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서울 강남의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외에는 소규모로 벼룩시장이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한일축제 한마당

(3) 지역 경제

유형 3 지역의 평균 사업체 밀도는 2,997.40개/km²로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된 지 오래되어 지역내 이주민 경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1969년 한성화교학교가 연희동으로 이전하면서 화교마을 상권이 음식점과 식품점 위주로 생겨났고 이촌1동은 한강 개발로 인해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일본인이 이주하면서 ‘리틀도쿄’라고 불리는 일본인 상권이 형성되었다. 이곳에는 여러 외국인을 위한 상점이 존재하며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이용 가능한 시설로 나타났다.



그림 49 연희동 화교마을 상가

(4) 종합

유형 3은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일부 지역의 주택의 노후도가 높으나 관리가 잘되어 거주환경이 양호한 편이며 주거비용이 높은 편이다.

유형 3은 이주민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된 지 오래되었고 이주민을 위한 음식점과 식료품점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내국인도 자주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며 대학교, 외국인학교 인근에 있다. 사업체 밀도는 높은 지역이나 이주민들의 취업을 위한 것은 아니며 편리한 생활을 위해 상업시설이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4m 미만의 도로 비율이 낮으며 주변에 공원과 광장이 많아 거주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이주민을 위한 종교시설이 없고 행사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공동체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개최되는 행사는 이주민 문화를 알리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표 47 유형 3 거주환경 특성

구분	유형 3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비율이 높음 • 일부지역 주택의 노후도가 높음(관리잘됨)
거주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밀도가 보통 • 일부 지역에 재개발 진행중 • 거주환경은 대체로 양호함
상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경제 형성 • 소형시장 인근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m 미만의 도로 비율이 낮음 • 비교적 평지 • 공원이 많음

사업체	• 사업체 밀도가 높음 (2,997개/km ²)
접근성	• 편리한 대중교통 (지하철/버스정류장) • 주차공간 부족 (상업지역)
공간특성	• 외국인학교 주변 • 대학교 주변 • 도심지로 이동이 용이
종교 및 행사	• 종교와 행사가 적은편 • 출신국 사람들과 내국인 모두를 위한 축제
주요 지역	연희동, 회현동, 신촌동, 갈현동, 이촌1동

4. 유형 4

4.1 이주민 공동체 특성

유형 4의 이주민 공동체 특징은 한국과 비교해 집단주의 성향이 조금 높으며, 권력거리 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보다는 같은 국가의 이주민과 집단거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공동체 내부에 어떠한 규범이나 규칙 또는 흐름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르려는 성향이 있다. 또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수긍하려는 성향이 있어 스스로 환경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인당 GNI차이도 한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 경제적 목적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농업의 종사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은 특별한 기술력 없이 종사할 수 있는 단순노동자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으로 산업단지와 농어촌 등의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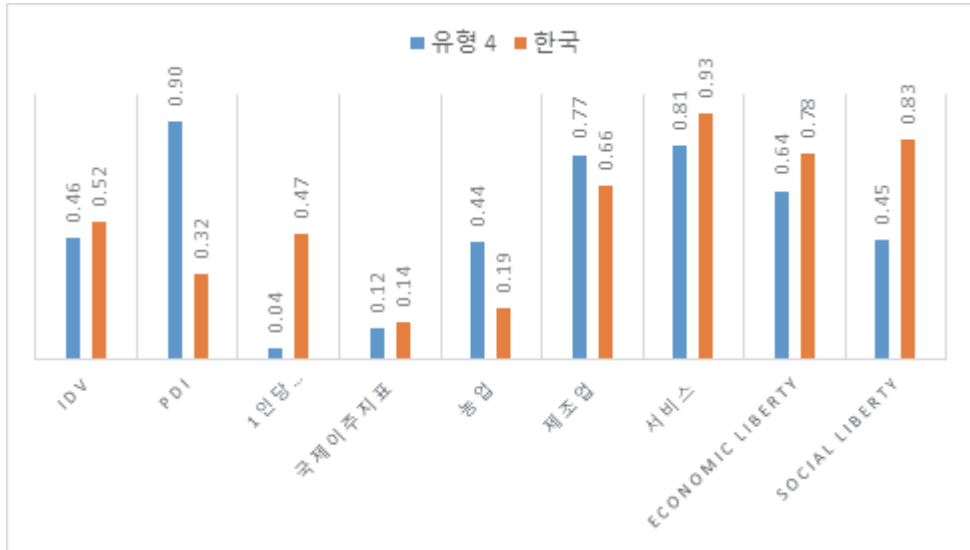


그림 50 유형 4 이주민 공동체 특성

경제적 자유도는 한국에 비교해서 조금 낮으며 사회적 자유도는 상당한 차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유도가 낮은 것으로 돈의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사회적 자유도가 낮은 것은 새롭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보다는 주변의 상황에 맞춰서 생활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 보인다.

4.2 도시건축 환경

(1) 거주환경

유형 4에 해당하는 국가는 베트남,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인도, 러시아, 태국으로 군자동, 상도1동, 삼청동, 미아동, 신당동, 광희동, 장충동, 소공동, 한남동 등에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인구밀도가 15,119.44명/km² 저밀지역으로 서울시 평균 인구밀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9.34%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는 34.65%로 다른 유형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도

15.99%로 다른 유형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주택이나 비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의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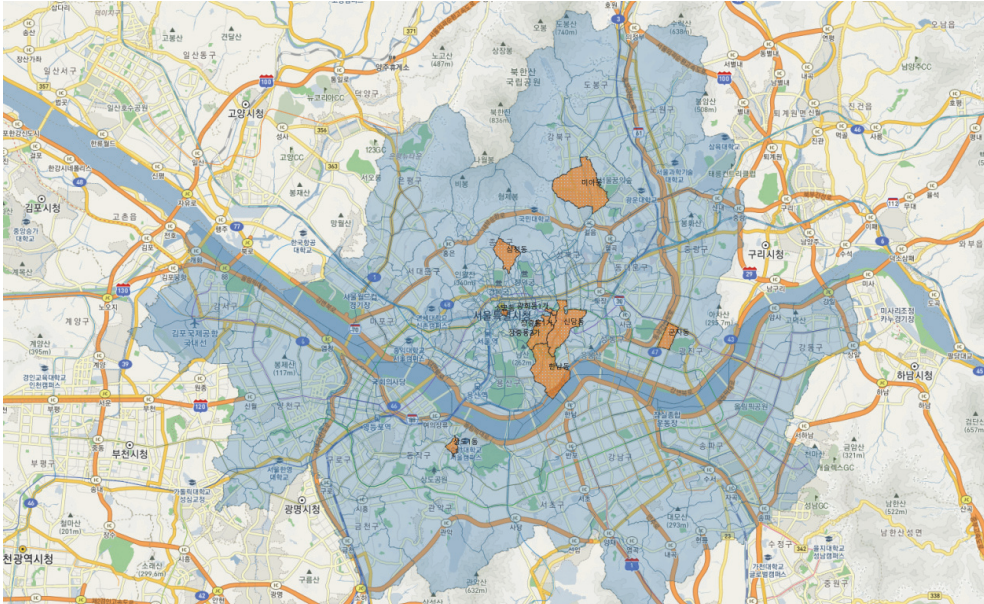


그림 51 유형 4 밀집지역 분포

지역내 도로는 6m미만의 지역내부로가 많았으며 특히 주거지역 내부에는 4m 미만의 도로가 많아 지역내부 차량 이동이 불편하며, 보차분리가 되지 않아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주택단지가 많아 개별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노상, 노외 주차장과 같은 공용주차장도 충분하지 않아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신당동 노후빌라

미아동, 상도동, 한남동, 신당동 등은 지역은 주택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이 중 일부 지역에서는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인 지역으로³⁴⁾ 현재 거주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 4 지역들은 상업지역 인근에 형성되어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 인접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도심지와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 광희동 상가 옥외광고물

유형 4 지역도 유형 3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출신국의 영향을 받은 상가들이 일부 존재하고 국내 일반상가들과 혼재되어 있다. 관련 상가들은 러시아어(크릴어)와 영어를 동시에 표현한 상가들이 많고 한글로 표시된 곳도 일부 있었다. 음식점과 식품소매점에서는 출신국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으며 간판과 메뉴는 영어와 함께 러시아어로 표시되어 있었다. 일부 건물의 파사드와 내부공간에서 출신국의 전통적 양식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이주민 경제 상권은 이주민과 내국인 함께 이용하고 있었다.

유형 4의 체류 외국인은 평균 3448.14명으로 유형 2와 같이 체류 외국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권영선(2018), 서울시 주택노후도 현황분석 및 시사점, 주택산업연구원

(2) 지역 커뮤니티

유형 4는 결혼이민(F06)이 20.67% 가장 많았고 방문동거(F01)이 14.36%, 유학생(D02)가 12.84%, 일반연수(D04)가 10.19%로 나타났다. 일반연수 대부분은 언어연수로 유학생을 포함한 학생이 23.0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 다문화가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4의 지역은 대부분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취업과 아르바이트가 편리한 지역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유형 4의 종교 중 개신교는 다른 유형처럼 영어 예배를 이용하며 필리핀은 해화동 성당에서 그들을 위한 미사가 매주 일요일에 열린다. 인도는 이태원 해방촌 지역에 작은 힌두사원에서 종교행사를 가지며, 우즈베키스탄은 이태원 이슬람사원에서 종교행사를 진행한다. 태국은 경기도 화성에 태국식 절에서 불교 행사가 이뤄진다. 일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은 마포구 아현동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종교행사를 한다.



그림 54 성니콜라스 대성당



그림 55 이태원 이슬람사원

각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 인도는 내년 가을에 ‘사랑-인도 문화축제’를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는 매년 봄에 ‘중앙아시아축제’를 태국은 태국 절에서 축제가 열린다. 이러한 축제는 그들만을 위한 축제라기보다 자신들의 문화를 한국에 알리며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사로 보인다.



그림 56 인도축제



그림 57 중앙아시아 축제

(3) 지역경제

이 지역은 사업체 밀도가 4,905.89개/km²로 4가지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취업할 기회가 많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유형 4는 이주민 경제 상권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희동의 몽골타운은 러시아인들과 우즈베키스탄인이 함께 이용하며, 매주 일요일 혜화동 성당 주변 거리에 필리핀 마켓이 형성된다. 필리핀 음식과 식재료,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 필리핀인을 위한 시장이지만 일부 내국인도 이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한국 상업시설과 혼재되어 유형 1처럼 독자적인 이주민 경제 상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림 58 광희동 상가

(4) 종합

유형 4의 국내 거주환경 특성은 다음과 같다. 상업지역 주변에 위치해 인구밀도는 보통이고 다세대주택의 비율이 높으며 비거주용 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노후주택의 비율이 높다. 도시환경정비 지역이나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공간을 찾으면서 노후 다세대주택이나 노후 상가주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은 이주민 경제가 일부 형성되어 이주민 경제의 시설이 내국인 상업시설과 혼재해 있거나 주말에만 열리는 장터의 형태로 되어있다. 중심상업지역으로 사업체밀도가 높아 이주민 경제 상업시설이나 다양한 사업체에서 일할 기회가 많은 곳에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 도시내외부로 이동이 용이한 지역이다. 반면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모두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4m 미만의 도로 비율이 높아 통행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변에 공원이나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이주민을 위한 종교시설이 존재하며 종교와 관련된 행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행사인 만큼 같은 문화권 사람들을 위한 행사로 보인다.

표 48 유형 4 거주환경 특성

구분	유형 4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세대주택 비율이 높음 • 비거주용주택 거주비율 높음 • 노후주택 비율이 높음
거주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밀도가 보통 • 일부 지역에 재개발 진행중 • 도시환경정비 지역, 재개발 등 열악한 환경

상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경제 일부 형성 • 중심상업지역 인근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m 미만의 도로 비율이 높음 • 비교적 경사지 • 공원 부족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밀도가 높음 (4,906개/km²)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한 대중교통 (지하철/버스정류장) • 주차공간 부족 (상업, 주거지역)
공간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지역 주변 • 도시외부로 이동이 용이
종교 및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행사 중요 • 출신국 사람들을 위한 축제
주요 지역	군자동, 상도1동, 삼청동, 미아동, 신당동, 광희동, 장충동, 소공동, 한남동

5. 이주민 공동체와 외국인 밀집지역 연관성 고찰

5.1 이주민 공동체 특성과 외국인 밀집지역

(1)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 전 이주민 공동체의 영향

1인당 GNI가 낮고 1차산업 종사자비율이 높은 유형 1과 유형 4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기 전에 집단 거주지역을 주거비용을 고려하여 거주환경이 낙후된 저렴한 주거지를 선택하였다. 이곳은 인구밀도가 서울의 평균보다 높으며 4m 미만의 좁은 도로가 많아 보행이 불편하고 위험한 가로환경으로 나타났다. 도시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되었거나 진행 중인 지역이 다수 존재하였다. 두 유형 모두 높은 1차 산업종사자 비율은 이주민의 체류유형이 단순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반영이 되었다. 이들은 유형 1은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를 시작하였고, 유형 4는 중심상업지역 인근에 거주를 시작하였다. 산업단지와 상업지구 인근 거주지는 이주자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많고 통근이 편리하여 초기 이주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았다.

1인당 GNI가 높고 3차산업 종사자비율이 높은 유형 2와 유형 3은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기 전에 집단 거주지역을 주거비용보다는 거주환경의 질을 고려하여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거주를 시작하였다. 인구밀도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편이며, 4m미만의 좁은 도로의 비율이 낮고 보차분리가 된 도로가 많아 보행이 편리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으로 나타났다. 도시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되었거나 진행 중인 지역이 일부 존재하였지만,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거주환경이 양호하였다.

두 유형 모두 3차산업 종사자비율이 높아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높았으며, 유학생 비율도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거주환경의 질과 함께 도심 속 편리한 생활을 선호하여 대형상가나 백화점 인근으로 거주지를 선택하였다. 또,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학교가 거주지 인근에 있거나 통학버스 등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정하여 자녀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선호하였다.

(2)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 후 외국인 밀집지역의 변화

유형 1과 유형 4의 집단주의 성향은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집단 거주지역 상업 가로에서 출신 국가의 도시건축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이주민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현하려고 하면서 안정적 거주환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거주지에서 출신국의 언어 위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출신국과 유사한 도시건축 환경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주민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 지역은 원래 내국인 주민보다 이주민 공동체를 우선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높은 권력거리 성향은 주변의 낙후된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와 불만이 높지 않고 수궁하려는 성향을 보여, 이주민 공동체의 의지로 거주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은 작으며 점점 게토화되고 슬럼화되어가고 있다.

유형 2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유형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과 발전에 영향력이 적은 편이다. 집단 거주지역의 상업가로에서 출신 국가의 도시건축과 유사한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경우는 적다. 거주지에서 출신국의 언어사용은 많지 않으며 한글을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다. 일부 이주민 경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내국인도 이주민 경제에 참여하여 큰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이주민 공동체와 내국인 모두 함께 거주하고 방문하여 상업가로 이용한다. 그리고 낮은 권력거리 성향으로 거주환경 개선

에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반영이 되지 않거나 더 좋은 거주환경이 나타나면 기존의 지역을 떠나 새롭게 지역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향으로 이들의 거주환경이 좋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유형 3은 약한 집단주의 성향으로 밀집지역 형성과 발전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집단 거주지역의 상업 가로에서 출신 국가의 도시 건축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성향이 있다. 특히 음식점과 식료품점에 많이 나타나며, 거주지에서 출신국의 언어를 한글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유형 3의 밀집지역은 70~80년부터 형성되어 이주민 경제가 조금씩 누적되어 발전되어왔다.

이 지역은 이주민 공동체와 내국인 모두 함께 거주하고 방문하여 상업가로 이용한다. 그리고 낮은 권력거리 성향으로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유형 2처럼 더 좋은 거주환경이 나타나면 기존의 지역을 떠나 새로운 지역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형 2와는 다르게 거주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찾아 거주를 시작하는 것보다 평범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그들이 선호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유형 4의 인도, 태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출신 이주민 공동체에서 이주전 믿고 있던 종교의 시설을 새롭게 만들고 주변에 집단거주지를 형성하였다. 특히 이들은 종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맹목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권력거리가 큰 국가들로 종교와 출신국 관련 행사 등 이주민 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종교와 삶이 통합되어 종교시설 인근에 거주하면서 종교적 율법에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시설 주변의 환경에 대한 불만은 적다. 이렇게 권력거리가 큰 국가들의 거주지는 거주환경이 열악한 편이지만 큰 불만 없이 지내고 있으며, 그만큼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다.

표 49 유형별 도시건축 주요 특성

구분	주택	거주환경	상업시설	기반시설	사업체	접근성	공간특성	종교 및 행사	주요 지역
유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비율이 높음 • 노후주택 비율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밀도가 높음 • 도시환경정비 지역, 재개발 등 열악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경제 발달 • 대형시장 인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m 미만의 도로 비율이 높음 • 비교적 평지 • 공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밀도가 높음 (4,70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한 대중교통 (지하철/버스정류장) • 주차공간 부족 (상업, 주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주변 • 도시외부로 이동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와 행사가 적은편 • 출신국 사람들을 위한 축제 	지양4동, 신대방1동, 창신2동, 신당동, 대림2동, 가리봉동, 신정3동, 구로2동
유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와 다세대주택(빌라) 비율이 높음 • 일부지역 주택의 노후도가 높음(관리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밀도가 낮음 • 일부 지역에 재개발 진행중 • 거주환경은 대체로 양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경제 일부 형성 • 백화점 인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m 미만의 도로 비율이 낮음 • 비교적 평지 • 공원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밀도가 약간 높음 (1,56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한 대중교통 (지하철/버스정류장) • 주차공간 부족 (상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주변 • 학교, 대학가 주변 • 도심지로 이동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 시설은 적음 • 다양한 행사 열림 • 출신국 사람들과 내국인 모두를 위한 축제 	신촌동, 연희동, 반포4동
유형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비율이 높음 • 일부지역 주택의 노후도가 높음(관리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밀도가 보통 • 일부 지역에 재개발 진행중 • 거주환경은 대체로 양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경제 형성 • 소형시장 인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m 미만의 도로 비율이 낮음 • 비교적 평지 • 공원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밀도가 높음 (2,99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한 대중교통 (지하철/버스정류장) • 주차공간 부족 (상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학교 주변 • 대학교 주변 • 도심지로 이동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와 행사가 적은편 • 출신국 사람들과 내국인 모두를 위한 축제 	연희동, 회현동, 신촌동, 갈현동, 이촌1동
유형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세대주택 비율이 높음 • 비거주용주택 거주비율 높음 • 노후주택 비율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밀도가 보통 • 일부 지역에 재개발 진행중 • 도시환경정비 지역, 재개발 등 열악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경제 일부 형성 • 중심상업지역 인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m 미만의 도로 비율이 높음 • 비교적 경사지 • 공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밀도가 높음 (4,90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한 대중교통 (지하철/버스정류장) • 주차공간 부족 (상업, 주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지역 주변 • 도시내외부로 이동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행사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힌두교 - 태국: 불교 - 러시아: 정교회 (우즈베키스탄) - 필리핀: 성당 • 출신국 사람들을 위한 축제 	군자동, 상도1동, 삼청동, 미아동, 신당동, 광희동, 정충동, 소공동, 한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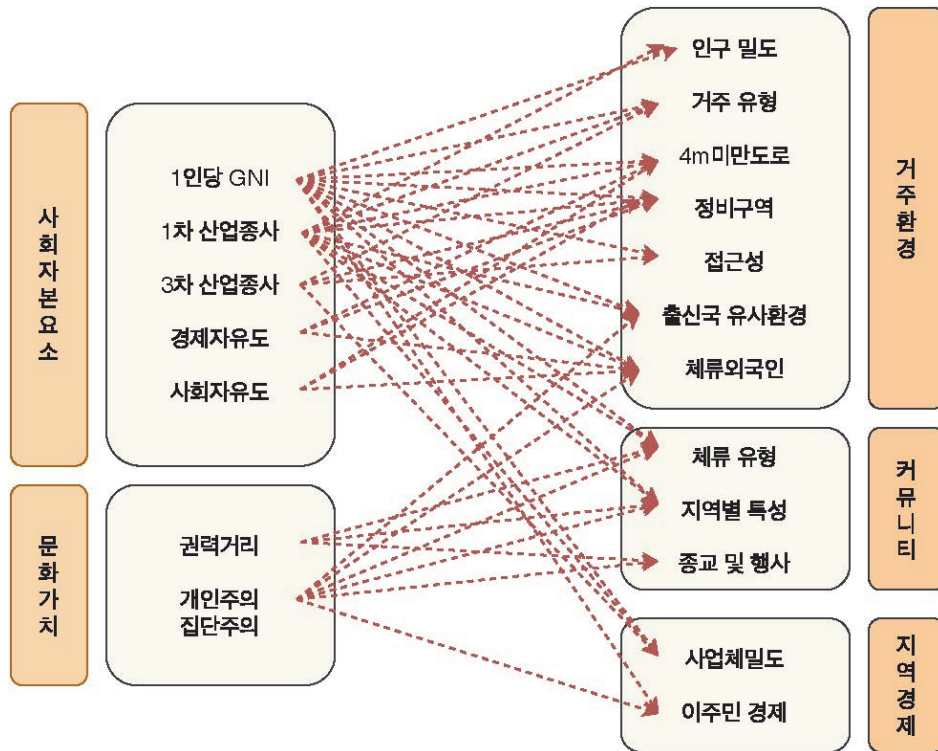


그림 59 이주민 공동체와 도시건축 환경 영향 관계

5.2 이주민 공동체 변수의 도시건축 영향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 전 이주민 공동체의 거주지 선택의 영향을 준 요인과 형성 후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공통으로 나타나는 영향 관계에서 지역별 인구밀도는 주거환경의 질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구밀도가 높으면 한정된 도시건축자원을 개인이 활용할 기회가 적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원의 활용할 기회가 적어지는 만큼 거주비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주거환경의 질과 거주비용의 연관성은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기 전 거주지 선택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이주 전 각 국가에서 개인의 경제 수준인 1인당 GNI와 산업별 종사자 비율이 거주비용을 지불할 능력과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경제적 요인과 기술

력 보유는 이주민의 거주지 선택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주 전 각 국가에서 1차산업 종사자비율이 높은 경우 전문 지식이 적고, 기술력이 없는 국가로 단순노동자 유형의 이주민 많으며 거주유형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비율이 높았고 노후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았다.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된 후에도 경제적 여건으로 거주환경의 질이 결정된다. 집단거주지가 형성된 이후에도 이들은 국내에서 단순 노동으로 벌어들인 낮은 임금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자력으로 더 나은 거주환경으로 이주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3차산업 종사자비율이 높은 유형에서는 우수한 거주환경의 지역에 거주지가 형성되고 더 나은 환경이 나타나면 그곳으로 이주하는 예도 있었다.

출신국 유사환경은 이주민 공동체의 국내 문화의 동화 정도와 국내 환경의 적응과 관련된 요소로 문화가치의 개인주의-집단주의와 권력주의, 1인당 GNI가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주의 성향이 높고 권력거리가 높으며, 1인당 GNI가 낮은 유형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상업 가로에서 출신국의 도시건축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지역 내 건축물 파사드, 내부공간, 가로시설물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밀집지역 상업시설에서는 출신국 언어사용의 빈도가 높았다.

체류 외국인 수는 국제이주이론에서 언급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경제 요인의 1인당 GNI, 산업별 종사자비율과 정치요인인 경제자유도와 사회자유도, 그리고 문화 요인인 개인주의-집단주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였다. 이 요인은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된 후 기존의 이주민 공동체가 출신국과의 네트워크로 작용하여 체류 인구의 수가 조절되었다.

종교 및 행사는 출신국의 종교적 성향과 이주민 집단의 특성을 확

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집단주의적 성향과 높은 권력거리가 이주국에서도 종교시설을 만들고 인근에 집단 거주지역을 형성하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집단거주지 형성 이후에도 종교시설 인근으로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반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고 권력거리가 낮은 유형이 이주민 공동체와 관련된 행사가 더 많이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업체 밀도는 사회자본 요소의 경제적 요인과 연관이 많다.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기 전 거주지 선택에서 이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1인당 GNI가 낮고 1차산업 종사자비율이 높은 경우 산업단지와 중심상업지역 인근에 일자리가 비교적 많은 지역에 거주지로 선택하였다. 반면에 1인당 GNI가 높고 3차산업 종사자비율이 높은 경우는 특정 지역을 선택하기보다 거주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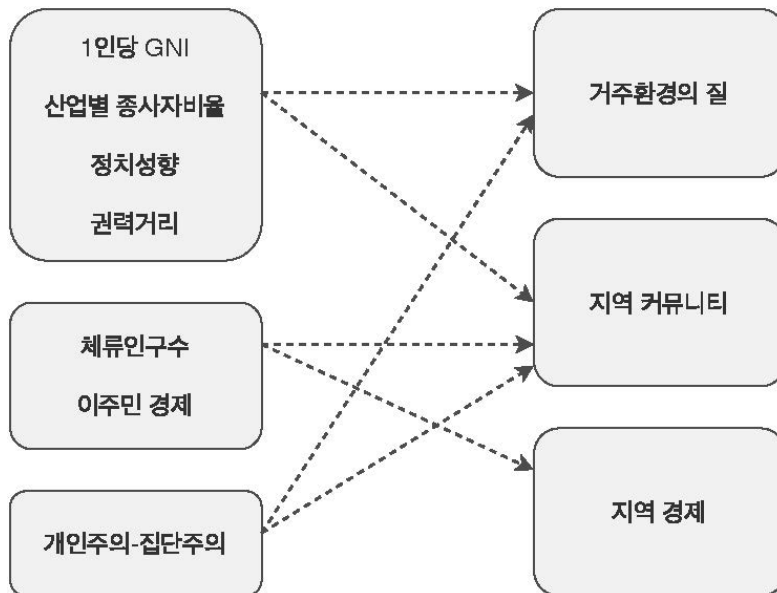


그림 60 이주민 공동체 특성과 도시건축 영향

5.3 유형별 명칭 선정

이렇게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에 따른 외국인 밀집지역의 도시건축 환경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 두 가지 특성에 기반을 두어 유형별 명칭을 정하였다.

(1) 산업단지 일자리중심형

유형 1은 산업단지 인근에 집단거주지를 형성하였다. 중국이 유형 1에 해당하고 현재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며 중국에서 적은 임금과 낮은 복지 수준이 국제이주를 유발했다. 유형 1은 1차 산업 종사자비율이 높아 단순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한국으로 이주 시 출신국에서의 경제 수준과 체류자격 유형이 반영되어 저렴한 거주지를 선택하였다. 유형 1은 저렴한 지역 중 취업이 유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이 지역은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시기부터 형성된 구도심 지역으로 거주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이들은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이점과 경제적 이유로 국내 체류하면서 출신국의 지인과 네트워크를 통해 체류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체류 인구의 증가와 집단주의적 성향으로 이주민 경제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우수인프라 편의추구형

유형 2는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이미 구축된 지역에 집단거주지를 형성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가 유형 2에 해당하며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복지 수준으로 경제적 이유보다 외교관이나 주재원,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제이주가 발생하였다. 한국 이주 시 거주지를 경제적 조건과 체류자격 유형 특성이 반영되어 거주환경이 양호하고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는 고급주거지로 선택하였다. 유형 2는 거주환경의 질을 우선하여 거주지 인근에 백화점, 대형상가, 공원 등이 있어 편리한 일상생활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주의 성향의 유형 2는 체류 인구가 일정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3) 자녀교육 중심형

유형 3은 유형 2와 유사하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축된 지역에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일본, 대만이 유형 2에 해당하며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복지 수준으로 경제적 이유보다 다른 다양한 이유로 국제이주가 발생하였고 주재원, 외교관 등으로 체류하고 있다. 경제적 조건과 체류자격의 유형 특성이 반영되어 거주환경이 양호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이하게 거주지 인근에 외국인학교인 화교학교와 일본인 학교가 있다. 약한 집단주의 성향의 유형 3은 국내 거주기간이 길고 국제 이동이 적어 체류 인구의 증감은 적다.

(4) 종교집결지 중심형

유형 4는 중심상업지구 인근에 집단거주지를 형성하였다. 필리핀, 태국, 인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러시아가 해당하고 현재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며 출신국에서 적은 임금과 낮은 복지 수준이 국제이주를 유발했다. 유형 4는 유형 1과 유사하게 1차산업 종사자비율이 높아 단순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다. 한국으로 이주 시 출신국에서의 경제 수준과 체류자격 유형이 반영되어 저렴한 거주지를 선택하였다. 유형 4는 저렴한 지역 중 취업이 유리하고 직장가 가까운 중심상업지역 인근에 거주지를 형성되어 있으며 특이하게 거주지 인근에 출신국의 종교시설이 있다. 집단주의

성향이지만 체류자격과 기간의 제한으로 체류 인구의 증감은 적다.

표 50 유형별 이주민 특성과 도시건축 환경

구 분	이주민 공동체 특성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
산업단지 일자리중심형 (유형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밀도 높은 지역 - 아파트 비율 높음 - 노후되고 낙후된 환경 - 저렴한 거주비용 - 사업체 밀도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인근 - 집단주의 성향 - 많은 체류인 - 이주민경제 발전 - 단순노동자 많음 - 보수적 성향
우수인프라 편의추구형 (유형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밀도 낮은 지역 - 아파트 비율 높음 - 양호한 주거 환경 - 높은 거주비용 - 사업체 밀도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인근 - 개인주의 성향 - 적은 체류인 - 이주민경제 일부형성 - 전문직, 학생 많음 - 진보적 성향
자녀교육 중심형 (유형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밀도 낮은 지역 - 단독주택 비율 높음 - 양호한 주거 환경 - 높은 거주비용 - 사업체 밀도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학교, 대학교 인근 - 약한 집단주의 성향 - 많은 체류인 - 이주민경제 형성 - 전문직, 학생 많음 - 진보적 성향
종교집결지 중심형 (유형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밀도 낮은 지역 - 다세대주택, 상가주택 비율 높음 - 노후되고 낙후된 환경 - 저렴한 거주비용 - 사업체 밀도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상업지구, 종교시설 인근 - 집단주의 성향 - 적은 체류인 - 이주민경제 일부형성 - 단순노동자 많음 - 보수적 성향

제 6 장 결 론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1.1 연구의 요약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매년 증가하고 출신 국가와 체류유형이 다양화되면서 가리봉동, 대림동, 동대문 등 여러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이주민 관련 정책은 외국인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일부 지역은 관리가 되지 않아 계도화되거나 슬럼화되는 등 다양하고 부정적인 사회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별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과 그들의 국내 체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주민 출신국의 특성이 반영된 4가지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을 도출하였다. 또,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이 도시·건축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고찰하여 둘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체류 자격과 국적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을 대상으로 하여 체류인 상위 14개 국가의 이주민 공동체와 외국인 밀집지역을 조사하였다. 이주민 공동체 특성이 반영된 외국인

밀집지역을 유형화를 도출하기 위해 국가별 사회자본 변수와 국가 문화 특성, 체류 현황 변수를 15가지를 도출하였고 이 중 유효한 9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도출된 4가지 외국인 밀집지역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 1은 중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해당한다. 1인당 GNI가 낮은 편으로 경제적 이유로 국제이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보수적 정치성향으로 더 나은 복지혜택과 환경을 찾아 국제이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형 1은 집단주의 성향의 국가로 이주민 공동체 집단을 형성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서울의 여러 지역에 집단거주지가 존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주민 경제가 발전되었으며 국내 체류 이주민 공동체가 네트워크 역할을 하며 출신국 사람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어 체류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차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 국내 이주민 중 단순노동자 비율이 높았다.

둘째, 유형 2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선진국에 해당한다. 1인당 GNI가 높은 편으로 경제적 이유로 국제이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적고, 진보적 정치성향을 보여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국제이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유형 2는 개인주의 성향의 국가들로 이주민 공동체의 집단을 형성하려는 경향은 적으나 일부 집단거주지가 형성되어 있고 인근에 이주민 경제가 일부 형성되어 있고, 체류 인구는 다른 유형에 비해 적은 편이다. 3차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 외교관이나 주재원 등 전문직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유형 3은 일본과 대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진국에 해당한다. 1인당 GNI가 높아 경제적 이유로 국제이주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적고, 진보적 정치성향을 보여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국제이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유형3은 약한 집단주의 성향의

국가라 집단을 형성하려는 경향과 오랜 체류 기간으로 밀집지역이 존재하며 인근에 이주민 경제가 형성되어 있고 체류 인구는 다른 유형에 비해 많다. 3차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 전문직의 비율이 높았다.

넷째, 유형 4는 필리핀, 태국, 인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해당한다. 1인당 GNI가 낮아 경제적 원인으로 국제이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보수적 정치성향을 보여 더 나은 복지혜택과 환경을 찾아 국제이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형 4는 집단주의 성향의 국가로 집단을 형성하려는 경향으로 일부 집단거주지가 형성되었으며 인근에 이주민 경제가 일부 형성되어 있다. 유형 4의 체류 인구는 다른 유형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단순노동자 비율이 높았다.

이주민 공동체 특성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도시·건축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형별 외국인 밀집지역 도시·건축 환경 특성을 실증조사하였다.

첫째, 유형 1의 지역은 산업단지 인근에 있으며 인구밀도가 높고 아파트 비율과 노후주택의 비율이 높다. 도시환경정비 지역이나 재개발사업이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된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이다. 사업체 밀도가 높은 산업단지로 주변에 일할 기회가 많은 지역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도시내외부로 이동이 편리한 지역이지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모두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4m 미만의 도로 비율이 높아 보행과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보행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변에 공원이나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하였다.

둘째, 유형 2의 지역은 백화점과 대형상가 등 생활에 필요한 근린

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일부 지역에 재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주거환경 관리가 잘되어 거주환경이 우수한 편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편이며 백화점, 대형상가, 대학교, 외국인학교가 인근에 있다. 4m 미만의 도로 비율이 낮고 인근에 공원과 광장이 많아 거주환경이 우수하다.

셋째, 유형 3의 지역은 외국인학교 인근에 있으며 인구밀도는 서울시 평균 정도이며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주택의 노후도가 높지만, 주거환경 관리가 잘되어 거주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된 지 오래되어 식료품점과 음식점 위주로 이주민 경제가 형성되어 있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며 대학교, 외국인학교 인근에 있다. 4m 미만의 도로 비율이 낮고 인근에 공원과 광장이 있어 거주환경이 양호하였다.

넷째, 유형 4의 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인근에 있으며 인구밀도는 서울시 평균 정도이며 다세대주택의 비율이 높고 비거주용 주택 거주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높다. 노후주택의 비율이 높으며 도시환경 정비 지역이나 재개발사업이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된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이다. 중심상업지역으로 사업체 밀도가 높아 일할 기회가 많은 지역이다. 출신국의 종교시설 주변에 형성된 지역이 많은 편이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 도시내외부로 이동이 쉬운 지역이다. 반면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모두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4m 미만의 도로 비율이 높아 통행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변에 공원이나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하였다.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건축·도시 환경 특성의 상관성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 전, 형성 후로 나뉘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기 전 이주민 공동체 유형별 특성은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이주민 공동체의 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인 1인당 GNI, 산업별 종사자 비율은 주거비용에 영향을 미쳤다. 유형 1과 4는 저렴한 지역이면서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택하였다. 유형 2와 3은 비싸더라도 거주 환경의 질이 양호하거나 우수한 지역이면서 생활이 편리한 지역을 선택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 후에는 집단주의 성향의 유형 1, 유형 3, 유형 4는 이주민 공동체가 직접 해당 지역에 출신국과 유사한 환경을 상가, 가로, 종교시설 등 다양하게 조성하였으나 개인주의 성향의 유형 2는 이주민 공동체가 아닌 지자체에서 일부 가로와 상가를 일부 조성하였다. 또한, 경제적 조건인 1인당 GNI가 높고 3차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유형 2와 유형 3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으로 도시 관리가 잘되는 지역에 거주하여 양호하거나 우수한 환경이 유지되는 반면, 1인당 GNI가 낮고 1차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유형 1과 유형 4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으로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며 권력거리가 높아 변경하려는 의지도 적었다.

이러한 이주민 특성과 도시·건축 환경의 특성, 두 특성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명칭을 정하였다.

- 유형 1 - 산업단지 일자리중심형
- 유형 2 - 우수인프라 편의추구형
- 유형 3 - 자녀교육 중심형
- 유형 4 - 종교집결지 중심형

1.2 연구의 의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매년 급증하고 국적과 체류유형이 다양화되고 관련된 사회 이슈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사회통합이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도시건축 환경의 특성을 확인하고 두 특성간 연관성을 고찰한 첫 도시·건축 연구라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물은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별 도시건축 환경 영향과 그에 따른 현재 정책 수립과 보완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가 가지는 주요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 공동체의 국가별 특성과 밀집지역의 특성을 실증 분석하여 첫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을 도출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2009년 적은 체류 외국인 수와 특정 국가의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시기에 입지 유형과 체류외국인의 체류유형으로 만들어진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은 이후 대부분의 외국인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에 기본 개념으로 자리를 잡혀 국가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민 출신국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특성과 국내 거주지의 현황 특성을 실증 분석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을 도출해 유형별 이주민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이 외국인 밀집지역의 도시·건축 환경과의 상관성을 밝힌, 첫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에는 일부 국가 이주민 공동체의 주거환경 선호요인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결과론적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과 도시건축 환경요소 간 상관성을 고찰하면서 어떠한 거주환경을 선호하거나 특수한 지역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등 이주민 공동체를 이해하면서 도시·건축적 특성을 고찰한 연역적 탐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주민 공동체에 의한 거주환경의 변화의 원인 등의 두 특성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고찰한 두 특성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밀집지역과 관련하여 확장된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방향

2.1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이주민 공동체의 실증적 분석을 통한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을 도출하고 도시·건축 환경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되었음에도, 본 연구가 지니는 연구의 한계점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국적과 체류 목적을 가진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서울을 연구의 대상으로 지역을 한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도시 특색이 반영된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을 도출하였으나 중소도시와 교외 지역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하였다. 현재 국내 교외 지역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 제조업 등 노동력 부족으로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들이 증가하는데 이들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체류 외국인 상위 14개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대다수의 연구보고서와 통계자료에서 한국계중국인과 14개 국가를 대상의 데이터만 존재하여 다른 국가는 이번 연구에 포함할 수 없어 본 연구의 지역적 한계를 가진다. 특히 아프리

카, 중동, 남미지역 등 미래에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대비를 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새롭게 분류된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에 대해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성과 체류 현황 특성을 실증 분석하고 이들이 외국인 밀집지역의 도시·건축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였다. 도시·건축 환경의 특성을 확인할 때, 여러 지역의 특성을 평균하였다. 대부분 지역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역별 해석에 한계를 가진다.

2.2 추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점을 검토한 결과, 앞으로 진행해야 할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와 교외 지역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을 분석하고 본 연구의 유형과 비교·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새로운 유형이 나타난다면 어떠한 변수가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여 추후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유형에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서울의 체류인 상위 14개 국가를 분석하였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많았고 일부 유럽과 북미 국가로 구성되어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의 국가는 유형화에 고려하지 못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아프리카, 중동에서 한국으로 난민 신청이 증가하고, 교역도 증가하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다양한 국가를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화에 반영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을 근거로 이주

민 공동체의 도시·건축 정책과 대안에 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외 외국인 밀집지역 정책을 조사하고,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별 적합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화 연구와 연계하여 국외에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연구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유형 도출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에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분석한다. 특히 국외 한인타운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 강응천(2006), 청소년을 위한 라이벌 세계사, 그린비, 파주시
- 김정위(2002), 이슬람 사전, 학문사, 서울시
- 권영길(2001),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국제, 서울시
- 김민성 외 (2017),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부산시
- 노경섭(2019) 제대로 알고쓰는 논문 통계분석, 한빛아카데미, 서울시
- 루빙지에, 차이앤썬(2008), 건축예술, 대가, 서울시
- 이석정 외 11인 (2005), 도시와 인간, 나남출판, 파주시
- 조너선 블룸 외(2003), 이슬람 미술, 한길아트, 파주시
- 전은배(1986), 중동지역의 주거와 건축특성에 관한 고찰, 월간 건축문화사 v.60, 에이앤씨출판, 서울
- 한국문화인류학회(2003),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일조각, 서울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5), 국민문화 선진화의 과제, 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남원시
- 함현건(2015), 데이터 분석과 저널리즘, 컴윈미디어, 서울시
- Alexander Christopher 1977, A Pattern Language, First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UK
- Bartram, D., Poros, M. & Monforte, P. (2014). SAGE key Concepts: Key concepts in migration 55 City Road, London: SAGE Publications, Inc.
- Friedrich Ragette(2003), Traditional Domestic Architecture of the Arab Region, Menges, Czech Republic

- G. Hofstede, G.J. Hofstede, M. Minkov (2014),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서울시
- H. Lefebvre(2011).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서울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Stierlin Henri(1996), Islam, Italy, Taschen
- Yasser Tabbaa(2002), The transformation of islamic art during the sunni revival,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Washington

■ 학위 및 학회논문

- 강은택, 박세훈, 하성규, 전명진, 마강래, 권오규, 안아림, 박선영 (2012). 국내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도시정책적 함의. 도시정보(368), 3-23
- 권영결(2001), 한·중·일 전통공간에서의 조형정신과 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수(2011), 특화거리의 물리적 환경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엄(1981) 건축물과 보행공간 설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수영, 장수지, 문경주(2014), 신공동체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론과 문화이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2권 1호
- 김중관(2013), MIPEx지수에 의한 다문화사회통합 정책의 비교분석, 한국중동학회논총, 34(1)
- 김지은(2011), 중식 레스토랑의 전통성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 대학교석사학위논문
- 김홍매(2011), 한국과 일본의 국제이주정책 비교 : 노동력 이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성호(2002), 고객세분화를 위한 군집분석 기법 중 K-평균 군집분석 과 코호넨 네트워크의 분류 성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학 위논문
- 남형우(2010), 전통가로경관의 건축적 특성과 보존적 재생 방향에 관 한 연구, 춘천시 약사천 복원길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설 계, 11(1)
- 문선욱, 서도원(2010), 서울 차이나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디자인 가이 드라인 연구, 서울도시연구 11(1)
- 박상현, 우신구 (2008). 상업화된 주거지 상점 파사드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4(1)

- 박세훈·정소양, 2010,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23(1)
- 박지연·이연숙 (2000), 한국·중국·일본의 전통창살그래픽 예제비교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3권
- 박지연 (2000),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 창살 비교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박정환 (2016), 모텔촌의 가로경관특성 분석, 신촌 모텔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윤환, (2010), 수도권지역외국인들의거주지분리에대한 연구, 행정논총, 48(4)
- 박희은, 김현중 (2013). 가로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나타난 정체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3)
- 심복기, 유재득 (2013), 이슬람 건축 장식의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9(12)
- 이규림 (2017), 이슬람 종교건축 모스크 색채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로 (2014), 사천식 레스토랑의 중국 및 지역문화 표현 특성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호, 김태환 (2000), 인지적 공간개념에 의한 실내건축공간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3호
- 오인욱 (2004), 한국의 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난 한국적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3(5)
- 유용 (2008), 환경요인에 의한 동아시아의 실내건축 의미화 조형적 차이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미, 오혜경 (2014). 현대 베트남 대중 레스토랑에 나타난 전통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3(6)
- 이진영 (2011), 수도권에서의 외국인 거주지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원 (2009) 가로경관이미지와 가로공간의 구성요소와의 상관관계, 상업지역 가로와 업무지역 가로를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9(2)
- 오혜경, 이지현 (2007) 레스토랑에 나타난 실내공간과 음식관련요소의 한국성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6(2)
- 조은영 (2007), 색채감성의 국가별 분석과 한국인의 개인색채 유형에 따른 패션색채 기호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무형, 김도녕, 손세형 (2014), 가로활성화를 위한 노천카페거리 다지인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뉴욕, 뉴캐슬, 시드니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5(3)
- 최윤경 (2006), 건축공간구조의 시각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58(10)
- 최은영 (2003), 거주지분리 연구의 비공간적 전통을 넘어 공간지수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47
- 최재필, 박찬영, 최영준, 강준경 (2014), 이라크 현대아파트에 나타나는 전통 주거문화와 공간의 연속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0(2)
- 하성규, 마강래, 안아림 (2011),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2권 제3호
- 하종성 (2016), 2010년 이후 삼청동 상업화 과정에 따른 입면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 정책흐름 : 1인당 지표의 의미와 영향 분석. 재정포럼, 120(0)
- 홍선표 (2013), 도시맥락을 위한 건축입면의 인지요소 순위 결정 및 비교,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진영, 최상헌 (2000), 호텔 로비공간에서의 전통성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2호

- 황보현욱 (2006). Space Identity를 위한 기업 상업공간 파사드 디자인 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 Ager, A. and Strang, A.(2008)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Refugee Studies, 21(2)
- Allen, J. and Turner, E., (1996), Spatial Patterns of Immigrant Assimilation, The Professional Geographer, 28(2)
- Buzzelli, Michael.(2001). From Little Britain to Little Italy: An urban ethnic landscape study in Toronto.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27
- Galster, G. C., (1990), Racial Steering by Real Estate Agents: Mechanisms and Motives, Review of Black Political Economy, 19(1)
- Karl Schweizer(2011), On the Changing Role of Cronbach's α in the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a Measur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7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 S. Kenney(1994). Cultural influences on architecture. Texas Tech University, US
- Skulmoski G. J., Hartman, F. T., & Krahn, J.(2007). The delphi method for graduate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6
- Shone, Steve J. (2004) Cultural Relativism and the Savage: the Alleged Inconsistency of William Graham Sumner,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63(3)
- Tsogoo Bayarjargal (2013), 몽골 근현대 건축에 나타난 몽골 전통과 러시아 양식의 혼용,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Tze Ling Li (2007) A Study of Ethnic Influence on the Facades of

Colonial Shophouses in Singapore: A Case Study of Telok Ayer in Chinatown,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6:1

- Ward, J. H. (1963). Hierarchical grouping to optimize an objective fun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8(301)

■ 연구보고서 및 자료집

- 권영선 (2018), 서울시 주택노후도 현황분석 및 시사점, 주택산업연구원
- 박세훈, 이영아, 김은란, 정소양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 정책 연구(Ⅰ) :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 법무부 (2017),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울시
- 법무부 (2010), 『2009 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울시
- 서울특별시 (2017), 서울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Ver.3, 도시공간개선단
- 정해식외5명 (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동구청 (2018), 성수동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활용을 위한 VI.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안), 성동구청
- 부산광역시 (2017),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부산광역시
- London council (2016), Old east village commercial corridor, urban design manual, Canadam London council
- 서울특별시 (2010),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및 계획결정,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서울특별시
- 성태현 (2019), 소규모 도시 유희공간의 재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측면 공간 활용 가이드라인 구축 및 공간활용 유형별 공유 플랫폼 개발 최종보고서, 한양대학교 산업협력단, 국토교통부

■ 기타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 구글지도 <https://maps.google.com>
-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건축도시공간연구실 <https://laus.snu.ac.kr>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https://www.auric.or.kr>
-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 <http://open.eais.go.kr/>
- 네이버지도 <https://map.naver.com>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 법제처 <https://moleg.go.kr>
-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http://sg.smba.go.kr/>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http://data.si.re.kr/>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카카오지도 <https://map.kakao.com>

- CIA <https://www.cia.gov>
-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
- Hofstede Lab. <https://www.hofstede-insights.com/>
- Migration data portal <https://migrationdataportal.org/>
- NationalMaster <https://www.nationmaster.com/>
- OECD <https://www.oecd.org>
- Patrick rhamey Lab. <https://patrickrhamey.com/>
- UN <https://www.un.org>
- UN migration <https://www.iom.int/>
- World bank <https://www.worldbank.org>

Appendix

1. Power distance index

표 51 76개 국/지역의 권력거리지수

자료: Hofstede(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 Software of the Mind, 3rd edition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1	말레이시아	104	39	벨기에(네)	61
1	슬로바키아	104	39	우루과이	61
3	과테말라	95	41	그리스	60
3	파나마	95	41	한국	60
5	필리핀	94	43	이란	58
6	러시아	93	43	대만	58
7	루마니아	90	45	체코공화국	57
8	세르비아	86	45	스페인	57
9	수리남	85	47	몰타	56
10	멕시코	81	48	파키스탄	55
10	베네수엘라	81	49	캐나다(프)	54
12	아랍어권	80	49	일본	54
12	방글라데시	80	51	이칼리아	50
12	중국	80	52	아르헨티나	49
15	에콰도르	78	52	남아공	49
15	인도네시아	78	54	트리니다드	47
17	인도	77	55	헝가리	46
17	서아프리카	77	56	자메이카	45
19	싱가포르	74	57	라트비아	44
20	크로아티아	73	58	리투아니아	42
21	슬로베니아	71	59	에스토니아	40
22	불가리아	70	59	룩셈부르크	40
22	모로코	70	59	미국	40
22	스위스(프)	70	62	캐나다(전체)	39
22	베트남	70	63	네덜란드	38
26	브라질	69	64	호주	38
27	프랑스	68	65	코스타리카	35
27	홍콩	68	65	독일	35
27	폴란드	68	65	영국	35
30	벨기에(프)	67	68	핀란드	33
30	콜롬비아	67	69	노르웨이	31
32	엘살바도르	66	69	스웨덴	31
32	터키	66	71	아일랜드	28
34	동아프리카	64	72	스위스(독)	26
34	페루	64	73	뉴질랜드	22
34	태국	64	74	덴마크	18
37	칠레	63	75	이스라엘	13
37	포르투갈	63	76	오스트리아	11

2. Individual index

표 52 76개국/지역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지수

자료: Hofstede(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 Software of the Mind, 3rd edition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1	미국	91	39	자메이카	39
2	호주	90	39	러시아	39
3	영국	89	41	아랍어권	38
4	캐나다(전체)	80	41	브라질	38
4	헝가리	80	43	터키	37
4	네델란드	80	44	우루과이	36
7	뉴질랜드	79	45	그리스	35
8	벨기에(네)	78	46	크로아티아	33
9	이탈리아	76	47	필리핀	32
10	덴마크	74	48	불가리아	30
11	캐나다(프)	73	48	멕시코	30
12	벨기에(프)	72	48	루마니아	30
13	프랑스	71	51	동아프리카	27
13	스웨덴	71	51	포르투갈	27
15	아일랜드	70	51	슬로베니아	27
15	라트비아	70	54	말레이시아	26
17	노르웨이	69	55	홍콩	25
17	스위스(독)	69	55	세르비아	25
19	독일	67	57	칠레	23
20	남아공	65	58	방글라데시	20
21	스위스(프)	64	58	중국	20
22	핀란드	63	58	싱가포르	20
23	에스토니아	60	58	태국	20
23	리투아니아	60	58	베트남	20
23	룩셈부르크	60	58	서아프리카	20
23	폴란드	60	64	엘사바도르	19
27	말타	59	65	한국	18
28	체코공화국	58	66	대만	17
29	오스트리아	55	67	필루	16
30	이스라엘	54	67	트리니다드	16
31	슬로바키아	52	69	코스타리카	15
32	스페인	51	70	인도네시아	14
33	인도	48	70	파키스탄	14
34	수리남	47	72	콜롬비아	13
35	아르헨티나	46	73	베네수엘라	12
35	일본	46	74	파나마	11
35	모로코	46	75	에콰도르	8
38	이란	41	76	과테말라	6

3. Masculinity index

표 53 76개국/지역의 남성성-여성성 지수

자료: Hofstede(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 Software of the Mind, 3rd edition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1	슬로바키아	110	39	이스라엘	47
2	일본	95	39	몰타	47
3	헝가리	88	41	인도네시아	46
4	오스트리아	79	41	서아프리카	46
5	베네수엘라	73	43	캐나다(프)	45
6	스위스(독)	72	43	대만	45
7	이탈리아	70	43	터키	45
8	멕시코	69	46	파나마	44
9	아일랜드	68	47	벨기에(네)	43
9	자메이카	68	47	프랑스	43
11	중국	66	47	이란	43
11	독일	66	47	세르비아	43
11	영국	66	51	페루	42
14	콜롬비아	64	51	루마니아	42
14	필리핀	64	51	스페인	42
14	폴란드	64	54	동아프리카	41
17	남아공	63	55	볼가리아	40
17	에콰도르	63	55	크로아티아	40
19	미국	62	55	엘살바도르	40
20	호주	61	55	베트남	40
21	벨기에(프)	60	59	한국	39
22	뉴질랜드	58	60	우루과이	38
22	스위스(프)	58	61	과테말라	37
22	트리니다드	58	61	수리남	37
25	체코	57	63	러시아	36
25	그리스	57	64	태국	34
25	홍콩	57	65	포르투갈	31
28	아르헨티나	56	66	에스토니아	30
28	인도	56	67	칠레	28
30	방글라데시	55	68	핀란드	26
31	아랍어권	53	69	코스타리카	21
31	모로코	53	70	리투아니아	19
33	캐나다(전체)	52	70	슬로베니아	19
34	룩셈부르크	50	72	덴마크	16
34	말레이시아	50	73	네덜란드	14
34	파키스탄	50	74	라트비아	9
37	브라질	49	75	노르웨이	8
38	싱가포르	48	76	스웨덴	5

4. Uncertain avoidance index

표 54 76개국/지역의 불확실성회피 지수

자료: Hofstede(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 Software of the Mind, 3rd edition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1	그리스	112	39	대만	69
2	포르투갈	104	40	아랍어권	68
3	과테말라	101	40	모로코	68
4	우루과이	100	42	에콰도르	67
5	벨기에(네)	97	43	독일	65
6	몰타	96	43	리투아니아	65
7	러시아	95	45	태국	64
8	엘살바도르	94	46	라트비아	63
9	벨기에(프)	93	47	방글라데시	60
9	폴란드	93	47	캐나다(프)	60
11	일본	92	47	에스토니아	60
11	세르비아	92	50	핀란드	59
11	수리남	92	50	이란	59
14	루마니아	90	52	스위스(독)	56
15	슬로베니아	88	53	트리니다드	55
16	페루	87	54	서아프리카	54
17	아르헨티나	86	55	네델란드	53
17	칠레	86	56	동아프리카	52
17	코스타리카	86	57	호주	51
17	프랑스	86	57	슬로바키아	51
17	파나마	86	59	노르웨이	50
17	스페인	86	60	뉴질랜드	49
23	불가리아	85	60	남아공(백)	49
23	한국	85	62	캐나다(전체)	48
23	터키	85	62	인도네시아	48
26	헝가리	82	64	미국	46
26	멕시코	82	65	필리핀	44
28	이스라엘	81	66	인도	40
29	콜롬비아	80	67	말레이시아	36
29	크로아티아	80	68	영국	35
31	브라질	76	68	아일랜드	35
31	베네수엘라	76	70	중국	30
33	이탈리아	75	70	베트남	30
34	체코공화국	74	72	홍콩	29
35	오스트리아	70	72	스웨덴	29
35	룩셈부르크	70	74	덴마크	23
35	파키스탄	70	75	자메이카	13
35	스위스(프)	70	76	싱가포르	8

5. Long-term orientation index

표 55 92개국/지역의 장기지향 지수

자료: Hofstede(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 Software of the Mind, 3rd edition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1	한국	100	47	터키	46
2	대만	93	48	그리스	45
3	일본	88	49	브라질	44
4	중국	87	50	말레이시아	41
5	우크라이나	86	51	핀란드	38
6	독일	83	51	그루지야	38
7	에스토니아	82	51	폴란드	38
7	벨기에	82	51	이스라엘	38
7	리투아니아	82	55	캐나다	36
10	러시아	81	55	사우디아라비아	36
10	벨로루시	81	57	덴마크	35
12	동독	78	57	노르웨이	35
13	슬로바키아	77	59	탄자니아	34
14	몬테네그로	75	59	남아공	34
15	스위스	74	61	뉴질랜드	33
16	싱가포르	72	62	태국	32
17	몰도바	71	63	칠레	31
18	체코공화국	70	64	잠비아	30
18	보스니아	70	65	포르투갈	28
20	불가리아	69	65	아이슬란드	28
20	라트비아	69	67	부르키나파소	27
22	네델란드	67	67	필리핀	27
23	키르키스	66	69	우르과이	26
24	룩셈부르크	64	69	알제리	26
25	프랑스	63	69	미국	26
26	인도네시아	62	72	페루	25
26	마케도니아	62	72	이라크	25
28	알바니아	61	74	아일랜드	24
28	이탈리아	61	74	멕시코	24
28	아르메니아	61	76	호주	21
28	홍콩	61	77	아르헨티나	20
28	아제르바이잔	61	77	말리	20
33	오스트리아	60	77	엘살바도르	20
34	크로아티아	58	80	르완다	18
34	헝가리	58	81	요르단	16
36	베트남	57	81	베네수엘라	16
37	스웨덴	53	83	짐바브웨	15
38	세르비아	52	84	모로코	14
38	루마니아	52	84	이란	14

40	영국	51	86	콜롬비아	13
40	인도	51	86	도미니카공화국	13
42	파키스탄	50	86	나이지리아	13
43	슬로베니아	49	86	트리니다드	13
44	스페인	48	90	이집트	7
45	방글라데시	47	91	가나	4
45	몰타	47	92	푸에르토리코	0

6. Value survey module 2013 questionnaire

V S M 2013

VALUES SURVEY MODULE 2013 QUESTIONNAIRE English language version

MAY BE FREELY USED FOR RESEARCH PURPOSES
FOR REPRODUCTION IN COMMERCIAL PUBLICATIONS,
PERMISSION IS NEEDED

Release May 2013
Copyright @ Geert Hofstede BV
www.geerthofstede.eu

INTERNATIONAL QUESTIONNAIRE (VSM 2013)- page 1

Please think of an ideal job, disregarding your present job, if you have one. In choosing an ideal job, how important would it be to you to ... (please circle one answer in each line across):

- 1 = of utmost importance
- 2 = very important
- 3 = of moderate importance
- 4 = of little importance
- 5 = of very little or no importance

01. have sufficient time for your personal or home life	1	2	3	4	5
02. have a boss (direct superior) you can respect	1	2	3	4	5
03. get recognition for good performance	1	2	3	4	5
04. have security of employment	1	2	3	4	5
05. have pleasant people to work with	1	2	3	4	5
06. do work that is interesting	1	2	3	4	5
07. be consulted by your boss in decisions involving your work	1	2	3	4	5
08. live in a desirable area	1	2	3	4	5
09. have a job respected by your family and friends	1	2	3	4	5
10. have chances for promotion	1	2	3	4	5

In your private life, how important is each of the following to you: (please circle one answer in each line across):

11. keeping time free for fun	1	2	3	4	5
12. moderation: having few desires	1	2	3	4	5
13. doing a service to a friend	1	2	3	4	5
14. thrift (not spending more than needed)	1	2	3	4	5

INTERNATIONAL QUESTIONNAIRE (VSM 2013) – page 2

15. How often do you feel nervous or tense?

1. always
2. usually
3. sometimes
4. seldom
5. never

16. Are you a happy person ?

1. always
2. usually
3. sometimes
4. seldom
5. never

17. Do other people or circumstances ever prevent you from doing what you really want to?

1. yes, always
2. yes, usually
3. sometimes
4. no, seldom
5. no, never

18. All in all, how would you describe your state of health these days?

1. very good
2. good
3. fair
4. poor
5. very poor

19. How proud are you to be a citizen of your country?

1. very proud
2. fairly proud
3. somewhat proud
4. not very proud
5. not proud at all

20. How often, in your experience, are subordinates afraid to contradict their boss (or students their teacher?)

1. never
2. seldom
3. sometimes
4. usually
5. always

INTERNATIONAL QUESTIONNAIRE (VSM 2013) – page 3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please circle one answer in each line across):

- 1 = strongly agree
2 = agree
3 = undecided
4 = disagree
5 = strongly disagree

21. One can be a good manager without having a precise answer to every question that a subordinate may raise about his or her work

1 2 3 4 5

22. Persistent efforts are the surest way to results

1 2 3 4 5

23. An organization structure in which certain subordinates have two bosses should be avoided at all cost

1 2 3 4 5

24. A company's or organization's rules should not be broken - not even when the employee thinks breaking the rule would be in the organization's best interest

1 2 3 4 5

INTERNATIONAL QUESTIONNAIRE (VSM 2013)- page 4

Some information about yourself (for statistical purposes):

25. Are you:

1. male
2. female

26. How old are you?

1. Under 20
2. 20-24
3. 25-29
4. 30-34
5. 35-39
6. 40-49
7. 50-59
8. 60 or over

27. How many years of formal school education (or their equivalent) did you complete (starting with primary school)?

1. 10 years or less
2. 11 years
3. 12 years
4. 13 years
5. 14 years
6. 15 years
7. 16 years
8. 17 years
9. 18 years or over

28. If you have or have had a paid job, what kind of job is it / was it?

1. No paid job (includes full-time students)
2. Unskilled or semi-skilled manual worker
3. Generally trained office worker or secretary
4. Vocationally trained craftsperson, technician, IT-specialist, nurse, artist or equivalent
5. Academically trained professional or equivalent (but not a manager of people)
6. Manager of one or more subordinates (non-managers)
7. Manager of one or more managers

29. What is your nationality?

30. What was your nationality at birth (if differen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7. 서울시 행정구별 국적별 외국인 거주지분리지수 (dissimilarity index)

표 56 서울시 행정구별 국적별 유사성지수

	중국 (통합)	한국계 중국인	미국	타이완	일본	베트남	몽골	필리핀	우즈베 키스탄	러시아	인도	프랑스	기타
종로구	0.2416	0.2801	-	-	-	0.1189	-	-	-	-	-	-	0.1557
종로	0.4216	0.2541	-	0.1633	-	-	0.1058	-	0.3262	0.2619	-	-	0.1893
용신구	0.1580	0.1639	0.2242	0.0000	0.3184	-	-	0.2007	-	-	0.1028	-	0.3074
성동구	0.2548	0.2180	-	-	-	-	-	-	-	-	-	-	0.1762
광진구	0.4785	0.3780	-	-	-	0.1315	-	-	-	-	-	-	0.2324
동대문구	0.4104	0.2553	-	-	0.0822	0.0828	0.0963	-	-	-	-	-	0.2174
중랑구	0.1469	0.1333	-	-	-	-	0.0387	-	-	-	-	-	-
성북구	0.3003	0.1762	-	-	-	-	0.0733	-	-	-	-	-	0.1823
강북구	0.1939	0.1672	-	-	-	-	0.1241	-	-	-	-	-	-
도봉구	0.0820	-	-	-	-	-	-	-	-	-	-	-	-
노원구	0.1588	0.0594	-	-	-	-	-	-	-	-	-	-	0.1353
은평구	0.0954	0.1154	-	-	0.2057	-	-	-	-	-	-	-	-
서대문구	0.3423	0.0799	0.3401	0.2211	0.2748	-	-	-	-	-	-	0.3060	0.3047
마포구	0.2443	0.1934	0.0011	0.0577	0.1209	-	-	-	-	-	-	-	0.1179
양천구	0.2100	0.1852	-	-	-	-	-	-	-	-	-	-	-
강서구	0.2162	0.2144	-	-	-	-	-	-	-	-	-	-	0.1902
구로구	0.5918	0.5665	-	-	-	-	-	-	-	-	-	-	-
금천구	0.2595	0.2413	-	-	-	0.0691	-	-	-	-	-	-	0.1442
영등포구	0.4210	0.3847	-	-	-	-	-	-	-	-	-	-	0.0924
동작구	0.3712	0.4453	-	-	-	0.1201	-	-	-	-	-	-	0.1543
관악구	0.3728	0.3970	-	-	-	-	-	-	-	-	-	-	0.2418
서초구	0.0844	0.1116	-	-	-	-	-	-	-	-	-	0.2502	-
강남구	0.1558	0.0959	0.0682	-	0.0604	-	-	-	-	-	-	-	0.1581
송파구	0.2519	0.2304	-	-	-	-	-	-	-	-	-	-	-
강동구	0.2335	0.2512	-	-	-	-	-	-	-	-	-	-	-
- 지역별 거주인이 100인 유사성지수에서 신뢰성이 낮으므로 제외함(하성규, 마강래, 안아림, 2011) 참고													

Abstract

The study on typology of areas densely populated with foreigners and Urban Environments

Park Chan Young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gainst the backdrop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South Korea recently witnessed, various issues related to immigrant communities have been observed across the South Korean society. On such grounds, this study aims to delve into the fundamental cause of these issues. Current policies for foreigners in South Korea lacks the flexibility to embrace the diversity of immigrant communities. Also, since studies related to policies for foreigners in South Korea are not only outdated, but also since the data used in the studies are heavily weighted towards residential purposes of foreign nationals only, these studies and policies fail to take into account the diverse residential types and nationalities of foreigners.

Policies and studies regarding immigrants that have been created in the

past seem to have disregarded the diverse circumstances and characteristics of immigrants and immigrant communities, but instead focused only on specific situations or characteristics. This lack of diversity proved to be inappropriate for accommodating the constantly changing and multiplying immigrant communities. The foremost goal for the future regarding immigrant communities in South Korea is to identify elements found commonly across all immigrant communities to formulate policies and conduct studies that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 inclusive culture.

To address the issues found in current policies for immigrants in South Korea,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distinc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ies from which the immigrants have come; compares and analyzes such characteristics; categorizes the areas densely populated with foreign nationals in Korea into different types; and seeks methods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by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aspects of urban architectural environment for each typ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practically applied to designing new policies and follow-up studies on immigrant communities in South Korea to ultimately help immigrant communities successfully assimilate into Korean society and to truly accomplish social integration among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The study first categorizes immigrant communities in South Korea into different types based on social capit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communities, which are regarded a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immigrant communities. Next, the study examines the urban architectural environment of each type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rban architectural environment an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for each type of immigrant community. The brief summary of each chapter is outlined below.

Chapter two focuses on community theory and national culture theory. Based on these theories, elements related to social capital and elements that

serve as the basis of value judgments for immigrant communities apart from the social norm are examined. Next, studies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immigrant communities and the existing categorization of these communities are studied. The above theories and preceding studies become the backbone of this study in drawing up the variables that are regarded as characteristics unique to immigrant communities.

In chapter three, the overall process of categorizing multiple immigrant communities is designed and variables for the study are extracted. Firstly, the areas heavily populated with immigrants to be studied are selected. Based on the theories and preceding studies mentioned in the previous chapter, variables for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ve countries from which the immigrants have come and variables for distinguishing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circumstances and status in South Korea are identifi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immigrant communities by the native country of the immigrants.

In chapter four, cluster analysis is conducted based on the data derived from the previous chapter. The collected data is standardized and non-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i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number of clusters. Then,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is conducted to categorize the immigrant communities that show similar characteristics into four clusters. Lastly, ANOVA (Analysis of variance) test is conducted to validate the variables.

Chapter five delves deeper in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lements of urban architectural environm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four types of immigrant communities. Firstly, the four types of immigrant communities are analyz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Next, elements of urban architectural environment of each type are analyzed to identify how the characteristics of immigrant community affect the urban architectural environment for each type. Last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elements

are identifi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categorize immigrant communities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architectural environment of each type, and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elem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used to deepen our understandings of immigrant communities in the future.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critical resources for developing policies for immigrants currently residing in South Korea as well as for presenting a new paradigm for studies and policies for foreign nationals in the future.

It is highly anticipa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omoting true social integration by helping the immigrants settle and assimilate successfully into Korean society. Successful assimilation of foreign nationals into Korean society will precipitate multiple positive effects including enhancement of the city's image and revitaliz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Moreover, the assimilation of immigrants into the culture will elevate the national image as a country that embraces cultural diversity and fosters inclusion on a global level.

Keywords : Ethnic town, typology, Urban Environments,
National culture theory, Clustering analysis

Student Number : 2012-30147